

최종 보고서

2019
당진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컨설팅



2019. 8.

제출문

당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9 당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컨설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8월

충 남 연 구 원

원 장 윤 황

요 약 문

1. 연구 목적과 방법론

- 본 과업은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1차년도 연구로 (1)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사업 현황조사 및 행정 지원체계 정비 방향 제시, (2)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민간단체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방향 제시, (3)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방향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함
- 본 과업은 당진시 행정(건설과 기반조성팀) 및 지역 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민관위크숍을 통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또 충남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일한 목적의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 충남도 14개 시·군과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밀착형으로 추진됨

2. 마을만들기 행정 지원체계 효율화 방향

1)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추진 현황

- 당진시는 223개의 행정리 중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수가 총93개로, 전체의 41.7%(중복 제외)가 마을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짐. 희망마을 1기 및 현장포럼 사업 경험을 가진 예비단계(1단계) 마을이 53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희망마을선행사업(1.5단계)이 16개 마을임
- 타 시·군에 비해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의 추진 실적이 적은 편이며, 1~1.5단계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2~4단계 사업 추진은 미흡하여 역량단계별 지원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농식품부 행복마을 콘테스트 충남도 예선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사례도 적은 등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2)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과 업무 정비 방향

- 당진시는 건설과 기반조성팀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업무와 중간지원조직 사업을 담당하는 총괄·조정 부서 역할을 수행중임. 하지만 농촌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소통협력새마을과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중이고 관련 업무 사이의 협력관계는 구축되어 있지 못함
- 농촌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계속 신규 사업이 제시되며 재정분권으로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농촌마을 정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책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과 전문인력 충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공동체 활성화 중심의 총괄·조정 ‘과’ 신설과 업무협조체계 강화, 행정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함. 또한, ‘과’ 신설과 병행하여 공동체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조기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3) 평가와 대안 모색 : 행정지원체계 정비 방향

-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 및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1) 농촌 마을만들기 전담 팀의 신설과 총괄·조정 역할 강화, (2) 관련 행정 사업의 강력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3) 민간 전문가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전문직위 제도 적극 도입 등 순환보직제 단점을 극복하고, 또 향후 업무량 증가에 대비할 것 등을 제안함
- 향후 당진시의 마을공동체 관련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체경제과’(가칭) 신설을 적극 제안함
 - (가칭)‘공동체경제과’ 포함 업무의 특성 : 1) 민간 주도, 상향식 강조 업무, 2) 행정과 주민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업무, 3)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융복합 성격이 강한 업무, 4)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가 적극 요구되거나 논의되는 업무
 - (가칭)‘공동체경제과’의 팀 구성 주요 업무 : 현재 소통협력새마을과의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이통장 업무, 기업지원과의 사회적경제 업무, 건설과의 농촌 마을공동체 업무 등. 이외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6차산업과 체험휴양마을 및 도농교류, 학교급식, 푸드플랜 등의 업무와 친환경농업과 귀농귀촌 업무도 적극 검토함

- 향후 시범사업으로 농식품부 및 충남도의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에 맞추어 당진시 실정에 맞는 소액 프로그램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제안함. 마을주민 관점에서 일상적으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소액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연차별·역량단계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소규모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지원조직이 시급하게 설치될 필요가 있음

3. 마을만들기 민간 협의회 및 네트워크 구축 방향

1)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현황

-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 당사자협의체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협의회, 귀농귀촌인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이 있음. 하지만 농촌 마을만들기를 대표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련 영역의 협의체 활동도 매우 부진한 상황임
- 농촌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협력할 수 있는 관련 유사 중간지원조직으로는 당진시 행정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청년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음
- 전체적으로 당진시는 마을만들기 관련 당사자가 중심이 된 협의체는 발달되어 있지 않고, 특히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음. 또한 마을과 행정, 민간 단체를 연계하고 매개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도 매우 미약한 상태임

2) 마을만들기 민간협의회의 의미와 설립 방향

-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당면과제는 당사자 협의체로서 마을 위원장들만의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임. 타 지역과 비교하여 당진시는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임
- 당진시 마을리더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스스로 협의회 설립을 주도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제1회 마을대학을 2020년 1~2월 농한기에 개최하여 집중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 논의 결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당진시지부의 참여를 바탕으로 협의회 설립을 주도하도록 요청하고, 설립 이후에는 귀농귀촌과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지속가능발전 등 관련 영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마을만들기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향 : 조례와 중간지원조직

1)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현황과 향후 방향

- 당진시는 본 연구기간 중인 2019년 7월에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지원체계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표준조례안과 당진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교·검토하여 향후의 수정, 보완 방향을 제시함
- 또 마을만들기 및 관련 조례를 민관협치 관점에서 비교·검토한 결과,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조례에 이런 관점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 제정된 사회적경제 조례도 일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함
- 향후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을 통합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전제로 ‘당진시 공동체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한 몇 가지 원칙과 방향도 제안함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설치·운영 방향

- 마을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은 마을에 밀착하여 마을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기존의 행정이 담당하기 힘든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당진시는 2019년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행정직영 센터로 설치하여 중간지원조직의 경험을 축적할 것을 제안함. 또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간위탁 또는 재단법인 형태 등의 방향을 결정할 것을 제안함
- 기본적으로 향후 당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발전방향으로서 우선 행정직영으로 설치하여 시작하되,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의 관련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형 설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안함. 이러한 과정은 행정 지원체계 정비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공동학습과 토론 및 합의의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양한 선택지의 장단점을 검토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이 가능할 것임

- 본 연구는 당진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 안을 제안함
 - 1단계(2019년)로 행정직영으로 우선 설치하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함
 - 2단계(2020년)로 행정조직 개편과 병행하여 상반기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형 재단법인 설립 또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중에서 결정
 - 3단계(2021년 이후)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설치)하고, 관련 영역의 유사 기능을 흡수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운영

5. 종합평가와 2020년 사업 제안

1) 종합평가와 향후 일정

-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14개 시·군 공동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1)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공감대 구축, (2) 농촌 마을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의 중요성 인식, (3) 2019년 행정직영 형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조기 설치 및 운영 경험 축적 등을 제안함
- 당면 과제 및 주요 일정을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함
 - (1) 행정직영 중간지원조직의 조기 설치 및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
 - (2) 마을대학 및 정책워크숍 등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통합 범위 및 경로 결정
 - (3) 총괄조정팀 조직 개편 및 행정지원협의회 개최 등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 (4)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및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5) 2020년 상반기 지역공론화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범위와 경로(민간위탁, 통합형 재단 설립 등)를 결정하고, 결정결과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 추진
 - (6) 2021년 1월에 행정직영 중간지원조직의 민간 독립

2) 마을만들기 2020년 사업 제안

- 2019년 농식품부 마을만들기 사무의 지방이양(1단계)에 따라 2020년은 이를 반영하여 당진시의 독자적인 농촌마을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도기에 해당함
- 현재 시급한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1) 신규사업 발굴을 자제하고 기존 사업 리모델링 중시, (2) 민관의 공동학습을 강화하고 행정과 민간의 역할 분담 추진, (3)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유지 및 소액사업 중시, (4) 지역 인재의 육성과 외부 유치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를 제안함
- 2020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제안함
 - (1) 농식품부 역량강화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체계 구축
 - (2) 마을만들기 참여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
 - (3) 고유 독자사업으로 마을 지원 소액경관사업(우리 마을 가꾸기) 신규 도입
 - (4)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 등
- 또 2019년 이월사업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반)상근활동가 인력 다수 확보, 개소식과 연계한 프로그램 사업 충실 등을 제안하고 8개 사업을 예시로 제시함

3) 2020년 2차년도 연구과제 제안

- 본 연구과제는 당진시가 충청남도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정책임
- 당진시는 2차년도인 2020년도에도 주민 참여, 민간 주도를 통한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과 행정직영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밀착형의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함. 따라서 2차년도 연구과제를 통해 2019년 1차년도 본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과업으로 제안함
 - (1) 행정 지원체계 강화 방향 제안
 -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제안
 - (3)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문 및 제안
 - (4) 통합형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 독립 경로 제안
 - (5) 재정분권에 따른 당진형 마을만들기 독자 사업 제안 등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연구 방향

제1절 과업의 배경과 개요	3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7
제3절 당진시 기본 현황과 연구 관점	10

제2장. 당진시 마을만들기 행정 지원체계 효율화 방향

제1절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추진 현황	25
제2절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과 업무 정비 방향	39
제3절 평가와 대안 모색 : 행정 지원체계 정비 방향	70

제3장. 당진시 마을만들기 민간 협의회 및 네트워크 구축 방향

제1절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현황	85
제2절 마을만들기 민간협회의 의미와 설립 방향	100
제3절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당면 과제	121

제4장. 당진시 마을만들기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향 : 조례와 중간지원조직

제1절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현황과 향후 방향	131
제2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설치·운영 방향	142
제3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단계적 발전 전략	153

제5장. 종합평가와 2020년 사업 제안

제1절 종합평가와 향후 방향	163
제2절 마을만들기 2020년 사업 제안	172
제3절 2020년 2차년도 연구과제 제안	184

참고 문헌	186
-------------	-----

부록

부록1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93
부록2 충남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196

표 목 차

[표 1-1] 2019년 시·군 중간지원조직 연구용역 추진현황	8
[표 1-2] 당진시 읍면동별 인구변화	11
[표 1-3] 당진시 읍면동별 인구지표 현황	12
[표 1-4] 당진시 농가수 및 농가인구 추이	14
[표 1-5] 당진시 연도별 귀농귀촌가구 현황	14
[표 1-6] 당진시 읍면동별 토지지목 현황	15
[표 1-7] 당진시 경지 규모별 농가수 추이	15
[표 1-8] 당진시 읍면동별 마을 현황	16
[표 2-1] 충남도 농촌 마을만들기 및 관련 영역과 업무분장	25
[표 2-2] 당진시 마을 역량단계별 사업추진 현황	26
[표 2-3] 당진시 희망마을 1기 사업 추진현황	28
[표 2-4] 당진시 농어촌 현장포럼 추진 현황	29
[표 2-5] 당진시 희망마을 선행사업 추진현황	30
[표 2-6] 당진시 (창조적)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현황	31
[표 2-7] 당진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32
[표 2-8] 당진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현황	33
[표 2-9] 당진시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추진 현황	34
[표 2-10] 당진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현황	35
[표 2-11] 당진시 색깔있는 마을 지정 현황	36
[표 2-12] 당진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	36
[표 2-13] 당진시 마을기업 지정 현황	37

[표 2-14] 당진시 농촌 교육농장 지정 현황	38
[표 2-15] 당진시 마을만들기 주요 사업 및 업무 담당자 현황	40
[표 2-16]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 분장 사무	43
[표 2-17] 충남 타 시·군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편성 현황	44
[표 2-18] 홍성군 마을공동체팀과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업무분장표	47
[표 2-19] 보령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의 업무분장표	49
[표 2-20]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팀별 업무 분장표	51
[표 2-21]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진흥담당팀, 농촌개발담당팀 업무분장표	53
[표 2-22]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부서 운영 사례 비교	54
[표 2-23] 당진시 행정워크숍 프로그램	59
[표 2-24] 계약직(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유형과 특징	64
[표 2-25] 충남 타 시·군 마을만들기 관련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66
[표 2-26] 당진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현황	68
[표 2-27] 신규 희망마을 3.0 융복합 사업(안)의 주요 내용	78
[표 3-1]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 현황	87
[표 3-2] 당진시 사회적기업 현황	91
[표 3-3] 당진시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원 현황	93
[표 3-4] 제1회 논산시 마을대학 : 마을 ‘애로사항’ 토론 결과	101
[표 3-5]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 협의회 설립 현황	112
[표 3-6] 제1회 당진시 마을대학 세부 프로그램(안)	115
[표 3-7] 당진시와 홍성군의 민간 조직 비교	123

[표 3-8] 당진시 민간워크숍 진행 프로그램	124
[표 3-9]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절차 및 장단점 비교	127
[표 4-1] 전국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현황 : 키워드별, 자치단체 유형별	133
[표 4-2] 전국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현황 : 광역 지역별, 자치단체 유형별	134
[표 4-3]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기본 구성 : 표준조례안과의 비교	136
[표 4-4] 당진시 마을만들기 및 관련 정책 영역 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138
[표 4-5]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형태 비교	145
[표 4-6]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1 : 재단법인과 민간위탁	149
[표 4-7]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2 : 공공사무의 수행 방식 측면	150
[표 4-8]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3 :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 ...	151
[표 5-1] 재정분권에 따른 충남도 시군의 2020년 마을만들기 사업구상 현황	176
[표 5-2] 2019년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예산 현황과 집행 상황 분석	180

그 림 목 차

[그림 1-1] 재정분권에 따른 마을만들기사업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4
[그림 1-2] 충남도 민선6기 희망마을 2단계 추진체계	4
[그림 1-3] 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정책 지원시스템 구축의 10대 핵심과제	5
[그림 1-4] 당진시의 지리적 위치	10
[그림 1-5] 당진시 농촌 마을만들기와 관련 분야간 상호협력 관계 개념도	18
[그림 1-6] 지원 시스템 구축의 접근관점 : 행정 사업의 전달체계 정비	21
[그림 1-7] 지원 시스템 구축의 접근관점 : 민관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22
[그림 2-1] 당진시 연도별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현황	26
[그림 2-2] 당진시 읍면별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현황	27
[그림 2-3]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담당 부서와 행정 사업	39
[그림 2-4] 충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시·군의 총괄·조정 부서 현황	41
[그림 2-5] 홍성군 농촌지역개발 총괄·조정 부서 신설 배치 현황	46
[그림 2-6] 보령시 농촌지역개발 총괄·조정 부서 신설 배치 현황	48
[그림 2-7] 청양군 농촌지역개발 총괄·조정 부서 신설 배치 현황	50
[그림 2-8] 거창군 농촌지역개발 총괄·조정 부서 신설 배치 현황	52
[그림 2-9] 당진시 행정워크숍 진행 모습	60
[그림 2-10] 당진시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부서 신설 제안 : 공동체경제과(가칭)	73
[그림 2-11] 진안군의 역량단계별 지원 마을사업 개념도	75
[그림 2-12] 충남도 역량단계별 마을 사업 지원체계(기본개념)	76
[그림 2-13] 충남도 역량단계별 마을 사업 구분(2018년 12월 개정판 내용)	77
[그림 2-14] 충남도 희망마을 3.0 융복합 사업(안)의 추진 일정 : 2021년 기준	78

[그림 2-15]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79
[그림 2-16]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을 연계한 충남도 표준모델	81
[그림 3-1] 마을만들기 3대 전국 조직	86
[그림 3-2]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도	88
[그림 3-3]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사진	89
[그림 3-4] 당진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 사진	90
[그림 3-5] 당진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활동 사진	91
[그림 3-6]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 사진	94
[그림 3-7] 당진청년센터 나래 조직도	95
[그림 3-8] 당진청년센터 나래 활동 사진	96
[그림 3-9]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	97
[그림 3-10]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로 : 당사자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102
[그림 3-11]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발전단계 구분	104
[그림 3-12]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조직도와 협력기관	107
[그림 3-13] 당진시 농촌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조직체계(제안)	119
[그림 3-14] 당진시 민간워크숍 진행 모습	125
[그림 4-1] 중간지원조직의 대두 배경과 성격	142
[그림 4-2]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4대 유형과 장단점	147
[그림 4-3] 당진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1단계 : 행정직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154
[그림 4-4] 당진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2단계 1안 :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가칭)	155
[그림 4-5] 당진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절차 : 1안과 2안의 비교	157
[그림 5-1] 당진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일정 1 : 통합형 재단법인 설립 경로	170
[그림 5-2] 당진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일정 2 : 민간위탁 경로	171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연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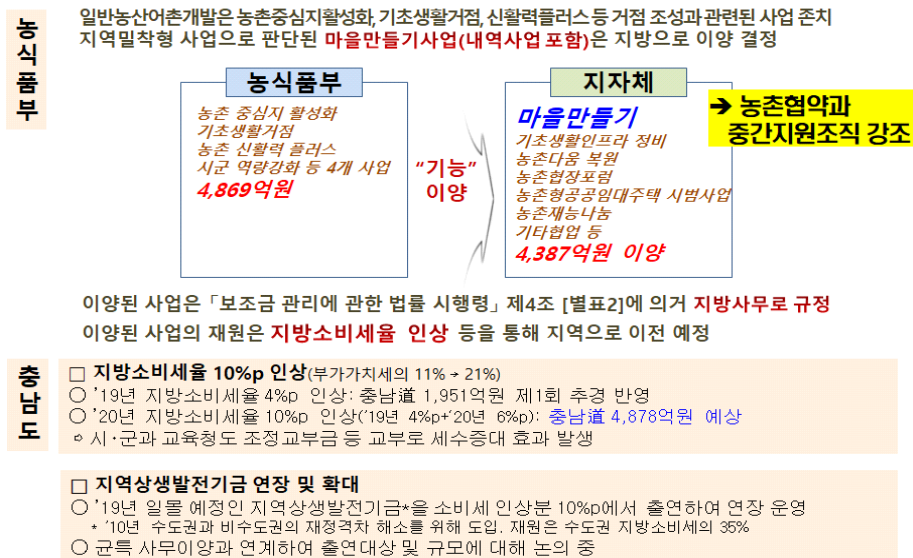
제1절 과업의 배경과 개요

1. 과업의 배경과 목적

□ 과업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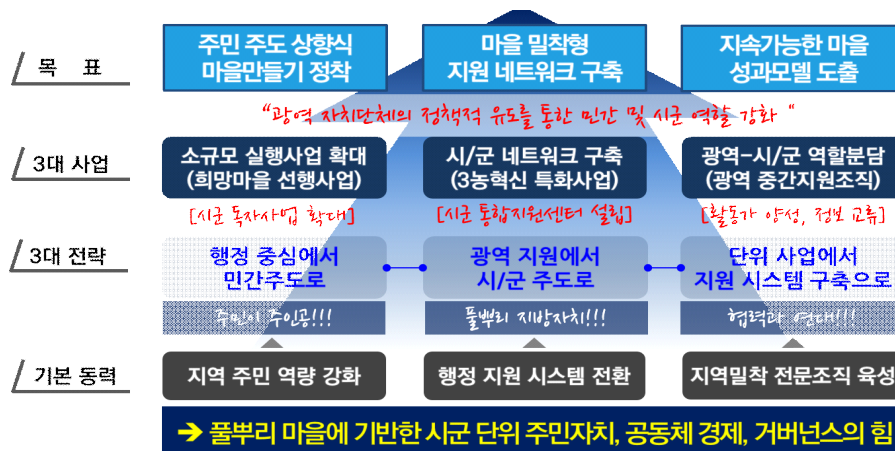
- ‘주민 주도, 상향식’의 방법론을 중시하는 마을만들기는 마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내발적 발전의 전략이 가장 중요한 원칙임. 주민들 스스로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공동목표를 세우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마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함
- 하지만 마을 외부에서 행정과 민간단체의 지원체계 정비나 조례 제정,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도적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임. 농촌 마을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생활권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주민 주도, 상향식’의 방법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산적해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농촌 마을 리더의 지나친 희생·봉사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전국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국토부와 행안부 등은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나 조례 제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모사업 선정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음. 2018년 11월 현재, 행안부와 농식품부는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위 법률 제정을 추진중에 있음
 - 농식품부의 20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 자율적 정책기반이 구축된 경우 사업비를 추가하여 지원해주는 것으로 개편되었음
 - 또 민간조직으로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중에 있음
- 2019년 4월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일환으로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을만들기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최종 확정됨. 이에 따라 2020년 사업부터 기초 지자체가 독자적인 농촌마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하는 책임이 부가되어 있음
 - 농식품부는 마을만들기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으로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마

을만들기 사업의 시행유무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강력하게 유도한다는 계획임. 즉, 지자체의 독자적인 농촌마을정책이 수립되고,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면 국비 공모사업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취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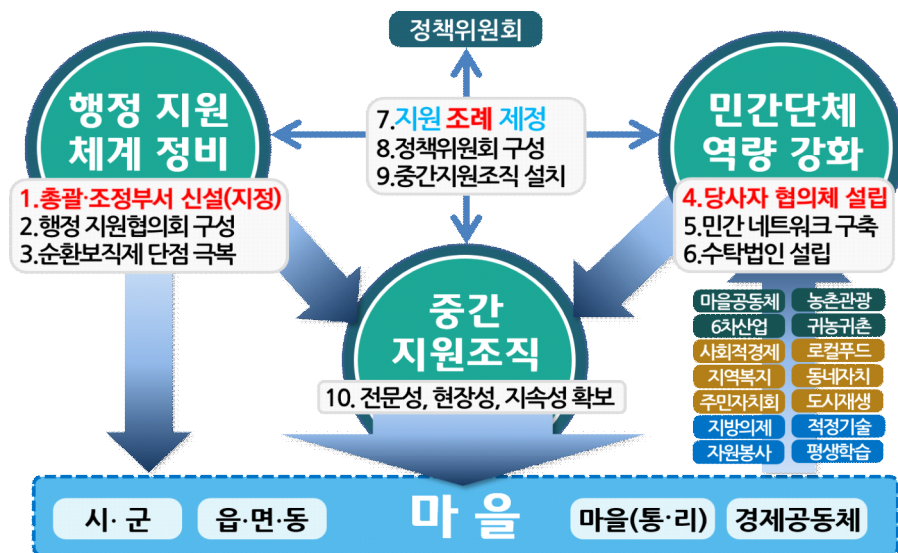
[그림 1-1] 재정분권에 따른 마을만들기사업의 지방이양 추진계획(2019. 4.)

- 또한, 충남도는 민선5기 희망마을 만들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민선6기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치단체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1)행정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2)광역 지원에서 시군 주도로, (3)단위 사업에서 시스템 구축으로 3대 전략을 수립함. 이러한 전환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마을만들기의 시행착오 경험을 반성하면서 근본적인 해결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음([그림 1-2] 참고)
-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민선7기 희망마을 3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림 1-2] 충남도 민선6기 희망마을 2단계 추진체계

- 이와 병행하여 당진시는 충남도 「2018년 마을만들기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사업에 착수하였음
- 본 사업은 ‘마을만들기의 자치단체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효율적인 행정 지원 체계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 조례 제정,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자치단체마다 지역 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2개년에 걸쳐 해결해가는 방향을 제안함([그림 1-3] 참고)



[그림 1-3] 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정책 시스템 구축의 10대 핵심과제

□ 과업의 목적

- 본 연구는 총2차년도(2019~2020) 연구의 1차년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함
- (1)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사업 현황조사 및 조직개편 방향 제시
- (2)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현황 조사와 민간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방향 제시
- (3)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방향 제시
- (4) 2020년 당면과제 및 향후 일정, 주요 사업 제안 등

2.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2019 당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컨설팅」
- 과업기간 : 2019년 2월 28일(착수일) ~ 2019년 8월 26일
- 소요예산 : 18,400,000원(일금 일천팔백사십만원정)
- 공간적 범위 : 당진시 일원
- 내용적 범위
 - 마을만들기의 행정 지원체계 분석과 효율화 방안 제시
 - 마을만들기의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향 제시
 - 농촌 마을만들기의 조례 제정 방향 및 초안 제시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 방향 제시
 - 2020년 신규 사업 제안
- 과업 수행 지침 : 본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아래 박스 참고) 충남도청의 동일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타 시군과의 공동연구 성과는 보고서에 각주로 명기함

IV. 과업수행 지침

○ 본 과업은 공공행정의 절차와 방식에 준하여 추진한다.

1. 일반 및 보안사항

가. 본 과업은 2015년부터 충남도의 13개 시·군(4년차 5개, 3년차 4개, 2년차 2개, 1년차 2개)에서 동시 추진중인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타 시·군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및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 과업의 특성상 선진지 사례 분석과 통합모델 검토, 법·제도 분석, 신규사업 발굴 등은 13개 시·군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공동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공동연구 성과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단, 지역 특성에 맞추어 관련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제안해야 한다.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1. 주요 연구 내용

□ 당진시의 여건 분석과 접근 방향

- 당진시의 특징과 마을만들기 여건 분석
- 중앙정부 및 선진지 자치단체 사례 분석
-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방향

□ 마을만들기의 행정 지원체계 분석과 효율화 방안

-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현황 분석과 평가
- 관련 행정 업무 및 조직 체계 분석과 협력체계 구축 방향
-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효율적 지원체계 정비 방향

□ 마을만들기의 당사자협의체 설립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향

- 마을만들기 및 관련 민간단체 현황 조사
-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체 설립 방향
- 관련 영역과의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향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 방향

- 마을만들기 및 관련 영역의 조례 분석과 통합형 기본조례 제정 방향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향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구성, 조직, 사업 등 제안

□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로

- 마을만들기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당면과제
- 향후 주요 경로와 일정

2. 과업 추진 방향

□ 현장지향형 연구추진체계 구축

- 충남도 민선6기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을 제안했던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책임을 맡아 과업의 큰 방향 설정과 조사 결과 분석 등에 적극 참여함. 또 충남연구원 에서 2016년 8월부터 수탁운영 중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도하여 당진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향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 외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민관 워크숍 혹은 마을대학 운영을 통해 민관의 역량강화 과정을 병행하고 향후 독자적인 운영 기반 구축에 기여함
- 당진시의 다양한 마을위원장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2개년에 걸친 연구 종료와 더불어 민간 네트워크가 설립되고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동학습의 기회로 활용함

□ 타 시·군과의 협력방안 모색

- 본 연구용역과 같은 성격의 과업을 인근 공주시(2차년도), 서산시(1차년도)에서도 동시에 추진중임([표 1-1] 참고). 2015년부터 이미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예산군, 홍성군¹⁾, 서천군, 보령시, 청양군, 태안군²⁾, 금산군, 부여군³⁾ 등에서 착수하였음
-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충남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충남도의 협조를 받아 타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면서 상호 경험 공유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또 매월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을 시·군 순회로 운영하면서 시군역량 강화와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

[표 1-1] 2019년 시·군 중간지원조직 연구용역 추진현황(3개 시군)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시·군	당진시	서산시	공주시
계약기간	2.28~8.26	6.5~12.1	6.10~12.6

1) 5개 시·군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에 걸쳐 수행함

2) 4개 시·군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에 걸쳐 수행함

3) 금산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수행하였고, 부여군은 2018년에 1년간 수행함

□ 관련 공동연구 성과의 반영

- 2015년부터 수행된 타 시군의 연구용역 성과를 최대한 수렴하고, 당진시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함
- 지역별 여건과 출발상황에 차이가 있고 세부 과업내용도 다르지만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동일한 목표로 추진되고,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큰 방향에서는 유사성이 많음. 이에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행경험을 공유하면서 원-원 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또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둘러싸고 행정 공무원과 마을리더, 활동가 등이 공동으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가 학습자료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이에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공동연구의 성과는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에 포함하되 각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함

제3절 당진시 기본 현황과 연구 관점

1. 당진시 기본현황

1) 지리적, 인구 사회적 특성

□ 위치 및 지리

- 당진시는 충청남도 최북단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삼교천을 경계로 아산시, 서쪽으로 서산시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서산시·예산군과 접해 있음. 북쪽으로는 서해와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평택시·화성시와 마주하고 있음
- 당진시는 2/3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당진항은 수도권 및 충남 주요 도시와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당진시는 14개 읍면동(2읍, 9면,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138개 법정리, 223개 행정리로 구성됨
- 면적은 704.4㎢로 충남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15개 시군들 중 세 번째로 넓은 지역임. 당진시 내에서 석문면이 103.4㎢(14.7%)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송악읍 80.8㎢(11.5%), 대호지면 65.8㎢(9.3%) 순서임



자료 : 당진시청 홈페이지

[그림 1-4] 당진시의 지리적 위치

□ 인구 및 가구 현황([표 1-2], [표 1-3] 참고)

- 당진시 전체인구는 최근 1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5년 122,016명에서 2019년 173,263(2019년 7월 31일 기준)명으로 51,247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송악읍은 2005년 13,581명에서 2019년 31,851명으로 2배 이상의 인구증가를 보임
 - 서해대교가 위치한 송악읍은 당진시의 관문지역으로, 고대·부곡지구 국가산업단지와 당진1철강 일반산업단지가 입주하고 있어서 산업의 요충지로서 지역개발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전체 14개 읍면동 중에서 송악읍과 석문면, 신평면, 송산면, 당진1동, 당진2동은 인구가 증가하지만 나머지 8개 읍면동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당진시 전체인구 173,263명 중 당진1~3동(2012년 당진읍이 3개 동으로 분할되어 설치) 인구가 64,705명으로, 당진시 인구의 37.3%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읍면 단위에서는 송악읍이 18.4%(31,851명)로 인구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1-2] 당진시 읍면동별 인구변화

연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당진시(합계)	122,016	148,337	170,259	173,263
합덕읍	11,912	11,199	11,039	10,375
송악읍	13,581	23,322	27,525	31,851
고대면	6,754	6,280	6,089	5,793
석문면	8,288	8,032	8,323	9,895
대호지면	3,220	2,915	2,734	2,512
정미면	4,067	4,088	3,987	3,870
면천면	4,295	4,085	4,039	3,943
순성면	7,275	6,522	6,108	5,599
우강면	6,978	6,540	5,976	5,406
신평면	12,998	15,120	18,116	16,943
송산면	8,541	9,564	12,863	12,371
당진1동	—	—	24,189	24,820
당진2동	—	—	19,203	20,997
당진3동	—	—	20,068	18,888

자료 : 당진시 통계DB. *2019년 7월 31일 기준

- 당진시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총16.4%로 전국 평균(14.8%)보다 약간 높은 편이나 충청남도 평균(17.5%)보다는 약간 낮음
 - 당진3동의 고령화율이 7.4%인데 비해 대호지면은 40.5%로 높게 나타나 읍면동별 고령화율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령화율은 대호지면(40.5%), 정미면(34.9%), 고대면(33.6%) 순서로 높고, 그 다음으로 순성면과 면천면, 우강면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짐
 - 면 단위에서는 송산면(14.7%), 신평면(16.2)이 다른 면의 절반 수준으로 낮은 편임
- 인구밀도(㎢당 거주 인구)는 당진1동이 4,250.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당진3동이 1243.1명으로 그 뒤를 이음. 가장 낮은 곳은 대호지면으로 ㎢당 39.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표 1-3] 당진시 읍면동별 인구지표 현황

구분	세대수*	인구수(명)	세대당 인구수(명)	65세 이상(명)	고령화율 (%)	면적 (㎢)	인구밀도 (명/㎢)
당진시(합계)	74,586	172,816	2.3	28,386	16.4	704.4	245.3
합덕읍	4,866	10,683	2.2	2,900	27.1	51.3	208.2
송악읍	12,821	28,851	2.3	3,548	12.3	80.8	357.1
고대면	2,793	5,906	2.1	1,987	33.6	63.3	93.3
석문면	5,161	9,793	1.9	2,169	22.1	103.4	94.8
대호지면	1,284	2,612	2.0	1,059	40.5	65.8	39.7
정미면	1,963	3,918	2.0	1,369	34.9	49.6	79.0
면천면	1,799	4,016	2.2	1,234	30.7	39.2	102.3
순성면	2,547	5,785	2.3	1,789	30.9	44.4	130.3
우강면	2,461	5,700	2.3	1,748	30.7	38.9	146.7
신평면	6,871	17,395	2.5	2,816	16.2	53.8	323.5
송산면	5,713	12,694	2.2	1,861	14.7	62.8	202.3
당진1동	11,269	25,629	2.3	2,271	8.9	6.0	4250.2
당진2동	8,003	20,441	2.6	2,197	10.7	29.6	690.1
당진3동	7,035	19,393	2.8	1,438	7.4	15.6	1243.1

자료 : 2018 당진시 통계연보. *외국인세대수 제외

□ 산업과 경제 현황

- 당진시는 2018년 기준으로 쌀 재배면적이 19,140ha, 생산량이 108,673톤으로 전국 1위임. 특히, 당진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해나루의 대표적인 해나루쌀은 2005년

쌀 가공 분야 국제품질인증과 국제환경인증을 받았고,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각종 상품대회에서 6년 연속 대상을 받음

- 당진시는 무와 배추의 주산지로서 2015년 기준으로 무의 경작면적은 641ha로 전국에서 가장 넓으며, 배추의 경작면적도 255ha로 전북 고창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 당진시는 1980년대까지 전형적인 농수산업 지역이었음. 하지만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세 개의 대형 방조제(삼교천 방조제, 대호 방조제, 석문 방조제)로 확보된 용지를 농업용지뿐만 아니라 공업용지와 택지 등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서해대교 개통으로 물류기반을 갖추으로써 농공업 복합지역이 됨
- 당진시 전체 산업 현황 중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전체의 24.5%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광업으로 전체의 0.07%를 차지함
- 한편, 전체 산업 중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제조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수의 37.8%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2) 농업 · 농촌 현황

□ 농가 및 농가 인구([표 1-4] 참고)

- 2018년 기준으로 당진시 농가는 11,702호, 농가인구는 26,871명으로 당진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함
- 농가의 변화를 보면 농가수는 2005년에서 2018년 사이 2,889호(19.8%) 감소했으며, 농가 인구 역시 13,034명이 감소하여 2005년에 비해 약1/3(32.7%)이 감소됨. 이는 같은 기간의 충남 평균 감소 경향(농가 12.8% 감소, 농가인구 21.8%)보다 아주 빠르게 진행된 것임
 - 최근 들어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농가인구는 감소했으나, 농가수는 오히려 169호가 증가함. 특히 겸업농가수가 크게 줄고 전업농가수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농가인구의 남성과 여성 비율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2018년에는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함

[표 1-4] 당진시 농가수 및 농가인구 추이

구분	농가(호)				농가인구(명)		
	합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합계	남	여
2005년	14,591	8,922	2,934	2,735	39,905	19,479	20,426
2010년	13,489	6,709	3,364	3,416	35,729	17,567	18,162
2015년	11,533	6,715	2,094	2,724	27,230	13,476	13,754
2018년 (비율)	11,702 (100.0%)	7,902 (67.5%)	3,800 (32.5%)		26,871 (100.0%)	13,435 (50.0%)	13,436 (50.0%)

자료 : 당진시 통계DB

- 당진시는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타 지역과 유사하게 귀농가구보다 귀촌가구가 절대적으로 많음([표 1-5] 참고). 2014년부터 총5년 간 귀농가구는 453호, 귀촌가구는 19,005호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는 귀촌가구수가 아산시 다음으로 많음
 - 귀농귀촌 가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마을마다 다양한 혼란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표 1-5] 당진시 연도별 귀농귀촌가구 현황

(단위 : 호)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귀농	78	90	102	92	91	453
귀촌	4,034	3,838	3,595	3,695	3,843	19,005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 경지면적([표 1-6] 참고)

- 당진시 전체 면적 70,440ha 중에서 총 경지면적은 28,158ha(2017년 기준)로 39.9%를 차지하여 농경지 비율이 전국 평균(16.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논 6,986ha, 밭 21,172ha로 밭의 비중이 훨씬 높음
- 석문면이 42.63ha로 경지면적이 가장 넓으며 당진1동이 1.35ha로 가장 좁음. 경지 비율로 보면 우강면이 64.8%로 가장 높고, 당진1동이 22.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토지지목별로 보면 전체 토지면적의 32.7%가 임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특히 봉화산·은봉산·어시산 등 여러 산줄기가 가로지르는 정미면은 토지의 55.9%가 임야임

[표 1-6] 당진시 읍면동별 토지지목 현황

(단위: km²)

구분	전체 면적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공장 용지	염전	양어장	기타
당진시(합계)	704.44 (100%)	69.86 (9.9%)	211.72 (30%)	1.84 (0.3%)	4.19 (0.6%)	230.17 (32.7%)	23.30 (3.3%)	3.77 (0.5%)	0.13 (0.02%)	159.46 (22.6%)
합덕읍	51.30	6.09	22.88	0.25	0.47	8.48	1.78	—	0.01	11.34
송악읍	80.80	9.61	21.84	0.39	0.59	25.69	5.89	0.43	0.02	16.35
고대면	63.33	6.30	18.78	0.09	0.44	23.70	0.88	0.38	0.03	12.72
석문면	103.35	4.77	37.86	0.09	0.10	20.34	6.93	0.66	0.01	32.58
대호지면	65.81	4.31	14.99	0.07	0.89	31.55	0.30	0.25	0.01	13.45
정미면	49.57	5.48	9.14	0.02	0.43	27.71	0.43	—	0.01	6.35
면천면	39.24	5.28	6.37	0.01	0.20	21.17	0.74	—	—	5.46
순성면	44.40	6.68	9.88	0.34	0.37	19.54	1.14	—	0.02	6.43
우강면	38.86	2.52	22.68	0.14	0.06	1.94	0.19	—	—	11.33
신평면	53.77	8.01	18.68	0.29	0.33	9.84	0.93	0.19	0.01	15.48
송산면	62.75	5.05	20.37	0.05	0.21	14.71	3.92	1.86	0.02	16.56
당진1동	6.02	0.59	0.76	0.00	0.03	2.06	0.01	—	—	2.56
당진2동	29.62	3.08	4.12	0.05	0.04	16.53	0.06	—	—	5.74
당진3동	15.60	2.08	3.38	0.02	0.03	6.91	0.09	—	0.002	3.10

자료 : 당진시 통계DB, 2017년 기준

- 경지규모별 농가 현황(2015년 기준)은 1.5ha 미만이 전체의 65.7%(경지없는 농가 0.9%, 0.5ha미만 29.0%, 0.5~1.5ha 35.8%)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농의 비중이 높음. 농가의 경지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5ha 이상의 농가가 2005년 6.1%에서 2015년 7.7%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농지의 집적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표 1-7] 참고)

[표 1-7] 당진시 경지 규모별 농가수 추이

(단위 : 호)

연별	합계	경지없는 농가수	0.5ha 미만	0.5ha~ 1.5ha 미만	1.5ha~ 3ha 미만	3ha~ 5ha 미만	5ha이상
2005년	14,591	124	3,257	5,691	3,363	1,266	890
	100.0%	0.8%	22.3%	39.0%	23.0%	8.7%	6.1%
2010년	13,489	105	3,468	5,133	2,878	1,068	837
	100.0%	0.8%	25.7%	38.1%	21.3%	7.9%	6.2%
2015년	11,533	106	3,349	4,133	2,160	897	888
	100.0%	0.9%	29.0%	35.8%	18.7%	7.8%	7.7%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 행정리 마을 현황

- 당진시는 14개 읍면동, 223개의 행정리, 1,632개 통·반이 존재함. 1개 행정리·통당 세대수는 당진1동이 704.3세대로 가장 많으며, 면천면이 105.8세대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읍면 단위에서 행정리수는 평균 20개 규모로, 그중 합덕읍이 34개로 가장 많고, 대호지면이 12개로 가장 적음([표 1-8] 참고)

[표 1-8] 당진시 읍면동별 마을 현황(2018년 기준)

구분	면적 (km ²)	세대수		인구수 (명)	행정 리 · 통 · 반의 수		
		전체 세대수*	행정리통당 세대수		리	통	반
당진시(합계)	704.43	74,586	268.3	172,816	223	55	1,577
합덕읍	51.30	4,866	143.1	10,683	34	—	175
송악읍	80.80	12,821	413.6	28,851	31	—	190
고대면	63.33	2,793	155.2	5,906	18	—	89
석문면	103.35	5,161	271.6	9,793	19	—	78
대호지면	65.81	1,284	107.0	2,612	12	—	57
정미면	49.57	1,963	109.1	3,918	18	—	69
면천면	39.24	1,799	105.8	4,016	17	—	80
순성면	44.40	2,547	149.8	5,785	17	—	109
우강면	38.86	2,461	144.8	5,700	17	—	101
신평면	53.77	6,871	327.2	17,395	21	—	139
송산면	62.75	5,713	300.7	12,694	19	—	89
당진1동	6.03	11,269	704.3	25,629	—	16	128
당진2동	29.62	8,003	348.0	20,441	—	23	148
당진3동	15.60	7,035	439.7	19,393	—	16	125

자료 : 2018 당진시 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외국인세대수 제외

3) 당진시의 주요 특징과 연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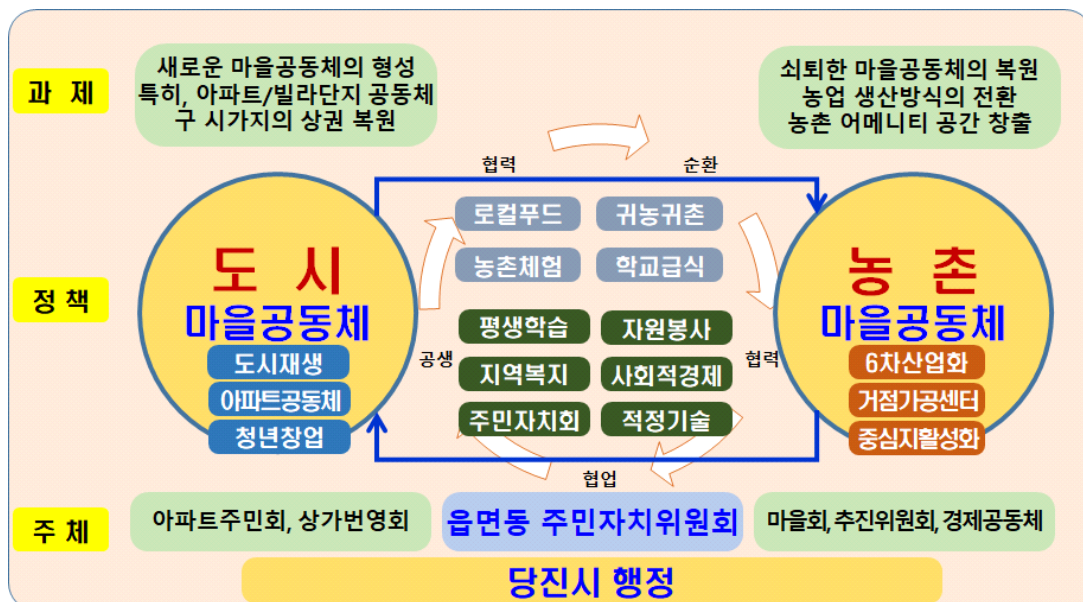
□ 당진시의 역사와 주요 특징

- 당진(唐津)시 이름은 신라시대에 중국 당나라와 교역하던 항구였던 데서 유래함. 간척사업 이전 당진 일대는 바닷물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지형이었고, 지금도 당진시 경계의 2/3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음

- 북쪽 바다로 튀어나온 반도와 같은 지형 특성상 육상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해로의 접근이 편리하여, 유럽 상선들의 개항 도발을 자주 받았으며 서양세력과의 교류와 선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짐. 우강면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피성지가 있음
- 송악읍 기지시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 벚짚을 이용했다는 점은 농업의 특성을 보여주고, 줄틀을 활용한 줄꼬는 방식은 어업의 영향을 보여주며, 시장 상인들이 모은 비용으로 마련했다는 점은 상업의 특성을 보여줌. 옛날부터 이 지역에 농업과 어업, 상업이 모두 성행했음을 알 수 있음. 오늘날 기지시 줄다리기는 당진 지역의 대표 민속 축제로서 매년 4월 둘째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개최됨
- 한편, 송악면은 1930년대 계몽소설인 <상록수>가 집필된 곳으로, 당진시에서는 작가인 심훈을 추모하고 상록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상록문화제라는 향토 문화제가 열림
- 1990년대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방조제가 건설되었고, 방조제 건설로 확보된 넓은 간척지와 평야지대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시기와 맞물려 국내 철강제철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포항과 광양에 이은 국내 제3의 철강산업도시로 부상함
- 2012년 1월 1일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되면서 1995년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서 세 번째로 군 전역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됨. 2000년 아산만을 가로지르는 서해대교가 건설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수도권과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인구유입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
- 당진시는 1990년대 폐기물 처리장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화력발전소 반대운동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남. 한편, 2014년부터 ‘당진형 주민자치’ 모델을 시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왔고, 2015년에는 전체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충남 최초로 읍면동 주민총회를 실시함. 2019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중임. 향후 풀뿌리 시민운동과 주민자치역량을 농촌 마을만들기와 어떻게 연계·협력시켜 나갈 것인가가 과제임

□ 당진시 농촌마을정책의 발전방향 및 본 연구의 접근 방향

- 당진시의 내발적인 지역발전 방향에 기여 :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와 이에 기초한 마을 단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 주민자치의 성과를 기반으로 마을자치로 지속적 확장
 - 각종 당사자 조직 내에서 학습과 토론 문화를 형성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민과 민, 민과 관 사이에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형성
 - 도시형 마을만들기 촉진과 연계하여 도농순환을 강화하면서 농촌 마을공동체 복원으로 연결하며 내발적인 지역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조기 설치하고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내부의 인적 역량이 집중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 도농통합시 특성에 맞는 도농순환형 마을공동체 복원에 기여 : 지역발전의 성과가 내부에 축적되고 순환되며 확장되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그림 1-5] 참고)
 - 도농통합시이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기에 도농교류의 선진지를 지향함
 - 농업 생산물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비·유통되고, 도시민 관광객이 농촌 체험객으로 유입되며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순환체계 구축
 -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시형 마을만들기 등과 연계하여 도농통합시의 당진시 특성에 맞는 정책 융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



[그림 1-5] 당진시 농촌 마을만들기와 관련 분야간 상호협력 관계 개념도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기여 :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거버넌스(협치)형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문화적 전통 구축
 -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와 환경, 교육, 문화예술, 복지 등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민선7기 제1과제로 추진중인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의 맥락에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민관협치 시스템이 구축되고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 농촌 마을만들기의 당진형 브랜드 개발에 기여 : 재정분권에 대응하는 당진시 고유의 정책 시스템 개발
 - 일제 강점기 농촌부흥의 대표적인 작품인 <상록수>와 심훈 작가의 생가를 농촌마을 정책의 브랜드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이를 위해 행정과 민간의 협치모델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대표 모델로 활용
 - 농식품부 마을만들기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2020년은 농촌마을정책의 과도기에 해당하므로, 2021년에 본격적으로 당진형 농촌마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

2. 본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 관점(문제의식)

1) 문제의식1 : 마을 주민 활동을 어떻게 외부에서 지원할 것인가?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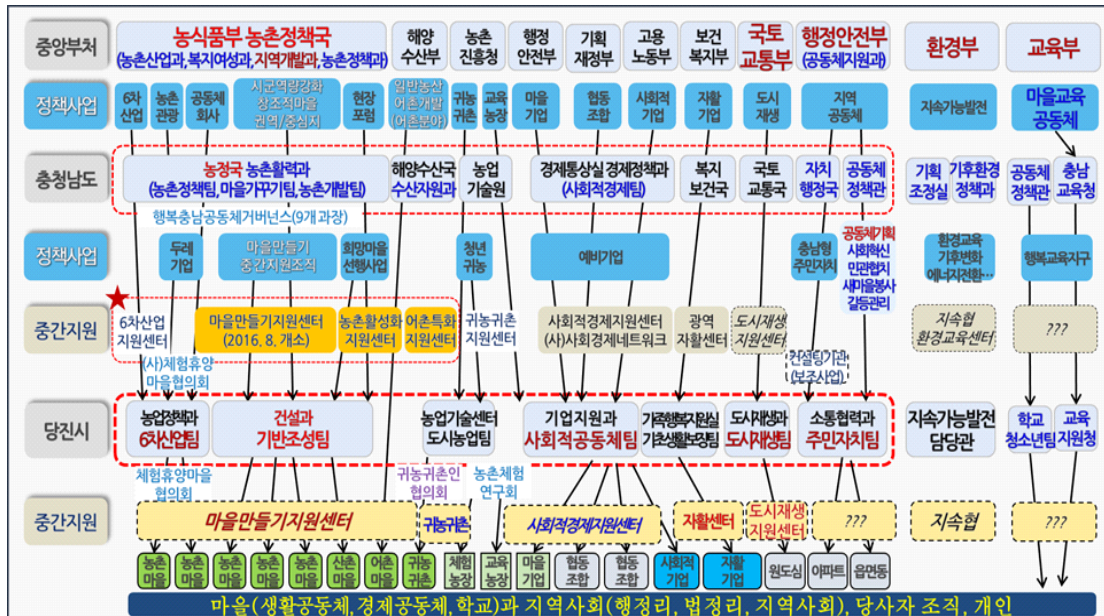
- 당진시는 14읍면동, 278통리로 매우 다양한 자연환경 유형만큼 고유한 역사와 농업 여건, 인적 자원 구성 등 마을마다 다양한 형태의 특징이 있음
- 이런 풀뿌리 마을과 지역사회의 주민자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무엇보다 “마을 밖에서 행정과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는 ‘주민 주도, 상향식’을 원칙적인 방법론으로 추진함. 하지만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촌마을은 외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또 다양한 영역의 민간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 마을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함

2) 문제의식2 : 행정 사업(서비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행정 사업으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은 매우 많고, 충남도만 보더라도 15개 과, 36개 사업 정도가 있음. 사회적경제와 창업 지원 교육 사업도 매우 다양하게 있음
 - 당진시는 농촌마을 사업을 건설과 기반조성팀이 담당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의 담당 부서와 협조체계가 미약함
- 전반적으로 소위 ‘칸막이’ 행정 속에서 업무 간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중앙에서 광역, 기초 자치단체를 거치면서 매우 복잡한 체계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임
 - 이 때문에 마을은 전체 사업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마을만들기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도 접근 창구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임
- 그래서 같은 마을사업을 하더라도 행정사업의 지원 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통해 행정은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집행 모니터링 등 행정의 고유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음

4) 이하 세 가지 관점은 2015년부터 추진한 9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로 기본적으로 내용이 동일하고 당진시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함. 이하에서도 공동연구 성과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각주로 별도 표기함

- 특히 당진시는 건설과 기반조성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6차산업팀,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팀 등으로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이 분리되어 있음. 농촌 마을만들기와 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등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 협력할 것인가가 당면과제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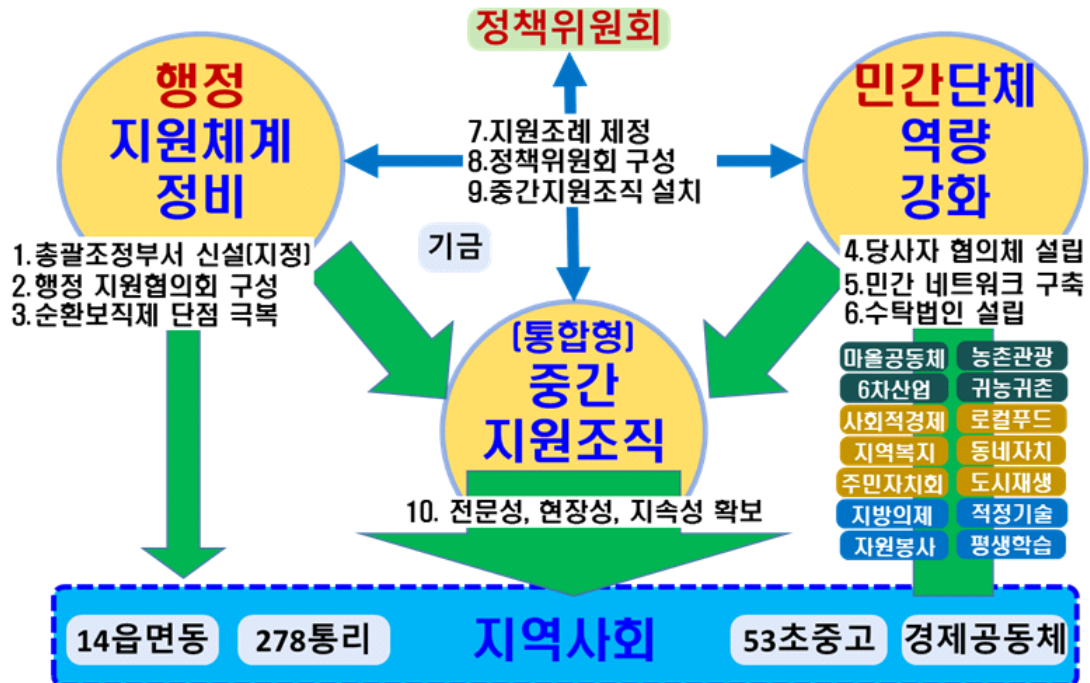
[그림 1-6] 지원 시스템 구축의 접근관점 : 행정 사업의 전달체계 정비

3) 문제의식3 : 민간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행정과 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통해 마을만들기 정책이 시행되어야 효과가 크다는 것이 다른 선진지 자치단체에서 확인되고 있음
 - 하지만 짧은 지방자치 현실에서 민간의 역량은 성장하지 못하였고, 행정의 ‘칸막이’로 인해 민간단체도 사업별로 설립되어 칸막이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이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 (1) 행정의 지원 체계 정비와, (2)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 (3)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당진시는 본 과업 기간중에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9.7.)’를 제정함
 - 마을만들기 영역에서는 위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지원 시스템 정비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충남도는 타 마을만들기 선진지에서 추진해온 오랜 경험을 도입하여 2015년부터 지원 시스템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도입하여 추진중에 있음
- 당진시 또한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관협력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연구용역 추진이 지연되어 2019년에 1차년도 연구를 착수함

중앙정부 정책 동향+ 선진 자치단체 사례 분석



[그림 1-7] 지원 시스템 구축의 접근관점 : 민관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제2장.

당진시 마을만들기

행정 지원체계 효율화 방향

제1절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추진 현황

1. 마을만들기 사업과 업무 분장

- 행정에 대한 민간(마을 리더)의 가장 큰 비판은 (1) 마을 사업이 다양하게 흩어져 전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2) 행정 지원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점, (3) 담당 공무원이 순환보직제로 자주 바뀐다는 점 등으로 압축할 수 있음
 - 선진지 자치단체는 행정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음
 - 이런 의미에서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과 조직 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은 크게 (1) 충청남도 마을사업, (2)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사회적경제 영역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충남도청의 행정사업과 담당 부서는 [표 2-1]과 같음

[표 2-1] 충남도 농촌 마을만들기 및 관련 영역과 업무분장

행정 사업 명칭		사업담당 부서 명칭		
구분	명칭	국	과	팀
1) 충청남도 마을사업	희망마을만들기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도농교류			농촌정책팀
	농촌체험휴양마을			
2)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총괄			마을가꾸기팀
	시군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			
	시·군창의아이디어			
	권역종합개발(일몰)			
	농촌신활력플러스			
	중심지활성화			농촌개발팀
	기초생활거점육성			
3) 관련 영역	사회적경제	농어촌공동체회사	농업정책과	복지여성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경제통상실	사회적경제팀
		협동조합		
	주민자치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충남형 주민자치회		자치분권팀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자료 : 2019년 8월 기준, 2018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마을지원과는 농촌정책의 주무부서로 농촌활력과 과로 개편됨

2. 농식품부 역량단계별 사업 추진 현황([표2-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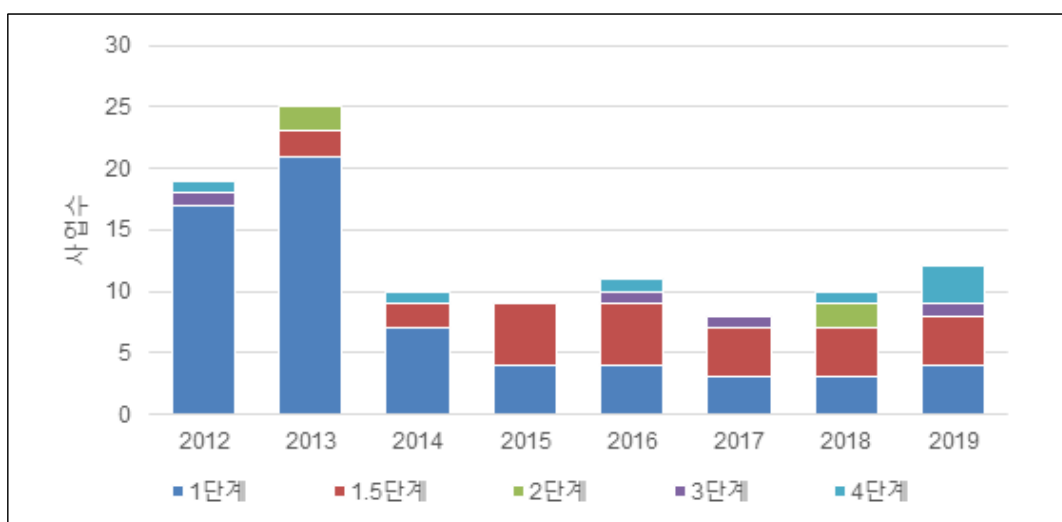
- 당진시는 223개의 행정리 중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수는 총93개로 당진시 전체 행정리의 41.7%가 마을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짐(중복 제외)
- 사업유형별로는 희망마을만들기 마을학교와 현장포럼의 예비단계(1단계) 사업에 참여한 마을이 53개로 가장 많음([그림2-1] 참고)
- 발전단계인 권역사업(4개)에 참여한 마을(행정리)은 총13개 마을임
- 농식품부가 구분하는 마을 역량단계별 사업추진 현황으로 볼 때 행정 사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마을수가 130개에 해당함
- 읍면별 현황은 전체 11개 읍면 중 신평면이 20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17.7%로 제일 많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고대면(14개), 함덕읍(13개), 송악읍(12개), 우강면(12개) 순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그림 2-2] 참고)

[표 2-2] 당진시 마을 역량단계별 사업추진 현황(농식품부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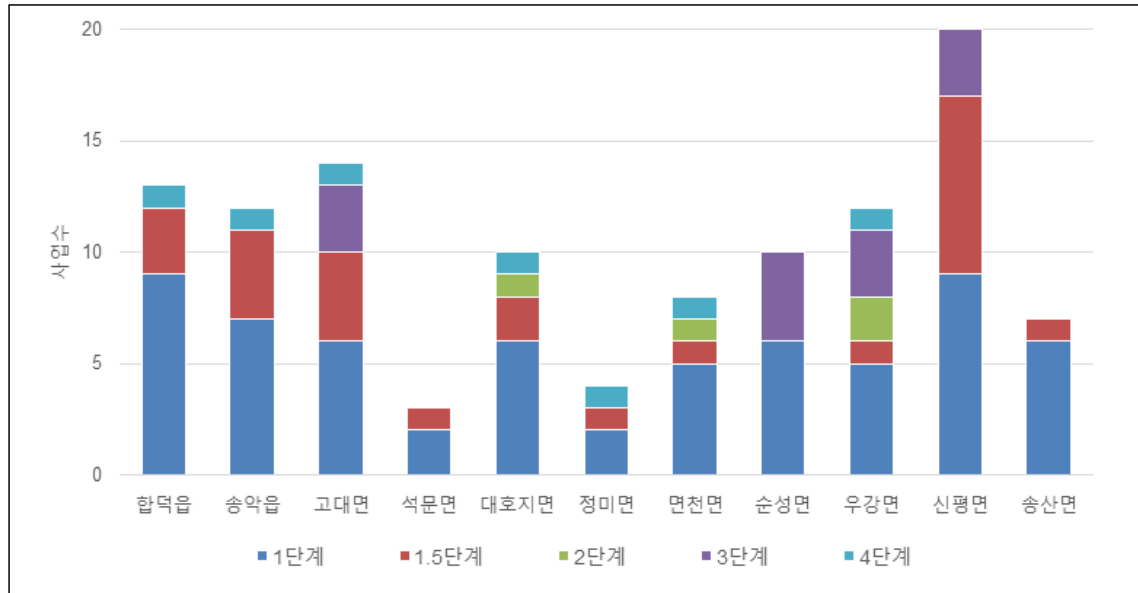
읍면동	전체마을수 (행정리)	발전단계					
		미시행	예비단계	1.5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14	223	130	53 *(63)	16 *(26)	4 *(4)	13 *(13)	7 *(7)

*() : 사업추진 수, 중복포함

자료 : 당진시청 건설과 기반조성팀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2-1] 당진시 연도별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현황(2012~2019년)



[그림 2-2] 당진시 읍면별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현황(2012~2019년)

- 당진시에서 추진한 마을 사업을 농식품부 역량단계별 구분체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예비단계 사업 현황

□ 충청남도 희망마을 1기 사업(2012~2014년)

- 충청남도 ‘3농혁신’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내발적 마을만들기를 위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둠
- 역량 단계별 마을만들기를 위해 마을별 소규모 특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지역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자원조사 및 발전계획 수립, 주민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함
- 당진시는 2012년에 17개 리, 2013년 17개 리, 2014년 4개 리가 참여하여 역량강화 및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희망마을 선행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마을 발전 기반을 구축함([표 2-3] 참고)

[표 2-3] 당진시 희망마을 1기 사업 추진현황(2012~2014년)

연도	마을 수	대상지
20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덕읍 신촌리 • 고대면 성산2리 • 석문면 교로1리 • 대호지면 조금리 • 대호지면 송전리 • 대호지면 출포리 • 정미면 봉성리 • 면천면 삼웅2리 • 순성면 광천리 • 순성면 옥호1리 • 우강면 송산2리 • 우강면 대포리 • 신평면 금천1리 • 신평면 신송1리 • 송산면 부곡리 • 송산면 삼월리 • 송산면 유곡리
201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덕읍 도곡리 • 합덕읍 묵성리 • 합덕읍 덕곡리 • 송악읍 기지사리 • 송악읍 가교1리 • 송악읍 가학리 • 고대면 장항2리 • 고대면 당진포2리 • 대호지면 적서리 • 면천면 자개1리 • 순성면 봉소1리 • 순성면 본1리 • 순성면 본2리 • 우강면 송산1리 • 우강면 공포리 • 신평면 초대2리 • 송산면 서정리
201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면 용두1리 • 대호지면 장정리 • 면천면 송학1리 • 면천면 죽동1리
합계	38	-

자료 : 당진시청 건설과 제공

□ 농어촌 현장포럼

- 마을 주민들이 현장활동가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자원을 발굴·분석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함
- ‘색깔있는 마을’ 육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테마를 찾아 장기적인 발전과제를 수립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을 비전 수립과 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함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희망마을 1기 참여 마을 중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현장포럼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희망마을 2기 사업(2015~2019)에서 소액 선행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현장포럼을 실시함
- 당진시는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총25개 마을이 현장포럼에 참여하였으며 리더교육, 주민교육, 테마과제 발굴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비전 공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표 2-4] 참고)
-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농어촌 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일부는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실무 진행함

[표 2-4] 당진시 농어촌 현장포럼 추진 현황(2013~2019년)

연도	마을 수	대상지	사업비
201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 성산2리 우강면 대포리 	마을당 1천만원
201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덕읍 성동리 송악읍 가학리 면천면 삼웅1리 	
201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악읍 반촌2리 송악읍 정곡리 신평면 신당리 송산면 무수리 	
201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덕읍 묵성리 신평면 금천1리 대호지면 장정리 정미면 사관리 	
201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덕읍 상궁원리 합덕읍 중궁원리 합덕읍 합덕리 	
201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 진관1리 송악읍 반촌2리 신평면 신송1리 	
201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평면 신흥1리 송산면 부곡리 신평면 도성2리 신평면 신송2리 	
합계	25	-	

자료 : 충남도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제공

2) 1.5단계 희망마을 선행사업 추진현황

□ 충청남도 희망마을 선행사업

- 제1기 희망마을 사업을 통해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로, 주민들이 소액사업 추진을 통해 경험 축적 및 단계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촌현장포럼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아이디어의 일부를 직접 실행해 봄으로써 주민 협동의지 및 마을 역량 향상을 통해 중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당진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총26개 마을이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문화를 담은 마을 시설물 복원, 벽화그리기, 문패달기, 꽃길 및 등산로와 쉼터 조성, 가로환경개선 등의 마을경관 분야 지원사업과 주민교육 및 마을발전컨설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표 2-5] 참고)
- 2013부터 2014년까지는 희망마을 1기 사업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마을에 인센티브로 지원되었고, 2015년부터는 공모과정을 통해 마을당 3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됨

[표 2-5] 당진시 희망마을 선행사업 추진현황(2013~2019년)

추진년도	마을명		사업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읍·면	리		
2013	고대면	성산2리	20	• 마을경관정비
	신평면	신송1리	20	• 가로수 식재
2014	면천면	자개1리	20	• 마을경관 조성사업
	송산면	서정1리	20	• 마을경관 조성사업
2015	고대면	성산2리	26	• 벽화그리기, 문패달기
	석문면	초락도1리	26	• 공동 과수원 조성
	대호지면	장정리	26	• 제방길을 이용한 산책로 조성
	정미면	봉성리	26	• 공동농장 조성
	신평면	초대2리	26	• 옛 빨래(우물)터 복원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2016	송악읍	반촌2리	30	• 꽃길, 등산로, 마을쉼터 조성 등
	고대면	성산2리	30	• 꽃길 조성, 가로환경 정비 등
	대호지면	송전리	30	• 가구별 국기게양대 설치 • 도로변 꽃길 조성 등
	신평면	금천1리	30	• 공영주차장 및 화단 조성 등
	신평면	신송1리	30	• 우물터 복원 사업 등
2017	송악읍	반촌2리	30	• 꽃길, 등산로, 마을쉼터 조성 등
	우강면	송산2리	30	• 꽃길 조성 및 가로환경 정비 등
	신평면	초대2리	30	• 꽃길 조성 및 가로환경 재정비 등
	신평면	신송1리	30	• 우물터 복원 사업 등
2018	송악읍	반촌2리	30	• 꽃길, 등산로, 마을쉼터 조성 등
	합덕읍	상궁원리	30	• 담장, 굴뚝 벽화 만들기 및 경관정비 등
	합덕읍	합덕리	30	• 마을회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안내소 리모델링 등
2019	신평면	신송1리	30	• 마을 담장 타일벽화 만들기 등
	송악읍	반촌2리	30	• 도심 속 빛이 되는 반촌마을 가꾸기
	신평면	신송1리	30	• 마을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합덕읍	합덕리	30	• 마을경관과 신앙의 역사 표현사업
2019	고대면	진관1리	30	• 마을안내도 및 홍보물 설치 사업
합계		26개 마을	720	

자료 : 당진시청 건설과 제공

3) 진입단계 사업 현황

□ (창조적)마을만들기(자율개발_문화, 경관, 경제 등 중규모 사업)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으로서 2018년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중임. 예산은 국비 포함하여 총500백만원임
- 본 사업은 사전에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소액사업(1천만원 이하)을 통해 공동체 활동 경험을 축적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1개 행정리 단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경관·생태, 문화·복지, 체험·소득 등 분야별로 마을별 장기발전계획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추진함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에 2억원 이상의 사업이 추진된 마을은 마을 단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인정함
- 당진시는 2013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단위) 사업으로 총2개 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그 중 1개 마을은 사업비를 반납하고 1개 마을만 추진됨. 2018년에는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중임([표 2-6] 참고)
- 2020년에는 사업지구로 고대면 진관1리와 신평면 신송1리 2개 마을이 농식품부에 신청하였지만 순위가 낮아 각각 100백만원만 지원 예정임(100% 시비)

[표 2-6] 당진시 (창조적)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현황

선정연도	구 분	지구명	사업기간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2013	체험·소득	신평면 신송1리	2013~2015	전통장 생산(메주 공장 설립) 및 농촌 체험 활동	500 (사업비반납)
	문화·복지	우강면 대포리	2013~2015	전통주 짚가리술의 상업화와 보리차·현미쌀 등 가공	500
2018	문화·복지	면천면 자개1리	2018~2020	(구)남산초 활용 예술학교 및 문화공방 설치	500
	경관·생태	대호지면 장정리	2018~2020	장정천 생태하천, 생태공원 조성 등	488

자료 : 당진시청 건설과 제공

4) 발전단계 사업 현황

- 발전단계의 사업은 권역단위, 마을단위(종합개발)로 분류됨. 권역단위 사업은 인문·사회적 공동 생활권을 가진 인근의 최소 2개 이상의 행정리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경에 일몰사업으로 정리됨. 마을단위는 행정리 1개 마을의 종합개발을 의미함
- 발전단계의 사업은 사전에 1개 마을 이상이 중규모 하드웨어 사업을 완료하고,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을 축적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함

□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 당진시는 총4개소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어 왔음. 권역단위 사업을 통해 각 지역별 특징을 담은 커뮤니티센터, 가공시설 조성 및 마을환경개선, 경관 정비 등을 추진함([표 2-7] 참고)

[표 2-7] 당진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지구명	사업기간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거문들권역 (4개리)	2007~2012	매실가공시설, 매실한과시설, 콩가공체험시설, 건강관리센터, 문화복지센터, 도농교류센터, 체육공원, 지역역량강화	7,200
황토권역 (3개리)	2011~2016	권역센터, 다목적복지회관, 자립형복지회관, 무성방송설비, 웰빙한우촌, 저수지주변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4,340
금초권역 (3개리)	2011~2017	권역센터, 농업농촌체험장, 금초정보센터, 자립형 복지회관, 생활형복지회관, 수변공원조성, 금초경관정비, 지역역량강화	4,700
솔미권역 (3개리)	2015~2019	솔미다목적센터, 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3개소), CCTV, 주민휴게시설, 저온저장고 및 권역공동 작업장 조성, 지붕정비, 지역역량강화	2,720

자료 : 당진시청 건설과 제공

□ (창조적)마을만들기(종합개발)

- 발전단계에서 마을단위 사업은 창조적 마을만들기(종합개발)로 당진시는 2019년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된 마을이 없음
- 2020년 사업으로도 신청한 바가 없으며, 재정분권에 따라 향후 계획은 충남도청의 계획에 따라 검토될 것임

5) 자립단계 사업 현황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읍면소재지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 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을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규모 하드웨어 사업임

- 중심성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거점기능 활성화 중심의 선도지구로, 중심성이 낮은 지역은 기초인프라 중심의 일반지구로 추진함
 - 선도지구 : 80억원 한도(1~2계층의 중심지, 인구 3순위 이내 중심지), 시행기간 5년 이내
 - 일반지구 : 60억원 한도(읍면소재지 농촌중심지), 시행기간 5년 이내
 - 주요사업 : 기본계획, 기초생활기반정비, 공동체 생활거점, 전통시장 활성화, 도·농연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문화, 보건·의료, 정보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등
- 당진시는 2012년부터 총2개 읍이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선정되었고, 2개 면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에 선정되어 마을 공동체 시설 확충, 경관시설 개선, 역량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2019년에 우강면과 정미면, 대호지면 총3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음([표 2-8] 참고)
- 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재정분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예정임

[표 2-8] 당진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현황

선정연도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2012	합덕읍 (읍면소재지)	2012~2015	합덕문화스포츠센터, 어린이공원, 순례길보도정비, 쉼터 및 안내소설치, 지역역량강화 등	10,994
2014	송악읍 (읍면소재지)	2014~2017	송악문화스포츠센터, 다목적광장, 마을안길 정비, 당진톨게이트 상징조형물, 지역역량강화 등	11,007
2016	고대면 (농촌중심지)	2016~2020	다목적복지회관, 산책로정비, 테마쉼터, 테마거리, 간판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5,177
2018	면천면 (농촌중심지)	2018~2022	활력바라지 복지회관, 안전한 주거환경정비, 공동체정원, 연암쉼터, 면천환길조성 등	5,587
2019	우강면 (기초생활거점)	2019~2021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쉼터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3,880
	정미면 (기초생활거점)	2019~2021	공동생활홈 및 문화배움터 조성, 천의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역량강화 등	4,000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	2019~2021	대호하늬바람센터 신축, 책나래창의학습센터 리모델링, 사사만세로 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4,000

자료 : 당진시청 건설과 제공

6) 기타 지역개발사업 현황

□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은 시군에서 성과가 검증되고 농촌 지역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전국적 확대가치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일몰됨
- 당진시는 2013년에 2개 마을이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그 중 우강면 원대포마을만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14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었음([2-9] 참고)

[표 2-9] 당진시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추진 현황

읍면	마을명	사업기간	사업 내용	사업비 (백만원)
우강면	원대포	2013~2014	문화센터조성, 문화동호회 조직화 및 활동강화, 문화센터 기능구현 운영프로그램 개발, 마을풍물패, 짚가리술 빚기, 짚풀공예 등 체험 및 학습	200
신평면	솔오지	2013~2014	공동소득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500 (사업포기)

자료 : 당진시청 건설과 제공

□ 시군역량강화사업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시·군 공무원 및 사업 준비지구의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사업으로, 단계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예비·사후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토록 시행됨. 2018년 기준 1년간 2.5억원 한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2019년부터 3억원+ α 한도로 상향 조정됨
- 당진시는 중간지원조직도 설치되지 않고 행정의 업무분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청액수가 적고([표 2-10] 참고) 집행율도 높지 않은 편임. 2019년의 경우 210백만원중 홍보마케팅사업의 30백만원만 집행중. 2020년 사업으로는 70백만원을 신청하여 20백만원이 결정되어 있음
- 당진시의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표 2-10] 당진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현황

연도	주요 사업 내용		예산(천원)	비고
2014	합계		50,000	
	사업준비지구 사전역량강화	• 전문가 초청 리더교육 실시	13,000	3개 마을
		• 선진지 견학	5,000	3개 마을
		• 마을발전계획수립	15,000	1식
	준공지구 사후관리	• 권역 홈페이지 업데이트 교육	2,000	1개 권역
	기타	• 당진시 세부 중장기계획수립	15,000	1식
2015	합계		20,150	
	준공지구 사후관리	•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5,000	3개 마을
		• 충남마을만들기대회 참석	150	6개 마을
		• 홍보마케팅 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	11,000	
		• 홈페이지 리뉴얼	4,000	
2017	합계		40,000	
	지역 인적자원 육성	• 당진시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수립	20,000	2개 마을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마을만들기 프로그램개발운영	20,000	4개 마을
	마을홍보	• 행복마을 콘테스트지원	10,000	1개 마을
2018	합계		45,000	
	지역 인적자원 육성	• 일반농산어촌개발관련 읍면순회교육	20,000	각 읍면동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마을만들기 리더역량강화교육	15,000	25명
	마을홍보	• 행복마을 콘테스트지원	10,000	1개 마을
2019	합계		210,000	
	지역 인적자원 육성	• 마을, 읍면순회, 찾아가는 사랑방 • 마을대학 운영 • 현장포럼 • 마을 맞춤형 현장컨설팅	110,000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문가 매칭 컨설팅 • 인성학교 운영 • 창안학교 운영	60,000	
	네트워크구축	•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역량강화 • 당진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협의체 운영	10,000	
	홍보마케팅	• 사업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	30,000	권역완료지구

자료 : 당진시청 건설과 제공

3.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마을 단위 지정 현황

1) 색깔있는 마을 지정 현황(농식품부)

- 색깔있는 마을은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마을로서, 주민 주도로 유무형의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창출하고 마을을 정비하여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거주체험, 여가 및 치유 공간으로 발전된 마을을 뜻함
- 당진시는 2011년 12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41개 마을이 지정되었음 ([표 2-11] 참고). 2017년도부터는 색깔있는 마을 지정 제도가 폐지됨

[표 2-11] 당진시 색깔있는 마을 지정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색깔있는 마을	12	14	6	2	4	3	41

자료 : 충남도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자료 참고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사무장 배치 현황(농식품부)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보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과 농림수산물 판매·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임
- 당진시에는 5개 마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운영중([표 2-12] 참고)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됨

[표 2-12] 당진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2019. 08. 기준)

마을 명칭	대표자	조성유형	조성 년도	소재지	사무장 유무	지정사업		
						숙박	체험	음식
영전황토마을	최OO	농촌체험	2005	고대면 황토마을로 141	○	○	○	○
푸레기마을	장OO	농촌체험	2006	석문면 초락1로 147	○	○	○	X
당나루물꽃송마마을	허 ○	농촌체험	2008	고대면 고대로 939	○	○	○	X
왕매실마을	이OO	농촌체험	2013	순성면 매실로 394	○	○	○	○
백석마을	김OO	농촌체험	2014	순성면 매실로 246	○	X	○	X

자료 :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홈페이지 참고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현황

- 2019년 6월 기준으로 5명의 사무장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표 2-12] 참고)
- 타 시군에는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출신을 중간지원조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험 있음. 마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살려 마을 밖의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활약하는 것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

3) 기타 정부 지정 마을 관련 조직 현황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 당진시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6개소의 마을기업이 있으며, 절반 이상이 가공 식품 사업 분야이나 상근 규모는 차이가 있음([표 2-13] 참고)

[표 2-13] 당진시 마을기업 지정 현황

기업 명칭	사업내용	소재지
올리고영농조합법인	단호박식혜	신평면 동산절길 48-8
당나루물꽃송마마을	체험(자전거, 기능성 쌀)	고대면 성출재길 26-3
백석울미영농조합법인	매실한과, 매실엑기스 등	순성면 매실로 246
귀물식품영농조합법인	개복송아 엑기스	시곡동 귀물로길 21
좋은엄마품앗이학교 협동조합	영유아 교육	계성3길 35, 3층(읍내동)
엽록소콩나물	콩나물 재배 및 판매	송악읍 반촌리 177

자료 : 당진시청 건설과 제공

□ 교육농장(농촌진흥청 지정)

- 체험농장 이외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하는 교육농장은 아래 [표 2-14]와 같이 5개소임. 그중 신평양조장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기관 인증도 받음

[표 2-14] 당진시 농촌 교육농장 지정 현황

농장 명칭	소재지	주제	홈페이지
소들강문	우강면 소개길 29	손두부만들기	-
은석도예	신평면 동부길 290	도자기 만들기	https://moonho2004.modoo.at/
뜰과숲농원	고대면 정미로 964	블루베리잼만들기, 블루베리핸드크림, 미니에코백	https://blog.naver.com/ch56yoon
황토배과수원	고대면 당진포리 47-3	황토염색, 짚풀공예 등	https://01064288860.modoo.at/?link=csqi83wq
황금물결맑은 햇쌀	합덕읍 중앙뜸길 40	전통주 짚가리술 만들기	-
신평양조장	신평면 신평로 813	막걸리 빚기, 막걸리 소물리에, 증류주 내리기, 누룩전, 쿠키 만들기 등	http://koreansul.co.kr/
맛존농장	송악읍 고잔로 136-115	김장체험, 아로니아 고추장 담그기, 감자수확, 고구마수확 등	-

자료 :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홈페이지 참고

제2절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과 업무 정비 방향

1. 총괄 · 조정팀 구성 및 운영 방향

1) 당진시 행정조직체계 요약

□ 마을만들기 관련 조직과 업무 현황

-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문화, 복지, 체험, 귀농귀촌 등 연계 영역까지 확장하여 살펴보면 현재 당진시의 관련 행정 조직은 [그림 2-3]과 같음
- 농촌 마을과 직접 관련된 마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건설과 기반조성팀이며, 그 외에도 마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1담당관, 3국, 1센터, 9과, 총 19팀으로 마을사업 담당이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3]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담당 부서와 행정 사업(2019. 08. 기준)

[표 2-15] 당진시 마을만들기 주요 사업 및 업무 담당자 현황(2019. 08. 기준)

사업 명칭			사업담당 부서 명칭		업무 담당자			
구 분	명 칭		과	담 당	이름	발령 일자	직렬	직급
1) 충남도 마을사업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사업		건설과	기반조성팀	박○○	19.01.16.	시설	8급
	희망마을 선행사업							
2)농식품부	체험휴양마을		농업정책과	6차산업팀	송○○	19.01.16.	행정	8급
	녹색농촌체험마을							
3) 농식품부 일반농산어 촌개발	계획 총괄		건설과	기반조성팀	김○○	19.01.16.	시설	6급
	농어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	신규마을			박○○	19.01.16.	시설	8급
		경관환경						
		체험소득						
		문화복지						
		마을 종합						
	시·군역량강화							
농촌중심지활성화 (읍면소재지종합정비)		김○○	17.07.01.	시설	7급			
4)행안부 공동체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소통협력새 마을과	주민자치팀	김○	19.01.16.	행정	8급
5)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기업지원과	사회적 공동체팀	임○○	19.07.01.	행정	8급
	사회적기업							
	공공근로사업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지원팀	윤○○	19.01.16.	행정	8급
6)도시재생	상권활성화사업			지역경제팀	권○○	19.01.16.	행정	8급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김○○	19.01.16.	시설	8급

□ 타 시군의 추진상황

- 충남도에서 중간지원조직 사업을 추진중인 시군에서는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조정 부서의 신설 또는 기능 강화 추세에 있음([그림 2-4] 참고)



[그림 2-4] 충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시·군의 총괄·조정 부서 현황(2019. 08. 기준)

- 전담부서는 TF팀, 단(추진단, 기획단) 등 임시 형태로 조직된 후 시범 운영을 통해 정식 팀이나 과로 발전시키는 추세를 보임(천안시, 논산시)
- 조직 신설이 어려운 경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인력 충원(임기제 공무원 등 민간전문가 영입 등)하여 임시 대응하기도 함(예산군)

- 총괄·조정 부서의 설치 부서는 건설과(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금산군), 경제과(아산시, 천안시), 도시재생과(보령시), 해양산업과(태안군) 등 시군별로 상이함
- 한편, 2018년 민선7기에 들어와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논산시, 서산시, 청양군, 공주시 등 4개 시군은 공동체 정책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의 협조체계를 구축함
- 이상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 상황과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사업간 연계 비중 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여기서 ‘총괄·조정’은 모든 사업을 전담한다는 것이 아닌 다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물론 인력 배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함)
 - 마을만들기 정책 영역의 신규 기획 :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과 역할 배분 관련 포함
 - 조례상에 규정될 정책위원회 및 행정협의회의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회의록 정리 등
 - 행정 내 관련 사업의 정보 축적과 관-관의 소통과 협력 지원, 쟁점 분야에 대한 조정 등

2)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방향

□ 현재 업무 분장 분석 : 건설과 기반조성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기반조성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업무와 각종 농업기반 정비,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음([표 2-16] 참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현장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신활력플러스,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등
-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정책위원회, 행정지원협의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추가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충남도 및 중앙부처의 신규 공모사업에도 도전해야 하는 등 향후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2-16]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 분장 사무(2019. 08. 기준)

직 위	성 명	분 장 사 무	발령일자
시설6급 (팀장)	김00 (4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팀 업무 총괄 ○ 농업기반조성사업 기획 조정 ○ 농업기반조성사업 기성 및 준공검사 ○ 예산편성 및 집행지도 감독 ○ 소송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3농 혁신 업무 추진 ○ 석문지구 간척농지관리 ○ 농산어촌개발사업(전원마을조성) 추진 	2019.1.16.
시설7급	김00 (4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무 및 예산편성관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공사감독 ○ 사근철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 ○ 소송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017. 7. 1.
시설7급	김00 (4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기계화경작로 일반업무 포함) ○ 수해대책 관련 업무 ○ 지방관리 방조제 업무 ○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등록 관리 및 양수장비 관리 ○ 수리계 등록 및 보조사업 관리 ○ 배수개선사업 및 지표수 보강사업 추진 ○ 저수지 조성사업 추진 ○ 발기반 정비사업 추진 ○ 농업기반시설 통계 	2018. 7. 9.
시설8급	박00 (46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농촌 현장 포럼) ○ 시군 지역역량강화 및 동기부여 선행사업 ○ 시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 ○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추진 ○ 개간업무 ○ 경지정리사업(환지업무) ○ 한해대책업무 추진 ○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용배수로 일반 업무 포함) ○ 국·공유재산관리(경지정리 구역내 목적외 사용승인) 	2019.1.16.

자료 :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 제공

□ 타 시·군의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편성 현황

- 충남도 타 시·군의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분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H/W와 S/W사업으로 분리하거나 세부 업무별로 분리하여 3~5명이 담당하고 있음(표 [2-17] 참고)
 - 홍성군 마을공동체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만의 전담부서이고, H/W와 S/W사업으로 구분하여 3명이 담당하고 있고, 중간지원조직과 시군역량강화는 업무 특성상 담당자를 동일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보령시 마을공동체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H/W사업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5명이 담당하고 있고,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중간지원조직 담당자가 맡고 있음

- 청양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H/W와 S/W사업을 세분화하여 별도의 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음. 농촌개발팀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H/W사업 중 대규모사업 및 중규모사업을 담당하고, 공동체기획팀이 소규모사업 및 S/W사업과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총괄을 맡고 있음
- 공주시 마을만들기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전담부서로 H/W와 S/W사업을 구분하여 5명이 담당하고 있고, 사회적공동체팀이 사회적경제와 연계된 S/W사업과 중간지원조직을 담당하고 있음

[표 2-17] 충남 타 시·군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편성 현황(2019. 08. 기준)

시·군	부서	직위	주요 업무	비고
홍성군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3명)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조례에 관한 사항 ◦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관련 협의기구 설치·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추진 ◦완료지구 사후관리 ◦지역발전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평가 대응 	
		주무관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보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추진(충남형정주환경) ◦완료지구 시설물 및 사후관리 ◦지역발전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평가 대응 ◦마을공동체팀 서무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 추진 ◦새뜰마을(면 단위)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일반사업 추진 ◦그 밖에 공동체 및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사항 	
		주무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보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추진 ◦완료지구 시설물 및 사후관리 ◦지역발전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평가 대응 ◦역량강화사업(희망마을선행사업)추진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관리 ◦행복마을콘테스트 업무추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현황관리 및 D/B구축 ◦어르신공동체·아파트공동체사업 추진 ◦그 밖에 공동체 및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사항 	행안부 사업은 타 부서로 이관
보령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5명)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팀 업무 총괄 운영 ◦주요 민원업무 처리 ◦지역공동체업무(행안부소관) 운영 ◦일반농산어촌 포괄적보조사업 운영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운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주무관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농산어촌 포괄적 보조사업 총괄 운영 ◦마을만들기팀 서무, 예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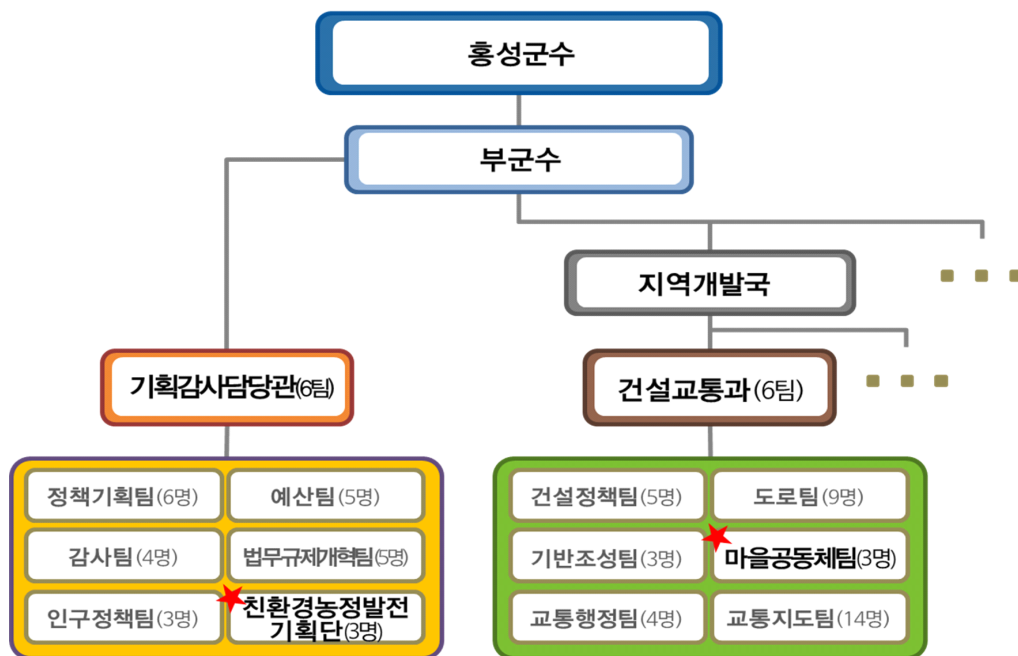
시·군	부서	직위	주요 업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지구(성주면, 청라면), 선도지구(웅천읍) 창조적마을만들기(음현리, 수부2리, 개화3리, 학성3리, 증산1리) 자율개발사업 추진(향천1리, 마강1리) 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위탁 및 점검 관리 	
		주무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 일반지구(천북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추진(오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주산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성주3리, 유곡1리, 성주4리, 월전2리) 자율개발사업 추진(제석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구룡지구 새들마을사업) 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위탁 및 점검 관리 	
		주무관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보령서천 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 일반 농산촌 공모사업 추진 사군 창의사업(마을공동체활성화) 추진 농촌 현장포럼 대상지 선정 및 운영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추진 	
		주무관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희망마을 선행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 추진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총괄(행안부소관)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농촌개발팀 (3명)	팀장	농촌개발팀업무 총괄	
		주무관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주무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포괄보조사업 추진 각종사업 관리 감독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마을만들기팀 (5명)	팀장	마을만들기팀업무 총괄	
		주무관A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주무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신청(자율개발) 	
		주무관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농어촌새깁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 현장활동 및 컨설팅 농어촌인성학교 시군역량강화사업 사곡면 계실리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행복마을콘테스트 	
		주무관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탄천) 마을만들기사업(구계2리, 유평1리) 사곡면 계실리 창의아이디어사업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예산관리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건축분야 업무협의 	

3) 총괄·조정 부서 설치 사례⁵⁾

(1) 홍성군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 행안부 지침 활용, 농업기반정비 분리

□ 추진 경과

- 기존에는 농수산과에 소속되어 있던 농정발전기획단에서 농업정책과 농촌정책 총괄 업무를 수행함. 2017년 6월 건설교통과 내 마을공동체팀이 신설되면서 총괄·조정 부서에 변화가 발생함([그림 2-5], [표 2-18] 참고)
 - 마을공동체팀에서 농업정책과 농촌정책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은 기획 및 컨설팅 관련 업무를 지원
- 2017년 5월 30일에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과에 있던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서 이관됨



[그림 2-5] 홍성군 농촌지역개발 총괄·조정 부서 신설 배치 현황(2019.08. 기준)

□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부서 :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 주요 특징 : (1) 마을공동체팀 신설을 통해 농촌지역개발과 공동체 관련 총괄·조

5) 이하 내용은 2015년부터 수행한 11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정 기능 부여, (2) 농촌과 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 및 사업 진행, 사후관리, 중간지원조직 관리 등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행안부 지침에 의해 공동체기능 담당 인력을 재배치하여 현재 팀장 1명, 팀원 2명 체계로 업무를 추진중임

[표 2-18] 홍성군 마을공동체팀과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업무분장표(2019.0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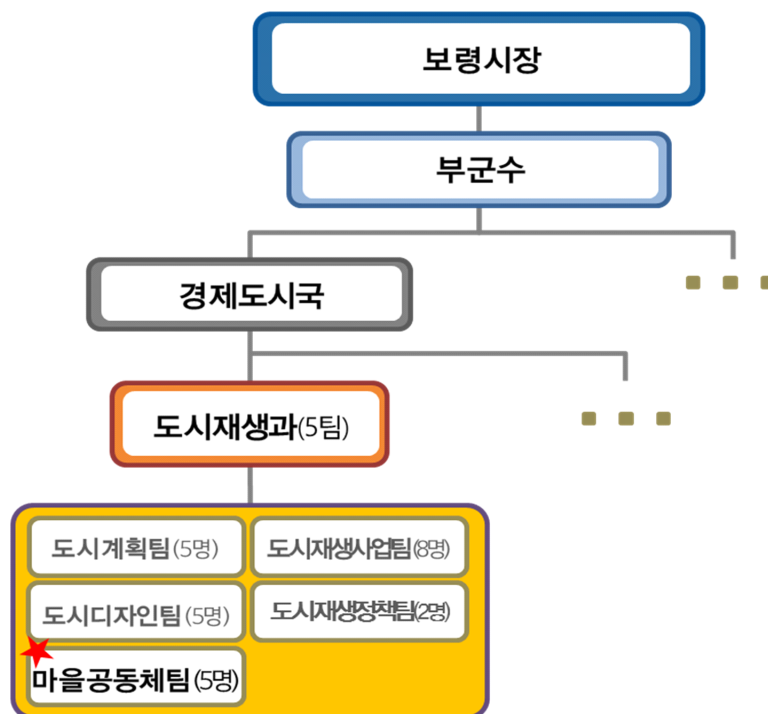
부 서	성명	직위	업무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강OO	팀장	◦마을공동체팀 업무 총괄
	정OO	주무관A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대응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추진 ◦사업 완료지구 관리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 추진 ◦새뜰마을(면 단위)사업 추진
	신OO	주무관B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역량강화사업(희망마을선행사업)추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현황관리 및 D/B구축 ◦어르신공동체·아파트공동체사업 추진 ◦역량강화사업(시군역량강화, 현장포럼, 색깔있는 마을)추진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관리 ◦행복마을콘테스트 업무추진
기획감사담당관 친환경농정 발전기획단	박OO	전문위원A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건의·심의·조정 2.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관한 조사 연구 3.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4.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등에 관한 방안 모색 5. 농업문제 및 불리한 제반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6.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유치 7.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본 호신설 2015.3.2.> 8. 친환경농어업 기술도입, 홍보 및 과제 발굴과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5.3.2.>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5.3.2.> 10.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신설 2015.3.2.>
	권OO	전문위원B	
	장OO	-	

자료 : 홍성군청 홈페이지,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2018.3.15. 일부개정)

(2) 보령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 행안부 지침 활용, 도시재생과 연계

□ 추진 경과

- 보령시는 1차년도 연구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 교육·컨설팅 업무와 중·대형 농촌개발사업 업무가 분리되는 방향으로의 행정 체계 개편을 제안함. 이에 따라 2016년 7월에 건설과 내 ‘마을만들기팀’을 신설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함. 2018년 10월에 건설과에서 도시재생과로 팀을 이관하면서 마을공동체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명이 증원되어 5명의 팀으로 구성됨([그림 2-6], [표 2-19] 참고)
- 마을만들기팀의 초기 구성원에는 기간제 3명(행정직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7년 3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고용승계 후 센터 직원으로 전환됨(기존 기간제 근로자 3명 중 2명 고용승계, 신규 1명 채용)
-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 시 기존 건설과에서 도시재생과로 팀을 이관하고 마을공동체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동체업무를 받아 신규 인력 1명을 충원하여 5명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2-6] 보령시 농촌지역개발 총괄·조정 부서 신설 배치 현황(2019.08. 기준)

□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부서 :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 주요 특징 : (1) 마을만들기 관련 각종 행정 사업 정보의 공유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방안을 총괄하는 마을만들기팀 신설, (2) 행정직영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현재 민간위탁 운영) 적극 활용하여 민간에 대한 총괄 상담창구 역할 강화, (3) 도시와 농촌을 총괄하는 공동체활성화 사업과 중간지원조직 지원 중심으로 재편된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마을공동체팀 역할
 -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 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표 2-19] 보령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의 업무분장표(2019.0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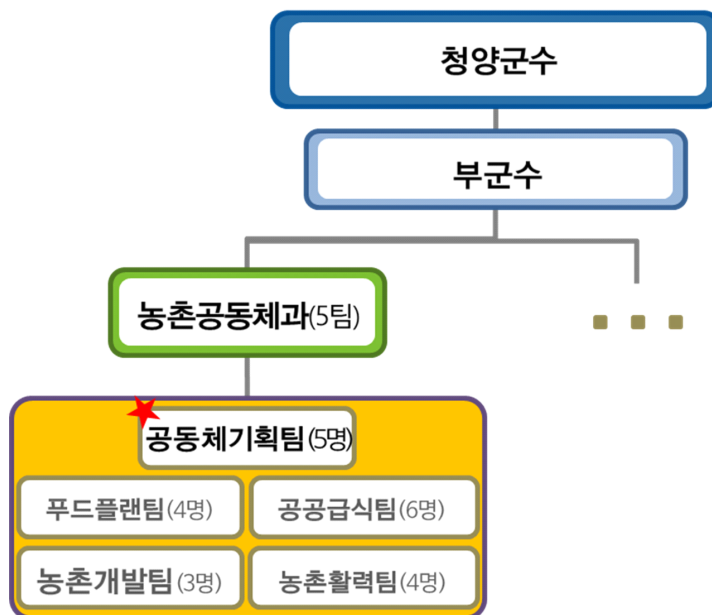
부 서	성명	직위	업무
마을공동체팀	손OO	팀장	◦마을만들기팀 업무 총괄
	심OO	주무관A	◦일반농촌개발사업_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최OO	주무관B	◦일반농산어촌 포괄적 보조사업 총괄 운영 ◦일반농촌개발사업_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김OO	주무관C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 ◦일반농촌개발사업_지역역량강화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CAC) 추진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총괄
	김OO	주무관D	◦농촌 현장포럼 운영 ◦희망마을 선행사업 ◦시군 창의사업(마을공동체활성화)추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자료 : 보령시청 홈페이지

(3)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신설 : 농업·농촌 분야 융복합 전담부서 신설

□ 추진 경과

- 청양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요핵심 전략사업으로 공동체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 공동체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2.15.)
-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1월에 총5개 팀(공동체기획팀, 푸드플랜팀, 공공급식팀, 농촌개발팀, 농촌활력팀)으로 구성된 농촌공동체과를 설치하고 농촌과 공동체 분야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함([그림 2-7], [표 2-20] 참고)



[그림 2-7] 청양군 농촌지역개발 총괄·조정 부서 신설 배치 현황(2019.08. 기준)

□ 총괄·조정 부서 : 농촌공동체과 공동체기획팀

- 주요 특징 : (1) 농촌 공동체,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혁신 및 민관협치 등 공동체정책을 총괄하는 공동체기획팀을 신설하였다는 점, (2) 전통적인 H/W 분야인 농업과 S/W 중심의 농촌 분야로 배치 조정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을 한 점, (3) 푸드플랜과 학교급식, 농촌관광, 6차산업 등도 하나의 과에 배치되어 관련 정책영역 사이에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 등이 가장 큰 특징임. 귀농귀촌, 일자리, 도시재생 등의 업무는 협조체계를 통해 대응하고자 함

- 농촌지역개발의 총괄·조정 업무는 아래 두 개 팀에서 담당함
 - 공동체기획팀(5명) : 마을만들기 총괄 역할과 역량 강화 및 융복합 업무(마을만들기 관련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관리·운영,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 등)
 - 농촌개발팀(3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대규모 하드웨어 사업 업무(마을단위, 중심지 등),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2019년 하반기에는 균형발전 공모사업이 추가됨 - 전통적인 농업인프라 정비는 별도 부서에서 담당(건설도시과 농촌기반팀 담당)

[표 2-20]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팀별 업무 분장표(2019.0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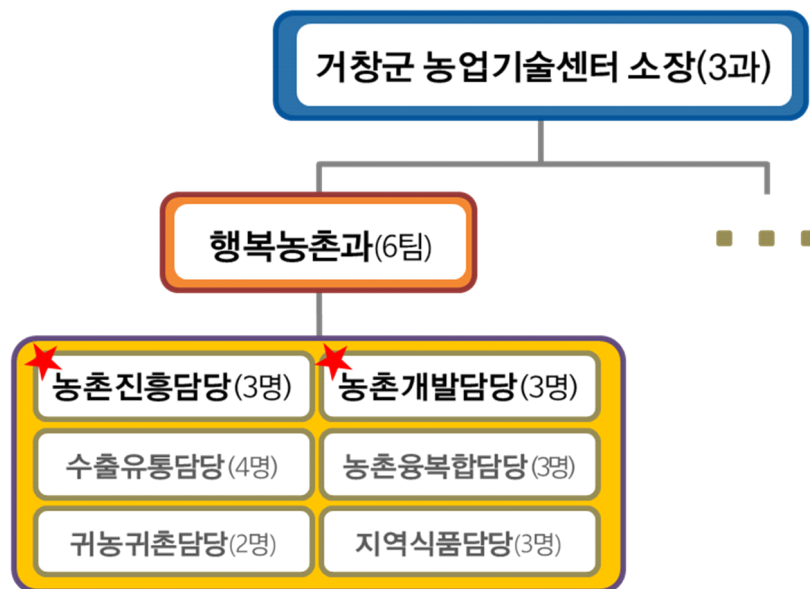
부 서	업 무
공동체기획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설치 ◦농촌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사업, 선행사업, 농촌현장포럼 ◦주민자치위원회 총괄, 주민자치회 위촉 및 업무지원 ◦사회혁신 및 민·관 협치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설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푸드플랜팀 (구 로컬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관리(대치)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판로개척 ◦청양푸드플랜종합타운 설치(공공급식물류센터, 농민가공센터 등)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 ◦칠갑산 농민장터 지원, 청양먹거리 직거래장터 운영 ◦로컬푸드 기획생산 농가조직 운영, 교육
공공급식팀 (분리·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대도시 공공급식처 확보 ◦공공급식 100억 창출 및 지원 ◦학교급식특별회계 운영,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 및 가격결정 운영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운영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지원 ◦식재료 공급·배송 관련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농촌개발팀 (분리·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개발사업 계획수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촌활력팀 (구 부자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차산업, 장류, 향토산업 육성, 가공산업 육성 ◦청양 구기자 간기능 개별인정 기능성 식품연구 ◦부자농촌지원센터 운영 ◦가공품 유통판로 개척사업 ◦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 도농교류 ◦전통식품 육성사업(김장육성사업 포함) ◦B급주업체 및 창업업체 포장재 지원 ◦구기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자료 : 청양군청 홈페이지

(4)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융복합 전담부서 ‘과’ 신설

□ 추진 경과

- 거창군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농촌지역개발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2016. 9.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마을만들기 분야 대통령상 수상)
- 2016년 7월에 기존의 마을만들기과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총6개 팀(농촌진흥담당팀, 농촌개발담당팀, 수출유통담당팀, 농산가공담당팀, 귀농귀촌담당팀, 학교급식지원센터TF팀)으로 구성된 농촌진흥과를 설치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함. 2019년 1월 농촌진흥과가 행복농촌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일부 팀명도 변경됨([그림 2-8], [표 2-21] 참고)
-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은 2019년 7월에 정식으로 설치됨. 수탁법인은 민간의 오랜 논의를 거쳐 2019년 4월 창립총회를 거쳐 (사)행복마을거창을 설립함. 위·수탁 협약은 2019년 10월 1일에 체결함



[그림 2-8] 거창군 농촌지역개발 총괄·조정 부서 신설 배치 현황(2019.08. 기준)

□ 총괄·조정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진흥담당팀, 농촌개발담당팀

- 주요 특징 : (1) 마을만들기의 역량강화 사업과 중간지원조직 업무 등을 총괄하는 농촌진흥담당팀을 신설하였다는 점, (2) 기존의 건설과 농촌개발팀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배치 조정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농촌지역개발의 총괄·조정 업무는 아래 두 개 팀에서 담당함
 - 농촌진흥담당팀(3명) : 마을만들기 총괄 역할과 역량 강화 업무 (마을대학, 현장포럼, 지역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수립 컨설팅 운영, 중간지원조직 관리 등)
 - 농촌개발담당팀(3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대규모 하드웨어 사업 업무(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 및 권역단위 종합개발, 중심지활성화사업 등) - 전통적인 인프라 정비는 제외

[표 2-21]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진흥담당팀, 농촌개발담당팀 업무분장표

부 서	성명	직위	업무
농촌진흥 담당팀	김OO	팀장	◦농촌진흥담당 업무 총괄·조정 ◦맞춤형 마을기업 조성 및 영농지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장OO	주무관A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기획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대학 ◦시군역량강화사업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 ◦마을발전계획 수립 운영 ◦마을닥터 운영
	김OO	주무관B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총괄 및 사후관리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사후관리
농촌개발 담당팀	장OO	팀장	◦농촌개발담당 업무 총괄·조정
	전OO	주무관A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 ◦거창읍 PM용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정OO	주무관B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자료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2019.08. 기준

(5) 사례 종합

□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 경향

- 농촌정책과 마을만들기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 및 재배치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표 2-22] 참고)
- 사업 발굴 및 사업 진행, 사후관리 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한 업무 분담을 통해 마을만들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민관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체계 구축
- 단, 지역별 특성과 행정 현실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각각에는 장단점이 있음

[표 2-22]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부서 운영 사례 비교

사례	홍성군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보령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개편 전 상황	◦농수산물과 친환경 농정 발전기획단(정책개발· 건의, 협치조직 운영)	◦건설과에서 농촌개발팀 분리 마을만들기팀 신설	◦건설도시과 농촌개발팀: 농촌개발, 농업기반, 소 하천 정비, 국공유 재산	◦마을만들기과: 마을정 책, 마케팅, 식품가공, 귀농귀촌, 로컬푸드
개편 후	◦농정발전기획단 : 기획 감사담당관 이관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 팀 신설	◦도시재생과로 업무이관 및 팀명칭 변경 ◦1명 증원 총5명	◦농촌공동체과 내 주무팀 에 중간지원조직 업무 담당,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별도 팀으로 분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진 흥과 신설(6개 팀)
장점	◦농정발전기획단의 총 괄·조정 기능 강화 ◦건설교통과 내에 마을 만들기 전 과정 지원 체계 구축	◦인력보강으로 기획과 시 행을 통합 운영 가능 ◦도시재생과 연계를 통해 도농통합시 특성 반영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 치 가능성 확대	◦기획역량강화와 H/W사 업 시행의 역할 분담으 로 업무 집중 토대 마련 ◦주민자치, 농산업, 먹거 리 등과 연계한 통합 지 원체계 구축	◦농촌진흥과 내에서 농 촌 마을만들기 전과정 지원 체계 구축
단점	◦농수산물과와 협력 약화 -체험휴양마을 업무 일 부 잔류 ◦마을공동체팀 신설 시 도시공동체 업무 담당 인력 충원 지연	◦체험휴양마을, 학교급식, 농산물 유통 등 농업 관 련 영역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복잡 ◦도시 정책에 농촌이 흡 수될 우려 상존	◦여러 '과' 의 융복합 업 무가 결합되기에 과장 역량이 매우 중요 ◦여러 직렬이 결합되기에 업무 연찬 수시 필요	◦농촌마을 중심의 재편 으로 타 영역과의 협 력체계 미흡 ◦농업기술센터 소관으 로 업무 소외감 발생, 집행력 약화 우려
비고	◦사회적경제, 주민의식, 평생학습 등의 영역을 홍성통을 통해 협력관 계 유지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등 지역사회개발 영역과 여 전히 연계가 미흡	◦전통적인 농업정책과 평 생학습, 도시재생 등 분 야와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등 지역사회개발 영역 과 여전히 연계가 미흡

□ 신설 부서의 업무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당진시는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분야의 협력체계 구성에 중점을 두면서도 인력 총원 없이 많은 업무가 한 팀에 집중되어 있어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음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을 통해 업무 분담 및 관련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 필요
- 당진시 실정에 맞는 업무 분장 및 조직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2. 행정 업무 협조체계 구축과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방향⁶⁾

1)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의 기본적인 의미와 운영 방향

□ 필요성과 성격

- 행정 내 다양한 마을 관련 사업의 정보 공유와 사업간 협의를 위해서는 행정 내 관-관 업무협조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함
- 마을 관련 유사 사업의 통합, 연계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음
-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회의체로서 정기적인 의무적 참가를 통해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음

□ 주요 역할 : 상세한 내용은 행정 지침으로 규정함

- 주요 역할 : 각종 행정 사업 정보 공유(특히 교육 사업), 공모사업 방법론 정리,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예산 및 사업계획 협의, 중간지원조직 지원방안, 정책위원회 상정 안건 정리 등
- 정기회의 : 연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이상(초기에는 분기별 1회 이상이 되어야 함)
- 참가대상 : 관련 부서의 팀장급이 참가하고 사업 담당 주무관이 배석

□ 정기회의 운영 방식(기본 모델)

- 회의 결과물 : 회의 자료 및 결과를 모아 자료집으로 제작하고 위원회 정기회의 상정
- 상반기 정기회의 - 매년 1월중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후)
 - ① 신년도 주요 사업계획의 공유와 협조방안 토론
 - ② 마을 및 단체 보조사업의 공모절차와 방식 공유 : 공동 창안대회 등
 - ③ 연중 주요 행사 일정 공유
- 하반기 정기회의 - 매년 9월중 (다음 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전)

6) 이하 내용은 2015년부터 수행한 11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정비 방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고, 당진시의 2020년 당면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습자료 성격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함

- ① 당해 연도 주요 사업 추진상황 공유
- ② 다음 연도 사업 및 예산계획(개략) 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
- ③ 하반기 주요 일정 공유 : 마을 평가 및 행사

□ 행정협의회 참여 부서와 인센티브 제공

- 참여 범위(정책 영역) : 농촌 마을만들기,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 귀농귀촌,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평생교육, 주민자치, 도시재생, 참여예산제 등
- 당진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참석 부서(예시) : 지속가능정책팀, 청년정책팀, 주민자치팀, 평생학습지원팀, 지역경제팀, 사회적공동체팀, 도시재생팀, 3농정책팀, 6차산업팀, 농산물유통팀, 학교급식팀, 도시농업팀 등
- 담당 지정 : 각 부서마다 업무상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인사명령을 통해 ‘협업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분장 명시를 통해 일상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함
- 인센티브 제공 : 협업담당자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짐

2) 향후 과제 및 제언

- 당진시는 중간지원조직 공모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행정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시급함.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2019.07.15.)되어 행정지원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조례에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담당 부서 사이의 협력 의무가 미약하다 할 수 있음
- 일단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향후 과제로 제안하고 추후 개정할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안정화 이후에는 반기별 1회)
- 각종 행정사업 정보의 일상적 공유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 관리 도모
- 정책위원회 개최와 연계하여 행정 내 안건 정리

□ 행정협의회 참가 부서의 다양화

- 참가 부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임(매년 행정 지침 조정 필요)
- 향후 행안부 도시형 마을만들기 사업과 충남도 자치행정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참가도 필요

□ 협업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담당 부서의 성과 관리를 위해 협업 사업에 적극적인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행안부 협업 포인트 및 충남도 민관협치회의 등의 정책 움직임을 참고하여 당진시 방식으로 검토

□ 인사 시스템과의 연계

- 향후 인사이동 과정에서 행정협의회에서 유사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간의 인사이동을 적극 장려
- 이를 통해 행정협의회 내에서 업무 연계성과 지속성을 강화

3) 행정워크숍 개최 결과 : 부시장 주재 부서 협업회의

□ 추진 목적

- 민관협치와 융복합, 상향식 계획 등 중앙정부 정책 흐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당진시의 중장기 대응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특히 중앙정부 정책과 주민으로부터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제도적 형태 등에 대해 공동학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정 담당 공무원과 민간 리더 대상으로 공동학습과 토론의 워크숍 자리를 마련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운영 방향에 대해 당진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경로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 민·관 거버넌스 공감대 확산, 공동체 업무의 통합 방안 상향식 도출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필요성, 활용방안에 대한 학습과 토론
 -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부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방안 마련
- 일시/장소 : 2019년 7월 4일(목) 14:00~15:40, 당진시청 중회의실
- 참석자 : 총15명. 부시장,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공동체 관련 행정 부서 팀장
 -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대외협력팀 : 민관협력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도시형 마을만들기
 - 소통협력새마을과 주민자치팀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평생학습체육과 평생학습지원팀 : 평생학습, 마을교육공동체
 -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지원팀 : 일자리창출
 - 기업지원과 사회적공동체팀 : 사회적경제
 - 건설과 기반조성팀 : 농촌형 마을만들기
 -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팀 : 귀농귀촌
 - 농업정책과 6차산업팀, 농산물유통팀(푸드플랜), 학교급식팀
- 추진 프로그램

[표 2-23] 당진시 행정워크숍 프로그램

시간	내 용	
14:00~ 14:10	■ 인사말씀 ■ 회의취지 및 순서소개	부시장 지속가능발전담당관
14:10~ 14:30	■ 각 부서별 중간지원조직 관련 현황 및 의견	각 부서팀장
14:30~ 15:00	■ 강의 : 당진시 행정협업과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계 -정책동향에 기초한 향후 경로제안- ·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15:00~ 15:30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설치에 대한 토론	
15:30~ 15:40	■ 정리말씀	

□ 추진 내용 및 결과

- 당진시 부시장 주재로 당진형 통합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위한 부서 협업회의의 일환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통합중간지원조직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부서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
- 융복합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속에서 시군에 통합중간지원조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에서는 4월에 통합중간지원조직 구축에 대한 시장님의 검토지시가 있었음
- ‘당진시 행정협업과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계-정책 동향에 기초한 향후 경로 제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충남도의 마을만들기 민관협치형 지원 시스템 구축 전략에 대해 설명함. 또한, 핵심정책의 총괄조정 부서와 업무협조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과 역할 및 설치유형에 대해 학습함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2021년 1월 설치 목표지점으로 정하고 역순으로 추진하며,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통합 영역의 총괄조정 전담과 신설 및 수탁법인 설립을 위한 공동학습회 추진을 제안함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을 공감하고, 토론을 통해 실무 부서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부서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여부 및 통합형의 필요성 유무, 통합의 범위 등에 대해 단계별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그림 2-9] 당진시 행정워크숍 진행 모습(2019.7.4.)

3.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 방향

1) 순환보직제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순환보직제의 문제점

- 마을만들기 업무는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 성격이 강하여 전문성이 필요하고 마을 주민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강하게 요구됨
- 중앙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행정 사업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순환보직제 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업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로만 대응하기에는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움
-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직위공모제, 전문직위 제도, 전문계약직(임기제) 공무원 제도 등이 주로 거론됨

□ 보완장치1 : 직위공모제

- 직위공모제란 “특정 부처 내 주요 직위에 대해 해당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치러 임용하는 제도”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 내부 공무원 위주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제도 도입 필요성에 따라 지방공무원법(2007.4.27.) 제29조의5(공모직위)를 제정함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공모직위)

【지방공무원법(2007.4.27. 시행)】제29조의5(공모직위)

-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보완장치2 : 지방공무원 필수 보직기간 2년 규정 도입

- 2018.3.20.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27조)에서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전보 제한기간의 용어 개정)을 2년으로 더욱 강화함. 이러한 규정도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음
- (기본원칙) 1년 → 1년 6개월 → 2년
- (사회복지) 1년 6개월 → 2년 / (재난안전) 1년 → 2년

□ 보완장치3 :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

- 전문직위 제도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제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분야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함. 현재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에서는 태안군(1명)과 홍성군(2명)이 전문관으로 지정됨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의9·나】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3호, 2018.5.10.)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제25조의3(전문직위의 지정·운영)

-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중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대상 직위 및 직급 : 전문관
 - 분야 :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지위
 - 대상 : 경력직 공무원의 직위(복수직위 포함)
 - 직급 : 시·道 3~7급, 시·군·구 5~8급(상당 직급 포함)
- 인센티브 : 경력 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수당 지급, 능력개발 지원 등
 -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3년간 전보가 제한됨(필수 보직 기간)

- 전문직위군(群) 지정 및 관리 : 유사 전문직위의 그룹 관리 제도
 - 요건 :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에 대한 군(群) 지정 가능
 - 절차 : 인사위원회 심의 후 임용권자가 지정
 - 필수보직기간 : 5년(전문관 미선발기간도 포함)

□ 보완장치4 : 임기제 공무원 제도

- 임기제 공무원이란 “한시적 사업, 외부 우수인재 총원 등을 위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의미함. 정년은 적용되지 않지만 임기 동안 신분을 보장함
- 이전의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바뀐 것으로 시행근거는 지방공무원법(2019.4.17. 시행) 제25조의 5에 규정되어 있음

【지방공무원법(‘19.4.17 시행)】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19.11.5. 시행)】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 가. 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
 - 나.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할 업무
 -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
 -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

- 임기제 공무원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이 중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 외로 취급되며, 또 5년간 비교적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표 2-24] 참고)

- 주당 근무시간과 직급에 따라 보수(연봉제)는 다르지만 전문지식이나 기술, 임용관리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용되는 전문가에게 일정한 경제적 대우를 하게 됨
 - 전보는 처음부터 임기제로 채용된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 직위로 전보가 불가함
- 2017년 1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확대를 통한 행정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임기제'를 추가로 도입함
 - 지방공무원 전문임기제는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발함
 -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21조 3항)
 - 다만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정책결정 보좌 등을 위해 임용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임용 당시 지자체장의 퇴직 시 함께 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함

[표 2-24] 계약직(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유형과 특징

구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전문임기제
정원	정원 대체	정원 외	정원 외	정원 외
기준인건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직급	일반직과 동일	가~마급	5~9호	일반직과 동일
신규 임용	경력경쟁임용 (일반직과 동일)	경력경쟁임용 (별도로 규정)	경력경쟁임용 (별도로 규정)	경력경쟁임용 (별도로 규정)
근무시간	상근	주 15~35시간	주 15~35시간	상근
근무기간	총5년 (신규 임용자 5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총 1년 6개월(필요시 1년 6개월 연장 가능)	1년 단위(단체장 임기만료일 이전 연장)

□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3. 발표) :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방인사시스템 혁신을 중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음
- 직무특성에 따라 직위 유형 구분 및 보직 관리 차별화

- 직무특성에 따라 장기근무형(전문가형)과 순환근무형(관리자형)으로 보직관리 이원화, 전문직위 인센티브 부여(평정시 가산점) 등

【자치분권 시행계획】 130쪽

- 장기근무형
 - (유형①) 장기근무가 필요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높음
 - (유형②) 장기근무가 필요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낮음
- 순환근무형
 - (유형③) 장기근무 필요성이 낮으며, 민·관 간 인사교류가 필요
 - (유형④) 장기근무 필요성이 낮으며,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낮음

· 필수보직기간 확대 및 전문직위 가산점 의무적 부과

· 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 신규자 기본교육 대상에 시간선택제, 개방형 직위 등 포함
- 승진 단계별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의 목표와 역할을 연계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관리자로 성장 지원
- 밀레니얼 세대* 증가를 감안한 팀장급 이상 리더십 교육 강화
 - *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는 명확한 미션을 중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며,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를 통해 교육훈련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추진일정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등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20년)
-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관련 규정 개정(~'20년)

2) 마을만들기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동향

□ 충남도 타 시군의 채용 현황

- 충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중인 14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이미 임기제 공무원을 1~3명씩 채용하여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임([표 2-25] 참고). 직급은 나~다급으로 다양하고, 계속 확산중에 있음.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행정직영으로 대부분 설치되고 있으며, 상근자 신분은 임기제 공무원 혹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표 2-25] 충남 타 시·군 마을만들기 관련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2019. 08. 기준)

시·군	부서	직위	직급	계약기간	주 업무	비고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마을만들기팀 사회적경제팀	주무관	임기제 다급	2015. 06. 01.~ 2020. 05. 31. (3년 연장)	아산CB센터 마을만들기팀 총괄	공동체지원센터
		주무관	임기제 다급	2017. 09. 11.~ 2019. 09. 10. (신규 채용)	아산CB센터 사회적경제팀 총괄	
홍성군	친환경농정 발전기획단	전문 위원	임기제 나급	2017. 12. 20.~ 2019. 12. 19. (신규 채용)	농업 정책개발	
		전문 위원	임기제 다급	2018. 05. 14.~ 2020. 05. 13. (신규 채용)	농촌 정책개발 및 지원	
	허가건축과	주무관	임기제 다급	2013. 11. 05.~ 2018. 11. 04. (1년 연장)	일반농산어촌개발 (경관생태)	홍성통 업무 담당
예산군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	주무관	임기제 다급	2015. 11. 02.~ 2019. 11. 01. (2년 연장)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공동체기획팀	주무관	임기제 다급	2019. 05. 31.~ 2021. 5. 30.	청양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추진	청양군마을만들 기지원센터
공주시	창조도시과 도시재창조팀	주무관	임기제 다급	2018. 04. 09.~ 2020. 04. 08.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	도시재생 지원센터
		주무관	임기제 라급	2018. 04. 09.~ 2020. 04. 08.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	주무관	임기제 다급	2019. 07. 08.~ 2020. 12. 31.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	공동체종합지원 센터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	주무관	임기제 라급	2019. 07. 08.~ 2020. 12. 31.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	

- 행정직영으로 운영중인 마을만들기(공동체) 지원센터는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음. 서천군 3명, 태안군 3명, 금산군 3명, 서산시 2명 등. 논산시는 공무원 3명이 근무하며 민간위탁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음.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는 기안과 결재의 권한이 없어 담당 주무관의 업무량이 훨씬 늘어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행정직영의 지원센터는 센터장 혹은 사무국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임.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는

임기제 공무원 팀장 2명(마을만들기 1, 사회적경제 1명)과 공무원 근로자 2명으로 대응하고 있음. 또한,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임기제 공무원 센터장 1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임기제 공무원 팀장 2명(마을만들기 1, 사회적경제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음

□ 당진시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 당진시의 임기제 공무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47명이 채용되어 근무중이며([표 2-26] 참고), 일반임기제 19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28명임
 - 일반임기제의 직급은 5급 사무관이 1명이고 나머지는 6~9급까지 다양하며, 지속가능발전과 법률, 노무사, 소셜미디어, 평생교육, 에너지, 도시계획, 학교급식 등 전문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 반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대부분 마급(9급 상당)으로 단순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2019년 10월 현재, 마을만들기 분야에서는 아직 채용되지 않은 상황임
- 행정직영으로 운영 예정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는 임기제 공무원 1인을 채용하여 당면과제를 우선 추진할 예정임
 - 향후 임기제 혹은 기간제 근로자 2~3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하여 지원센터의 상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다만, 당진시 내부에서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 추가 채용 관련하여 향후 행정 내부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표 2-26] 당진시의 지방임기제 공무원 현황(2019. 10. 기준)

	구분	소속	계급	계약기간	담당업무
1	일반임기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5급	2019.3.14.~2021.3.13.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업무 총괄
2	일반임기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6급	2019.2.22.~2020.2.21.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업무 총괄
3	일반임기제	감사법무담당관	6급	2018.9.10.~2020.9.9.	소송 등 법률지원
4	일반임기제	자치행정과	7급	2019.5.8.~2020.5.7.	노무사(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리)
5	일반임기제	소통협력새마을과	6급	2019.3.14.~2021.3.13.	소셜미디어팀 업무 총괄
6	일반임기제	소통협력새마을과	7급	2019.10.12.~2020.10.11.	온라인 콘텐츠 기획, 소셜미디어 운영
7	일반임기제	소통협력새마을과	7급	2019.10.1.~2020.9.30.	시장영상 기록, 시장뉴스 제작 등
8	일반임기제	평생학습체육과	7급	2019.4.11.~2020.4.10.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평생학습
9	일반임기제	평생학습체육과	8급	2019.3.13.~2020.3.12.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을교육공동체
10	일반임기제	경제에너지과	7급	2018.7.9.~2020.7.8.	에너지 주요 시책 및 정책 연구개발
11	일반임기제	경제에너지과	7급	2018.11.12.~2020.11.11.	노동상담소 운영 등
12	일반임기제	문화관광과	6급	2019.2.1.~2020.1.31.	문화자팀 업무 총괄
13	일반임기제	환경정책과	7급	2018.7.9.~2020.7.8.	대기환경개선편안 정책개발, 미세먼지
14	일반임기제	환경정책과	7급	2018.7.9.~2020.7.8.	수질관리 계획 수립, 오염원 조사 등
15	일반임기제	산림녹지과	7급	2019.1.1.~2019.12.31.	삼선산 수목원 관리
16	일반임기제	도시재생과	7급	2019.4.1.~2020.3.31.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7	일반임기제	농업정책과	7급	2018.3.21.~2020.3.20.	학교급식
18	일반임기제	시설관리사업소	9급	2019.10.12.~2020.10.11.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
19	일반임기제	통합체전준비단	6급	2019.1.1~2019.12.31.	도민체전 계획 수립 등 준비
20	시간선택제임기제	소통협력새마을과	다	2019.10.12.~2020.10.11.	소셜미디어, 미디어당진, 당진사랑
21	시간선택제임기제	세무과	마	2019.1.1.~2019.12.31.	결손처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22	시간선택제임기제	건축과	다	2019.5.27.~2021.5.26.	주택관리사(입주자대표회, 관리규약)
23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9.5.7.~2021.5.6.	치매환자조호물품 지원, 송영서비스
24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8.3.21.~2020.3.20.	치매진단검진, 협약병원관리
25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8.3.21.~2020.3.20.	치매가족모임 지원, 가족힐링프로그램
26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9.5.7.~2021.5.6.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실종예방사업
27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9.5.7.~2021.5.6.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치매선도학교
28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9.5.7.~2021.5.6.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인식개선
29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9.5.7.~2021.5.6.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30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8.3.21.~2020.3.20.	치매홍보 캠페인, 치매가족지원
31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9.5.7.~2021.5.6.	인지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협약체
32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8.3.21.~2020.3.20.	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극복의 날
33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9.5.7.~2021.5.6.	주간보호소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34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8.3.21.~2020.3.20.	치매예방사업 전담, 치매안심마을 조성
35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9.5.7.~2021.5.6.	치매예방 홍보물품, 인지재활프로그램
36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9.5.7.~2021.5.6.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보장기구
37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마	2019.5.7.~2021.5.6.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사례관리
38	시간선택제임기제	농업정책과	마	2019.8.29.~2019.8.28.	학교급식 검수 피킹
39	시간선택제임기제	농업정책과	마	2019.8.29.~2019.8.28.	학교급식 검수 피킹
40	시간선택제임기제	농업정책과	마	2019.5.27.~2021.5.26.	학교급식 수발주(단기등록, 건적등록 등)
41	시간선택제임기제	농업정책과	마	2019.8.29.~2019.8.28.	학교급식 검수 피킹
42	시간선택제임기제	농업정책과	마	2019.5.27.~2021.5.26.	학교급식 수발주(단기등록, 건적등록 등)
43	시간선택제임기제	농업정책과	다	2019.5.27.~2021.5.26.	농산물유통센터, 3농혁신특화사업 추진
44	시간선택제임기제	농업정책과	마	2019.8.29.~2019.8.28.	학교급식 검수 피킹
45	시간선택제임기제	농업정책과	마	2019.8.29.~2019.8.28.	학교급식 검수 피킹
46	시간선택제임기제	농업정책과	마	2019.5.27.~2021.5.26.	학교급식 수발주(단기등록, 건적등록 등)
47	시간선택제임기제	농업정책과	마	2019.8.29.~2021.8.28.	학교급식 검수 피킹

자료 : 당진시청 제공

3) 향후 과제

□ 마을공동체팀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전문직위 제도 도입

- 마을공동체팀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지역개발정책의 빠른 흐름에 대응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 전문가는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컨설팅기관 경력자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이 바람직함
-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최소한 3년 이상 안정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총괄·조정팀은 관련 정보(사업, 사람, 예산 등)의 축적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이기에 장기 근무가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전문관 지정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중심지활성화, 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분야도 민간 전문가 채용 장려

- 향후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도 대응하고 대규모 국도비 공모사업의 선정과 성공적 수행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중심지활성화사업, 공동체, 주민자치 등의 분야에서도 민간 전문가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의 총괄·조정팀 강화와 연계하여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면서 향후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대응해 가야 할 것임
- 행정지원협의회에 참여하는 담당부서를 공동체분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유사한 업무에서 이동을 통한 행정 전문성 강화 및 행정 효율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절 평가와 대안 모색 : 행정 지원체계 정비 방향

1. 총괄 평가와 향후 과제

□ 종합평가

-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체계는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민간 전문가 채용은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음. 타 선진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면서 당진시 실정에 맞는 해결방향을 적극 검토해나가야 함
- 무엇보다 공동체 활성화 중심으로 총괄·조정 ‘과’ 신설과 업무협조체계 강화, 행정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함
- ‘과’ 신설과 병행하여 공동체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조기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이미 충남도에서는 청양군, 서산시, 공주시, 논산시에서 민선7기에 공동체정책을 중심으로 전담 ‘과’를 신설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도 이미 12개 시군에 설치 운영중임(2019년 8월 기준)

□ 당진시 행정 지원체계의 지속적인 정비 방향

- 행정의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관점에서 민간의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함. 농촌 마을의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고 마을리더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함
 - 당진시의 1차년도 연구과제에서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방향을 제안하는 한계가 있음
- 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 동향에도 적극 대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특히 행안부 및 자치분권위원회의 재정분권,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재편과 지방사무이양,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전환 등의 정책 동향이 향후 매우 중요한 정책 흐름이 될 것임

□ 당진시의 당면과제

- 농촌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계속 신규 사업이 제시되며 재정

분권으로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농촌마을정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책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 마을만들기 전담 팀의 신설과 전문인력 충원, 중간지원조직 조기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을 당면 목표로 하여 행정지원체계의 정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제안함

(1) 농촌 마을만들기 전담 팀의 신설과 총괄·조정 역할 강화

-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중 H/W와 S/W 사업 담당자를 구분하되, 농식품부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중심으로 전담 팀을 신설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담부서 신설과 총괄·조정의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행정 사업의 강력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 농촌관광과 귀농귀촌, 6차산업 등의 농촌정책 외에도 주민자치,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공동체 분야의 행정지원협의회를 정기운영하면서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함
- 조례 13조에 명시된 행정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업무협조체계가 강력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13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각종 행정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마을 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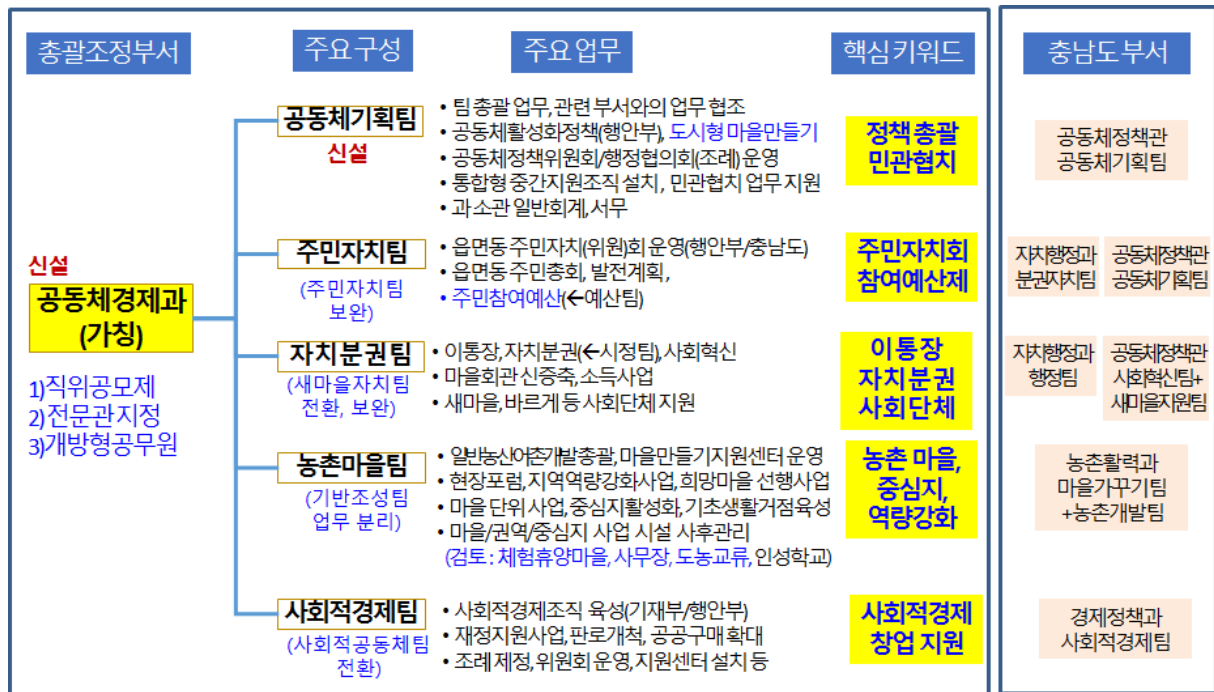
(3) 민간 전문가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전문직위 제도 적극 도입

-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전담할 민간전문가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부족한 행정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끔 융복합 및 거버넌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함
- 임기제 공무원이 행정직영 지원센터의 센터장 혹은 사무국장을 담당하여 행정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향후 민간위탁의 실무 과정을 준비하여 중간지원조직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 전문직위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직위공모제도 검토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당진시의 공동체 관련 총괄 ‘과’ 신설 방향

- 향후 농촌 마을만들기 전담 팀을 신설하고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해야 함.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기본) 건설과 기반조성팀의 업무를 사업 성격에 따라 분리
 - 마을공동체팀(신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현장 포럼, 지역역량강화사업, 희망마을 선행사업, 마을 단위 사업, 중심지활성화 및 기초 생활거점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신규 공모중), 마을/권역/중심지 사업의 시설 사후관리(업무 이관 검토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도농교류, 인성학교)
 - 기반정비 업무(이관) : 농어촌 테마공원, 농업기반정비, 소규모 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받기반 정비, 수리계 수리시설, 용배수로 정비, 재해대책 업무 등
- (1안) 공동체를 키워드로 통합하는 방향(행안부 공동체 전담부서 권장 업무 중심)
 - 소통협력새마을과 주민자치팀의 주민자치(위원)회 업무
 - 소통협력새마을과 새마을자치팀과 자치행정과 시정팀의 자치분권 및 이통장 업무
 - 기업지원과 사회적공동체팀의 사회적경제 업무
- (2안) 농촌정책을 키워드로 통합하는 방향(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업무 중심)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6차산업팀의 6차산업, 체험휴양마을 및 도농교류 업무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학교급식팀의 학교급식, 푸드플랜 업무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팀의 귀농귀촌 업무
- 현재의 정책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1안을 중심으로 ‘공동체경제과’(가칭) 신설을 제안함([그림 2-10]참고)
 - 1) 민간의 주도와 상향식 추진을 강조하는 정책, 2) 행정과 주민의 거버넌스가 특히 요구되는 정책, 3)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융복합 성격이 강한 정책 사업, 4)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가 적극 요구되거나 논의되는 정책 등
 - ‘공동체경제’는 다양한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정책의 융복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용어에 해당함. 혹은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업무와의 융복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공동체자치’도 검토해볼 수 있음. ‘새마을’ 명칭은 시대적 추세에 따라 적어도 ‘과’ 명칭에서는 삭제할 것을 권장함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의 업무도 이관하여 도시형 마을만들기와 농촌형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의 업무가 주민자치라는 ‘우산’ 아래 모여서 융복합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이 경우에 전제 조건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취지에 맞추어 도시형 마을만들기를 담당해야 함



[그림 2-10] 당진시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부서 신설 제안 : 공동체경제과(가칭)

□ 당진시 ‘공동체경제과’ (가칭) 신설 제안

- ‘공동체경제과’(가칭) 신설의 전제조건 혹은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함
 - 과장 임명 방식 개선 : 복잡한 융복합, 민관협치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기에 전문성과 적극성이 특히 요구됨. 이에 따라 직위공모제 선발이나 전문관 지정, 개방형/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함. 같은 이유로 주무팀장도 같은 방식으로 임명할 것을 적극 권장함
 - 주무팀으로 ‘공동체기획팀’ 신설 : 공동체경제 정책 영역의 총괄조정과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민관협치 업무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도시형 마을만들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신설. 인력은 서무 업무를 포함하여 4명이 적절함. (공동체기획팀 신설이 어려울 시에는 차선책으로 아래의 주민자치팀을 주무팀으로 인력을 보강하여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임)

- 주민자치팀에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포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해 각종 공동체경제 정책의 융복합을 현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민간조직에 해당함.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및 농촌마을, 사회단체 등의 여러 예산 요구를 상향식으로 대응 가능함. 인력은 현재 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4명이 적절함
- 새마을자치팀은 자치분권팀으로 확대 전환 : 기존의 좁은 역할에 국한된 새마을자치팀 업무를 자치분권 전반으로 확장하여 이통장, 마을회관, 사회단체 지원 외에 자치분권과 사회혁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공동체와 주민자치, 균형발전 등의 업무가 더욱 강조될 예정임. 인력은 3명이 적절함
- 농촌마을팀 업무 이관 : 건설과 기반조성팀의 업무 중에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이관하여 신설. 타 시군 사례에 비추어 3명 이상 근무 필요. 업무 연관성이 높고,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팀의 소관 업무인 농업정책과 6차산업팀의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도농교류, 인성학교 업무를 이관할 경우에는 1인 추가. 부족한 인원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정착을 통해 보완 가능. 마을가꾸기팀이란 용어는 충남도 농촌활력과의 업무 담당부서 명칭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용어에 해당하고, 또 ‘농촌’ 마을공동체에 국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농촌마을팀이 용어로서 적절함
- 사회적경제팀 이관 : 기업지원과의 사회적공동체팀은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관하고, 업무 내용에 조례 제정과 위원회 설치,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신규 업무로 담당함. 인력은 타 시군 사례로 볼 때 현재의 3명이 적절함
-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3조에 명시된 행정지원협의회는 공동체경제과(가칭) 이외에 다음과 같은 팀(업무)이 참가해야 함
 - 지역정책 영역 : 도시재생팀, 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일자리지원팀, 지속가능협력팀, 청년정책팀 등
 - 농촌정책 영역 : 6차산업팀, 학교급식팀(푸드플랜), 도시농업팀(귀농귀촌) 등

2. 행정 시범사업(제안) : 역량 단계별 행정 사업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타 지자체 사례에서 확인되었고, 충남도와 농식품부 정책으로도 도입되어 있음
- 2020년 재정분권으로 마을만들기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었는데, 이런 상황이기에 마을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가 더욱 중요해짐
- 당진시에서도 다양한 마을 사업을 조사하고 사업 간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 수요자인 주민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 타 지역 사례 및 정책 동향

□ 전북 진안군

- 전북 진안군은 2007년에 마을만들기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금도 시행중임([그림 2-11] 참고)
- 진안군 방식은 완주군, 합천군, 거창군, 전주시, 충남도, 서울시, 농식품부 등으로 파급되어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모델로서 소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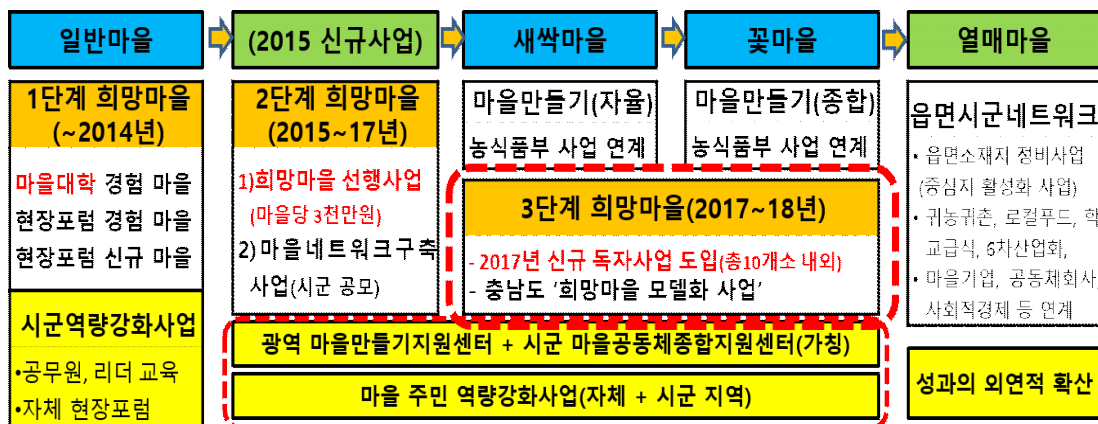


[그림 2-11] 진안군의 역량단계별 지원 마을사업 개념도

- 현재 진안군의 지원체계는 농식품부의 4단계 구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1~3단계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중임. 1단계 그린빌리지 사업은 최초 도입된 2008년에는 마을당 재료비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조금씩 상승하여 2018년 현재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음

□ 충남도의 희망마을 만들기

- 충남도는 2011년에 희망마을 만들기 정책을 시작하면서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를 진안군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함. 2015년부터 민선 6기에는 2단계 희망마을 사업을 통해 ‘실행을 통한 훈련’을 강조하는 선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음([그림 2-12] 참고)
- 하지만 행정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의무성이 약한 상태임



[그림 2-12] 충남도 역량단계별 마을 사업 지원체계(기본개념)

- 2015년 “마을 사업 한 번에 파악하기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각종 행정사업 목록 요약정리와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 예시를 제공함(2018년 개정판 발간. [그림 2-13] 참고)
 - 자료집에는 생활환경, 경관, 도농교류, 체험·소득, 사회적경제, 문화복지, 주민자치 등의 분야에 걸쳐 39개 단위사업을 수록함
 - 자료집 제작의 취지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양하고 사업도 많아 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계 공무원들도 전체 사업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 (중간 생략) ... 마을 사업의 간단한 개요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소개함
 - 시군 단위로 정책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설치 및 운영되면 행정 사업의 융복합(협업)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역량 단계별	선택 가능한 사업유형
(1단계 : 일반 마을) 마을 공동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려는 마을 ↓	·농식품부 현장포럼(색깔마을) ·각종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 ·문화, 복지, 경관, 안전 등 소액 프로그램 사업 ※ 시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주민교육
(1.5단계 : 선행사업) 주민교육을 완료하고 소규모 실행사업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을 ↓	·희망마을 선행사업 ·모범경로당 등 중규모 프로그램 사업 ·빈집 정비, 도랑살리기 등 소규모 H/W 사업 ※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소액공모사업
(2단계 : 새싹마을) 선행사업의 경험을 축적하여 중규모 하드웨어(H/W) 기반 구축이 필요한 마을 ↓	·농식품부 마을만들기(자율개발) ·농식품부 외 타 부처 중규모 사업 ·예비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경제공동체 사업
(3단계 : 꽃마을) 중규모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대규모 하드웨어(H/W) 기반 구축이 필요한 마을 ↓	·농식품부 마을만들기(종합개발) ·농식품부 마을만들기(신규마을) ·산림청 마을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사회적기업 등 중규모 경제공동체 사업 ·마을단위 특화개발(해수)부
(4단계 : 열매마을) 마을의 안정된 발전과 유지 관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한 마을 ↓	·인성학교 지정 등 사후관리 S/W 프로그램 사업 ·체험휴양마을 인증, 마을사무장 배치 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현장포럼(사후관리) ※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보건소 등 프로그램 사업
(5단계 : 네트워크) 읍면소재지를 기반으로 인근 마을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하드웨어(H/W)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합의한 읍면 혹은 시군	·농촌다움 복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면소재지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선도, 일반, 통합지구)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 농식품부, 국토부, 행안부 등의 각종 공모사업

[그림 2-13] 충남도 역량단계별 마을 사업 구분(2018년 12월 개정판 내용)

- 향후 충남도 광역 차원에서는 역량단계별 지원체계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함
 - 2016년 8월에 설치된 광역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 중앙 및 광역 단위 마을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포함되는 행정사업의 범위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 또 충남도 희망마을 선행사업의 재편 필요성에 따라 시·군 주도로 전면 개편할 것을 광역센터에서 제안중임([표 2-27], [그림 2-14] 참고). 2021년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당진시도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소액 선행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총액 21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지속 유지 : 농촌 희망마을 제3기의 핵심 예산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 광역의 정책적 유도와 상향식 원칙의 조화 모색
-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담 : 기초 시·군에서 1단계 시범사업 추진 후에 신청 유도
- 다양한 신청주체 대상의 강력한 교육을 병행 : 사업설명회, 창안학교, 공개발표 등

[표 2-27] 신규 희망마을 3.0 융복합 사업(안)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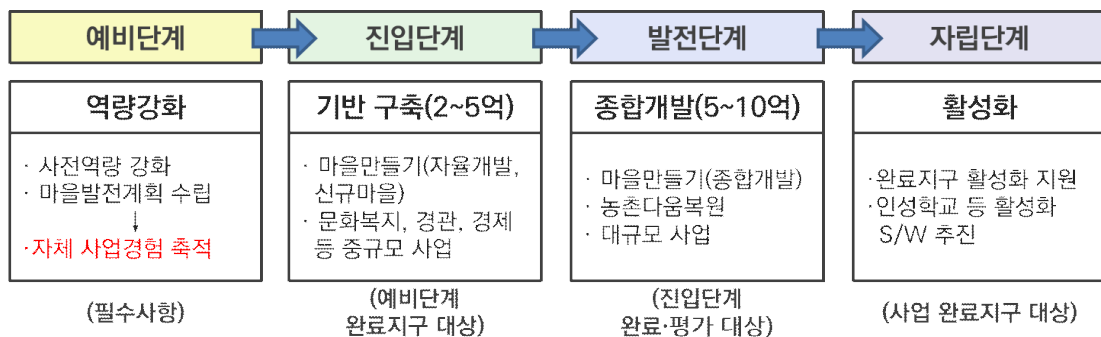
구분	지정공모	자유공모	비고
목적	· 시·군에서 발굴, 육성된 마을에 대해 중규모 사업 기회 제공 ·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신규 사업 영역의 안정된 시행 기회 제공	·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융복합 프로그램 사업 기회 제공 · 읍면소재지에서 배후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읍면 혁신사업 지원	
예산	· 총액 10억원(도비50%, 시군비50%) - 평균 100백만원*10개소	· 총액 10억원(도비50%, 시군비50%) - 평균 50백만원*20개소	별도 1억원은 운영예산 편성
사업 유형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융복합 사업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사업	· 마을 경제공동체, 문화복지동아리 육성 프로그램 사업 · 읍면 단위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프로그램 사업	창안학교 등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지원
신청 자격	· 마을(생활공동체) : '주민 다수'	· 경제공동체, 문화복지동아리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	신청주체 다양화
사업 예시	· 마을공동소득 향상, 경관환경 정비, 문화복지 활동 등	· 마을의 공동체영농, 교육문화복지, 에너지, 정주환경 등 융복합 활동을 추진할 조직 육성 및 시범사업	사업지침 최소화
비고	· 우수사례는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등 타 사업으로 연계 지원	· 우수사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타 사업으로 연계 지원	

사업기획 및 홍보, 설명회	창안학교 및 선정심사	추경예산 편성	사업 시행	경연대회 및 정산	사후관리
(전년도 12 ~1월중)	(2~3월중)	(4~5월중)	(5~10월중)	(11월중)	(12월 ~ 익년도)
▶ 포스터 홍보 - SNS 홍보 - 전년도12월~ ▶ 설명회 개최 - 상담 포함	▶ 공통교육(2회) - 숙박교육 1회 ▶ 사업계획 작성 ▶ 공개발표·심사 - 상호심사 ▶ 사업계획 보완	▶ 보도자료 ▶ 시·군 편성 - 행정 협조 ▶ 공통교육 - 보조사업 - 세부계획	▶ 사업 추진 - 역량강화 병행 - 농번기 시행 유의 ▶ 컨설팅 밀착 결합 - 기초 센터 역할	▶ 결과공유 ▶ 사례발표 - 전시·공연 - 시제품 등 ▶ 우수사례 선정·시상	▶ 자료집 제작 ▶ 타 사업 연계 지원

[그림 2-14] 충남도 희망마을 3.0 융복합 사업(안)의 추진 일정 : 2021년 기준

□ 농식품부, 지역주민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정비

- 농식품부는 진안군과 충남도의 정책적 영향을 받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재편 동향과 연계하여 2014년 1~2월, 농식품부 T/F팀 연속회의를 개최하여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를 확정함([그림 2-15] 참고)
- 시범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의무화되었으며 2019년 시군역량강화사업에서는 작은 선행사업(시군당 10개 마을 이내, 마을당 5백만원 이내) 수행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 이와 같은 체계로 재편된 것은 마을만들기 방법론으로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의 유효성이 확인된 셈임
-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로드맵에 따라 2020년도부터 농식품부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 이에 따라 농식품부 권한으로 마을 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됨.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제도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되고,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도 존속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중에 있음



[그림 2-15]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2015~2019)

2) 당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 기본방향

- 다양한 마을 사업의 역량단계별 배치를 통해 ‘칸막이 행정’의 문제점 극복
- 관련 사업의 연계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사업성과 조기 도출 모색
- 농식품부, 충남도 등 관련 정책 동향에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정비
- 행정지원협의회의 201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상반기 중에 합의 도출 모색

□ 기본 체계

- 행정 총괄·조정팀 : 핵심사업(교육, 시범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무국 역할 담당
- 소액 프로그램 사업 중시 : 금액 기준으로 작은 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 기회 제공(액션러닝). 마을에게는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재수, 삼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또 연중 신청 시기를 2~3회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 분야 : 마을공동체 사업과 경제·취미공동체 사업을 양대 축으로 하고, 관련 사업들을 연계 배치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최대 활용 : 2019년부터 행정 전담부서 및 중간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됨. 본 사업 항목에 5백만원 기준으로 10개 마을에 소액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음

3) 기본적인 체계(예시)

□ 다양한 주민교육사업과 공모사업의 연차별(역량단계별)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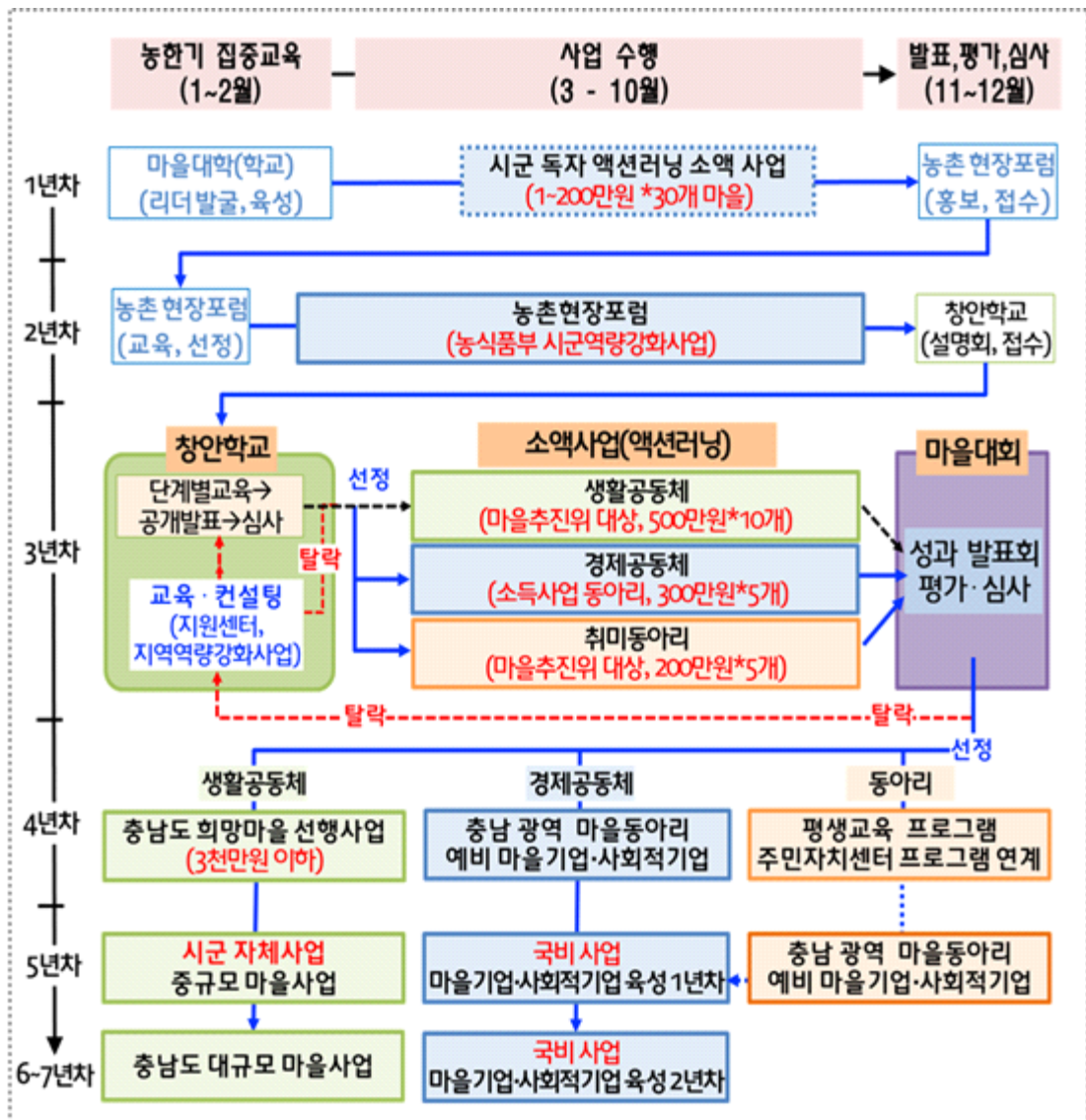
- 공모사업 추진실적 정리, 단계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연계 검토(현장포럼, 희망마을선행사업, 마을만들기 등)
- 연차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소규모 사업을 거쳐 하드웨어 기반 구축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쳐 마을 자체의 내구성 강화 및 마을만들기의 지속 방향 강구

□ 마을의 역량단계별 맞춤형 마을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체계 정립

- 연중 교육체계 수립 : 1~2월 농한기의 교육, 계획서 수립(창안학교)과 11~12월 심사(공동체주간)를 기준으로 연중 사업과 현장 밀착형 교육·컨설팅이 진행되도록 설계
- 집합식/방문식 구분, 주제별 워크숍 등 진행

□ 마을의 역량단계별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을 연계한 표준모델(안) 참고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마을의 역량단계별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을 연계한 표준모델(안)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음
- 2019년에는 재정분권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 모델을 제안중임([그림 2-16] 참고)



[그림 2-16]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을 연계한 충남도 표준모델(2019년 8월 개정)

- 특히 3년차의 창안학교와 소액사업(액션러닝), 마을대회는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필요 예산은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모두 추진이 가능함.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밀착된 사업 추진은 현재의 행정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도 지속될 수 없음. 기본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시스템임
- 2019년 하반기에 당진시에 설치될 행정직영의 지원센터가 이런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기 적응과정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과도기 과정을 반영해야 함

제3장.

당진시 마을만들기 민간 협의회 및 네트워크 구축 방향

제1절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현황

1. 문제의식 : 조사의 배경과 목적⁷⁾

-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0년대 초반부터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의 일환으로 마을만들기가 시작되었고, 이후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었음
 -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 복원과 주민자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용어임. 그래서 작은 생협이나 공부방, 생산자협동조합, 안전한 통학로, 지역언론, 담장 허물기 등 매우 다양한 활동 형태가 있음
 - 농촌에서는 주로 2000년대 들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며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방향에서 도입된 체험마을 사업이 실질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2002년)
- 1990년대에는 지방의제21(현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YMCA 등의 지역조직, 혹은 걷고싶은도시연대나 열린사회시민연합, 주민운동정보교육원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마을만들기를 주도하였음
 - 특히 1990년대에는 지방의제가 주도하여 마을의제 발굴과 마을만들기 활동을 주도했다는 점은 당진시의 민선7기 제1과제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측면에서 매우 시사점이 큼
 -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나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한마당 등의 전국적 행사에서 발표되는 주제나 행사 내용은 대부분 마을만들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전국 행사로 도시형 마을만들기 사례가 대부분이고, 최근 들어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개편과 연계하여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또 사회적경제 영역 활동 내용도 지역 공동체 활동과 직접 연계되어 있고, 지역 기반을 강화할수록 마을만들기와 밀접한 활동이 되고 있음
- 2017년 현재, 전국 조직으로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협의체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 설립되어 있음. 또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2004년에 처음 논의되어 2010년에 활동가의 네트워크

7) 이하 내용은 2015년부터 수행한 11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당진시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조직으로 발족함. 비법인임의단체로 비회원제도에 누구라도 자유롭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연대체를 지향함. 매월 1회 전국을 순회하는 마을만들기 대화마당과 전국대회 개최를 주된 활동으로 함

-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2013년 9월에 출발하여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국의 47개 중간지원조직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임. 상근 사무국(3인)이 있고, 회원의 회비와 사업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음. 상근 활동가의 직무교육과 조사연구, 중앙정부 대응 등이 주된 활동임
- 이외에 자치단체장을 회원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도 2015년 9월에 결성되어 56개의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임
- 2007년 전북 진안에서 시작되어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도시와 농촌 마을만들기의 전국적 행사에 해당함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사)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그림 3-1] 마을만들기 3대 전국 조직

-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민간단체들은 모두 연관성이 깊고 상호협력할 필요성이 매우 강함
 - 도시 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경제영역이 결합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여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또 이에 맞추어 행정조직 개편이나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농촌 지역은 이런 민간단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지만, 법률과 제도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행정의 칸막이’가 민간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한뿌리에서 나온 다양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함
- 이에 당진시에서 활동중인 민간단체와 협의체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함

2.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 당사자협의체 현황

1)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조직 개요

- 설립 목적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실천
- 설립 시기 : 2002년 10월 18일 창립총회
- 위 치 :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구 청사 본관 2층)
- 회원 및 임원 현황 : 회장단 3명, 감사 2명, 운영위원회 18명, 사무국 3명
 - 임원 현황표

[표 3-1]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 현황(2019. 08월 기준)

번호	직책	이름	소속	비고
1	공동회장	이○○	동우 HST(주) 기술연구소	상임협의회장
2	공동회장	이○○	도명엔지니어링	민간공동협의회장
3	공동회장	이○○	당진시청	공동협의회장
4	감사	손○○	비정규직지원센터	사회분과
5	감사	이○○	동서발전(주)	경제분과
6	운영위원장	문○○	당진문예의전당 예술학교	교육문화분과위원장
7	운영위원	정○○	아래위에 같은밤 영농조합	경제분과위원장
8	운영위원	김○○	면천면 주민자치회	경제분과부위원장
9	운영위원	조○○	당진문화연대	교육문화분과부위원장
10	운영위원	박○○	해나루시민학교	도시계획분과위원장
11	운영위원	오○○	학교급식 먹거리 지킴이단	도시계획분과부위원장
12	운영위원	이○○	사회분과	사회분과위원장
13	운영위원	이○○	서해에너지	사회분과부위원장
14	운영위원	정○○	스마트환경	환경분과위원장
15	운영위원	정○○	환경분과	환경분과부위원장
16	운영위원	이○○	동우 HST(주) 기술연구소	상임협의회장
17	운영위원	이○○	도명엔지니어링	공동협의회장
18	운영위원	박 ○	당진시청	담당관(경제분과)
19	운영위원	이○○	도시계획분과	도시계획분과 위원
20	운영위원	권○○	당진 YMCA	교육문화분과 위원
21	운영위원	손○○	당진2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분과 위원
22	사무국	이○○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3	사무국	이○○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차장
24	사무국	이○○	당진시청	지속가능발전협력팀장

자료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 조직 구성도



[그림 3-2]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도

□ 조직 연혁

- 2002년 10월 18일 맑고푸른당진21 추진협의회 창립총회 및 운영규정 제정
- 2015년 02월 27일 맑고푸른당진21 추진협의회에서 당진시지속가능협의회로 개칭
- 2016년 04월 29일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 공포

□ 주요 활동 및 수상 내역

- 2004년 09월 18일 지방의제 우수사례콘테스트 전국대회 '오봉제 고니마을만들기' 대상 및 환경부장관 표창
- 2005년 12월 23일 자연 친화형 하수 처리 시설 산송1리 농촌 수질 우수마을 충청남도 최우수상 수상
- 2011년 10월 24일 에코패밀리 코디네이터 프로젝트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표창

- 2012년 12월 03일 당진시 도시 및 농촌 경관 개선 정책 워크숍
- 2013년 11월 19일 친환경 개발 업무 처리 지침의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
- 2015년 10월 06일 아나바다 벽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2015년 10월 13일 시민 참여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 2015년 10월 16일 민관협 협치 활성화 부문 충청남도 지사 표창
- 2015년 11월 3일 당진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2016년 10월 19일 보행자 중심 도시와 도로 다이어트 정책 토론회
- 2017년 10월 27일 환경교육부문 충청남도지사 표창
- 2018년 02월 22일 지속가능발전부문 충청남도지사 표창
- 2018년 05월 17일 생물다양성 보전부문 환경부장관 표창



출처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그림 3-3]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사진

2) 당진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조직 개요

- 설립 목적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행정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지역사회의 협동적 문화 발전
- 설립 시기 : 2015년 11월 16일
- 위 치 : 충남 당진시 무수동1길 11 새마을회관

- 회원 현황 : 관내 협동조합 10개, 자활기업 5개, 사회적기업 11개, 시민사회단체 6개 등 총32개 기관·단체

□ 조직 연혁 및 주요 활동

- 2015년 11월 16일 창립대회 및 창립총회
- 사회적경제 관련제도 및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논의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의 전개



출처 : 당진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공, 미디어당진

[그림 3-4] 당진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 사진

3) 당진시 사회적기업협의회

- 설립 목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간의 연대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회원 간의 협력, 지역민 참여확대, 민-관, 민-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하여 연대와 협동, 순환과 공생의 내발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설립 시기 : 2015년 초
- 회원 현황 : 관내 인증 사회적기업 6개, 예비 사회적기업 9개

□ 주요 활동

- 당진사회적경제인의 밤 개최
- 행담도 휴게소 카페운영
-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수능 후 교실

[표 3-2] 당진시 사회적기업 현황(2019. 08. 기준)

번호	구분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1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주)사람	편OO	-작업복, 재활용마대 등 의류생산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2		(주)더부러	조OO	재활용품 수거·판매, 보안문서 파쇄
3		백석올미영농조합	김OO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농촌체험마을
4		(주)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송OO	요양보호사 방문 재가서비스, 도시락판매, 출장뷔페, 소독업
5		(주)대원지엔지	인OO	청소 용역, 경비업
6		주성이엔지(주)	윤OO	강관제조업
7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상록수농산 영농조합	한OO	농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업
8		(주)버그내	김OO	순례객 대상 여행업, 건물청소 용역 및 소독
9		(주)제이씨기획	양OO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컨설팅, 행사업
10		(주)단미소	박OO	에어컨세척, 청소용역
11		노르웨이숲	배OO	농·임업품 생산, 가공 및 유통
12		(주)팔미리	이OO	디자인 제작
13		다빈치건강놀이심리 협동조합	최OO	심리치료, 교육 등
14		(주)식판선생님당진점	조OO	식판소독 및 세척
15		(사)반딧불나눔복지재단	정OO	김부각 판매 및 강사교육

자료 : 당진시청 홈페이지 참고



출처:당진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제공

[그림 3-5] 당진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활동 사진

4) 당진시 귀농귀촌인협의회

□ 조직 개요

- 설립 목적 : 귀농·귀촌인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친목유지를 함께 함으로써 정착하는데 있어서 힘을 주며 빠른 적응을 유도함
- 설립 시기 : 2009년 11월 4일(정관 제정일)
- 위 치 : 현재는 사무실 없음(2018년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기술센터 친 환경농업과 도시농업팀 협조
- 임원 현황 : 회장 1명, 부회장 2명, 교육위원장 1명, 혁신위원장 1명, 문화위원장 1명, 자문변호사 1명, 자문법무사 1명, 면 및 읍대표 12명(시내 12개 읍면대표),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카페운영위원 1명, 부동산자문위원 1명, 승마자문위원 1명, 문화행사 자문위원 1명, 전기 자문위원 1명, 건축자문위원 1명 등

□ 주요 활동

- 문화행사(매년 개최)
- 각종 봉사활동
-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월례회
- 귀농귀촌 예비자를 위한 행사 참여(aT센터_매년)
- 충남 타시군 귀농귀촌협의회와의 정보교류
- 본회 활동을 위한 카페 및 SNS 운영
- 국내 선진지 견학

5) 당진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조직 개요

- 설립 목적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행정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지역사회의 협동적 문화 발전
- 설립 시기 : 2018년 12월
- 위 치 : 사무실 없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6차산업팀 협조
- 회원 현황 : 관내 지정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개 마을

[표 3-3] 당진시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원 현황(2019. 08. 기준)

연번	마을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직위
1	백석마을	김OO	순성면 매실로 246	회장
2	영전황토마을	최OO	고대면 황토마을로 141	회원
3	푸레기마을	장OO	석문면 초락1로 147	회원
4	당나루물꽃송마마을	허 O	고대면 고대로 939	회원
5	왕매실마을	이OO	순성면 매실로 394	회원

자료 : 당진시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주요 활동

- 당진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간 정보교환 및 교류
- (사)충남체험휴양마을협의회 당진시지부 성격으로 독자적인 활동은 활발하지 않음

3. 마을만들기 관련 유사 중간지원조직 현황

1)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행정직영)

□ 조직 개요

- 설치 목적 :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설치 시기 : 2015년 4월 13일
- 설치 근거 :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4.12.29.제정)」 제6조
- 위 치 : 현재는 당진시청 내에 위치
 - 향후 (구)당진농협 건물로 이주 예정. 충남 당진시 읍내동 549-2(현재 리모델링 중)
- 조직 현황 : 센터장(비상근) 1명, 사무국장 1명, 당진1동 현장지원센터 1명, 당진2동 현장지원센터 1명

□ 조직 활동

- 도시재생대학 운영
- 주민역량강화
- 당진폴뱅이장터 운영



출처 :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그림 3-6]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 사진

2) 당진시 청년센터 나래(행정직영)

□ 조직 개요

- 설치 목적 : 청년 실업, 자신감 저하 등 복합적인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소통, 취·창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활동 지원
- 설치 시기 : 2017년 11월 25일
- 위 치 :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구 군청사 별관 1동 1·2층)
- 조직 구성



[그림 3-7] 당진청년센터 나래 조직도

□ 조직 연혁

- 2017년 01월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신설
- 2017년 03월 당진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개최
- 2017년 03월 당진시 청년정책추진단 구성
- 2017년 05월 당진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 2017년 09월 당진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7년 11월 25일 당진청년센터 ‘나래’ 개소

□ 주요 활동

- 당진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맞춤형 청년인턴제 운영 및 청년 취업역량강화 교육진행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
- 취업준비생(청년)전용 도서관 설치 및 운영
- 민간분야 ‘청년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청년 주거 실태 조사 및 조치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및 시립 시간제 돌봄센터 설치 추진
- 당진시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청년학교, 청년커뮤니티)
- 야간 평생학습 교육(해나루달빛학습촌) 및 영화주간 운영
- 청년커뮤니티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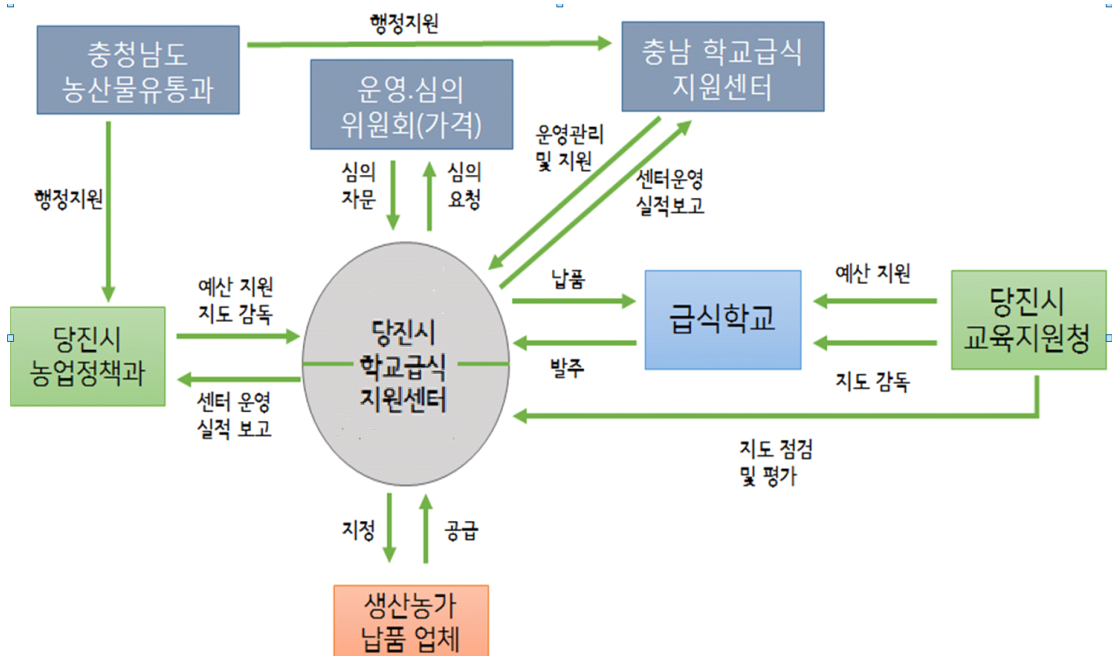
출처 : 당진청년센터 나래 홈페이지

[그림 3-8] 당진청년센터 나래 활동 사진

3)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행정직영)

□ 조직 개요

- 설치 목적 : 당진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무상급식비 및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며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도농 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
- 설치 근거 :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2012.01.01.제정)」 제16조
- 설치 시기 : 2011년 3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시곡로 264 농산물유통센터
- 시 설 : 야채류/육류 전처리 및 소분 시설, 피킹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 조직 구성 : 팀장 1명, 행정담당 3명, 수발주담당 4명, 검수 피킹 6명
- 운영 체계 : [그림 3-9] 참고



자료 :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경영(조직)진단 용역 보고서, 충남연구원, 40쪽 참고

[그림 3-9]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

□ 조직 연혁

- 2011년 03월 02일 당진시 농협 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위탁운영
- 2019년 01월 01일 행정직영으로 운영 변경

□ 운영 현황

- 지원 대상 : 관내 전체 유·초·중·고교 89개교 (2만여명)
- 지원 품목 : 학교급식 식재료 전품목(농·수·축산물, 가공품 등)
-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거 급식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
- 지역 친환경농산물은 29개 농가에서 31개 품목을 계약재배로 공급하고 일반농산물은 500여 농가에서 양파, 감자, 생강 등을 주로 공급함
- 관외 농산물은 농협 유통 및 충남친환경유통사업단을 통해 조달함
-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시설을 활용하여 센터에서 직접 부분육과 정육처리를 하여 각 학교와 일반음식점, 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음
- 가공품과 수산물은 일부 지역 대리점(급식 납품업체)을 통하여 공급 받는 품목도 있지만 50% 이상은 직접 공산물, 수산물 브랜드 회사와 직거래를 하고 있음
- 브랜드 회사별 공급 가격은 협상을 통해(해당기업의 학교제시 홍보가격의 90%대) 결정함

□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 구성현황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운영
 -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9조에 근거하여 센터와 식재료 구매처인 학교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성하는 운영협의체. 식재료 품목별 수·발주관리, 가격결정, 배송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성격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품목 및 단가 등 학교급식 지원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자문기구
 - 주요기능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조정 협의(계약재배, 작부체계 등), 기존 업체 및 협력 주체와의 지속적 업무 협의, 제철식단제 운영 방안 협의, 영양교사워크숍, 학생 식생활교육, 농가교육 등 기획, 사업 평가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 구성 개요
 - 운영협의회 회장 : 초·중·고 영양(교)사 중 선임

- 운영협의회 구성 : 협의회 회장 포함 20명으로 구성(운영협의회 13명, 가격조정협의회 7명). 초·중·고 영양(교)사,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친환경단체, 농업인단체, 학교급식운동본부, 행정(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청, 시청), 축협, 학교급식지원센터
- 학교급식운영협의회 : 분기별 (4회)
- 가격조정협의회 : 매월(12회)
- 심의위원회 : 부정기적
- 학교급식 TF 팀 : 부정기적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 기능
 - 지원센터를 통한 생산자 직거래 공급체계 결정
 - 식재료 공급품목 및 단가, 공급업체 결정
 - 관내 농산물 공급확대 및 친환경 급식을 위한 사안 결정
 - 가격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당진시 귀농귀촌지원센터(행정직영)

□ 조직 개요

- 설치 목적 : 당진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설치 시기 : 2013년 3월 4일
- 위 치 : 당진시 구봉로 46 농업기술센터
- 조직 구성 : 공무원 근로자 1명

□ 조직 연혁 및 주요 활동

- 2013년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당진시귀농협의회에서 운영
- 2015년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 인력육성팀에서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팀으로 담당부서 변경
- 2017년 행정직영으로 운영방식 변경
- 귀농귀촌인 상담

제2절 마을만들기 민간협약회의의 의미와 설립 방향

-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당면과제는 당사자 협의체로서 마을 위원장들만의 민간협약회의를 구성하는 것임. 타 지역과 비교하여 당진시는 마을만들기 협약회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임
- 제2절에서는 민간협약회의의 설립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함. 상세한 내용은 2020년 2차년도 과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함

1. 기본적 문제의식 : 마을과 읍면, 군 차원의 과제를 구분하여 접근⁸⁾

1) 개별 마을 스스로 할 일과 마을만들기 협약회를 통해 해결할 일의 구분

□ 마을만들기는 ‘주민 주도, 상향식’ 의 방법론 중시

- 마을 내부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내발적 발전론). 마을 주민의 주도성이 없이는 당면과제 해결도 마을 발전도 가능하지 않음
- 하지만 현대 농촌과 지방자치 현실에서 마을 주민들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가 매우 많은 상황임

□ 마을과 마을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필요성

-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생활권 확대 등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농업 구조가 전세계 시장경제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마을 문제 해결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마을 문제를 공통적인 과제로 안고 있는 마을 위원장들이 서로 모여 공동학습과 토론, 공동대응을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함.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협약회의가 필요함
-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접근하되 단계적, 전략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함

8) 이하 문제의식과 진단군 사례 및 시사점 등은 2015년부터 수행한 11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마을만들기의 당사자 협의체 설립 방향이나 원칙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임

2) 당사자 협의체의 구성 : 마을과 마을이 협력하여 해결할 영역

□ 마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위원장들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

- 마을마다 특성이 있고 해결과제는 상이하지만 문제해결의 방향이나 목표 등에서는 대동소이한 셈임
- 당사자인 마을 위원장들이 우선 모여 현재의 과제를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공동모색해야 할 부분이 많음(아래 [표 3-4] 논산시 토론 결과 참고)

[표 3-4] 제1회 논산시 마을대학 : 마을 ‘애로사항’ 토론 결과(2015. 10. 30.)

분야	애로사항	해결방향	
		개별 마을/조직	공동 해결
사람 · 조직 (인적자원 · 사회자본)	· 고령화, 인력 부족 · 낮은 주민인식 · 갈등(불통) · 성과의 무임승차 · 조직체계	· 주민좌담회(현장포럼) · 마을발전계획 수립 · 힐링프로그램 · 역량강화교육	· 마을규약, 회의록 등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상시 교육, 상담, 컨설팅시스템 확보
공간 · 땅	· 사업부지 부족 · 경관 파괴 · 법적 제약	· 사전계획수립(부지확보) · 행정창구 일원화	·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인력 파견(귀향, 귀농, 귀촌)
돈 · 사업 (프로그램)	· 전문성 부족 · 자금 부족 · 회계, 마케팅 역량 부족 · 수익배분 갈등 · 낮은 인지도(홍보)	· 맞춤형 심화교육 · 전문인력 파견 상담 · 특화소득원 개발	· 제도개선(정책) · 전문적 정보 및 지식 제공 · 공동의 판로 개척 · 체험객모객 활동

자료 : 논산시 1차년도 연구용역 보고서(2015), 54쪽

3) 외부 지원이 필요한 영역 : 마을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가는 길 모색

□ 마을을 근거리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함

- 면사무소 행정과의 협력 : 행정 총괄·조정팀 구성(전문성과 연속성), 전문직위제 도입
 - 향후 읍면장의 민간전문가 채용, 직위공모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함
- 면소재지의 거점공간 형성 :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거점공간 형성
 - 중심지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마을 가까이의 생활편의 시설들이 정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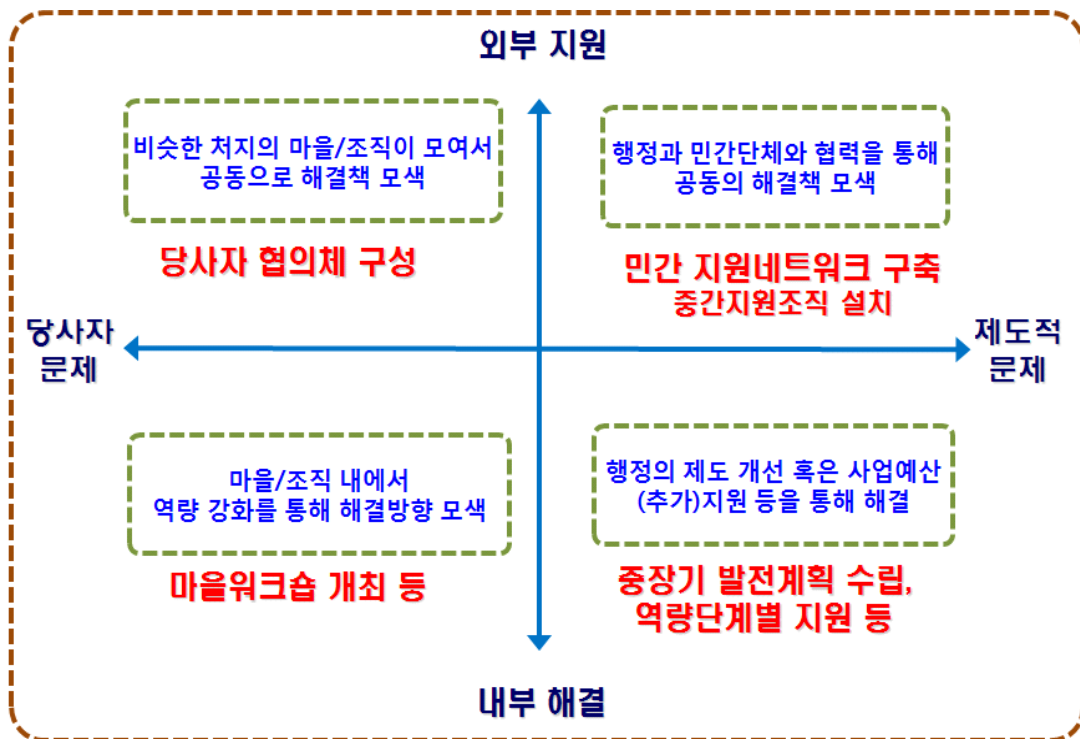
- 읍면동 단위의 근거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마을 현장의 전문적 지원조직
- 주민자치센터 정비 등과 연계하여 읍면 단위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를 설치, 운영함

□ 위와 같은 세 영역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해야 함

- 본 연구과제의 성격과 연계하여 보면 자치단체 전체의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마을 현장 가까이에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는 전략임

□ 마을 문제의 해결방안 : 네 개의 영역

- 개별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 3-10]과 같이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
- X축 :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 ↔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 Y축 : 마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 외부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그림 3-10]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로 : 당사자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 위의 해결방안을 조합하여 정리하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 영역(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음

- ① 마을 스스로 마을워크숍 개최 등 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
- ② 당사자 협의회를 조직하여 비슷한 처지의 마을이 모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
- ③ 행정 사업의 제도 개선이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방향
- ④ 행정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전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도움을 받는 방향

□ 마을 문제의 해결방안 : 마을 협의체의 과제

- 제2영역 중시 : 마을과 마을이 협력하여 당사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방향
 - 비슷한 처지의 당사자들이 모여 현장 실정에 맞는 공동의 과제 발굴
 - 행정에 대해 제도적 해결책 요청
 -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한 해결책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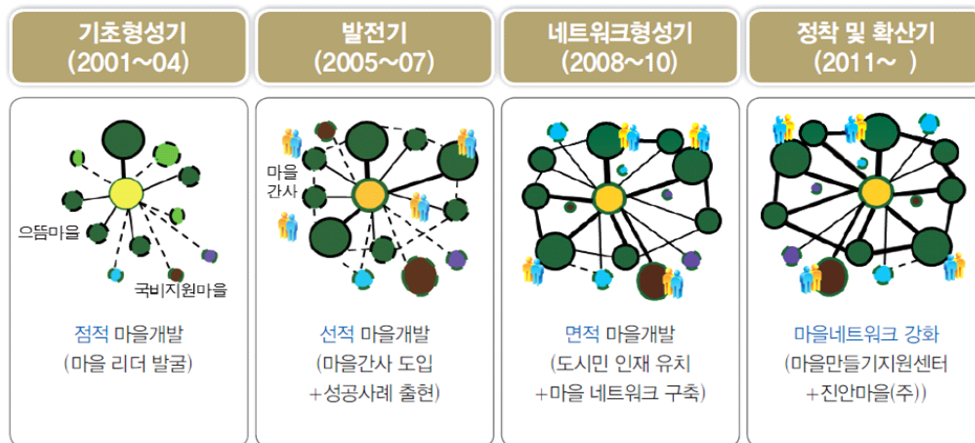
2. 사례 연구 :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의 경험과 시사점

-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방향을 검토할 때 좋은 선행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또 충남도에서 구성된 7개 자치단체 사례도 충분히 참고가 될 것임
- 진안군은 2006년 9월에 마을만들기의 당사자 협의체를 스스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1) 진안군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체의 역사

□ 진안군과 마을만들기 역사

- 진안군은 2001년부터 마을 단위 사업을 독자적으로 도입하고, 2003년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점-선-면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면서 농촌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가장 초기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옴([그림 3-11] 참고)



[그림 3-11]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발전단계 구분

- 이 과정에서 마을간사 제도 도입,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이상 2006년), 마을만들기팀 신설,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정비, 마을조사단 운영, 제1회 마을축제 개최(이상 2007년) 등 전국 최초의 시도가 많음
-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 당사자 협의체로 설립된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이하, 지구협의회)가 있음. 지구협의회 주도로 단계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구협의회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설립되어 왔음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의 주요 역사(개요)

- 2003년~2006년 초반 : 으뜸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위원장 : 진안군수)
 - 행정이 개최하고 실과소장도 위원으로 참가. 마을 위원장은 위원의 일부
- 2006. 9.~2008. 11. : 으뜸마을위원장협의회
 - 순수 민간조직으로 전환. 하지만 으뜸마을 사업 위원장만의 협의회
 - 전체 마을 사업 위원장 일본 공동연수 실시(기간 중 2회)
- 2008. 12.~2010. 2. :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 전체 마을 협의회로 확대
 - 마을간사(사무장) 제도 및 금요장터 운영을 계기로 마을 협력네트워크 필요성 확대
 - 마을 사업 5단계 구분과 연계, 전체 마을 사업 위원장의 협의회로 확대
- 2010. 2.~현재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 친목 성격에서 마을 대표성 강화
 -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10년’을 이끌어갈 대표 조직으로서의 위상 강화
 - 로컬푸드사업단(진안마을주식회사)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사단법인 마을엔사람)가 독립
 - 2019년 8월 현재, 28개 마을(권역 포함)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임

□ 주요 특징

- 행정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옴(내발적발전론의 관점)
- 행정사업별 ‘칸막이’의 문제점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전체 마을 협의회로 확대해옴
- 협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한 이후에 2011년부터 ‘새로운 10년’을 지향하며 경제사업단과 중간지원조직 수탁법인을 별도로 설립함

2)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의 주요 활동

□ 고유 활동

- 정기 회의 : 운영위원회(매월), 위원장회의(격월 1회)
- 추진위원장 연수(교육 및 워크숍) : 매년 2~3회
- 협의회 상근간사 운영 : 2009. 4. 최초 채용

-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 수시
- 지산지소 직거래 금요장터 운영 : 2008~2010년 3년간, 총91회 운영
- 로컬푸드 사업 영역 개척 및 법인 설립 지원

□ 네트워크 협력 사업

- 진안군 마을축제 주관 및 참가
 - 매년 여름철 6~10일간 ‘소박한 마을잔치’ 주관, 마을축제 기획학교 주관(2013~)
- 진안군 도농교류 협력 사업
 - 도시민 놀토행촌 및 베란다 텃밭 조성 (2009~2010년)
 - 농식품부 공모 도농교류협력사업
 - 제비관찰, 시골학교 운동회 등 (2010년)
-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 귀농귀촌활성화센터(전 뿌리협회)와 진안고원길, 한일교류협회, 마을축제조직위원회 등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수탁법인 (사)마을엔사람-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 로컬푸드사업단 농업회사법인 진안마을(주) : 마을 농산물 공동 유통 등

□ 행정 위탁 및 협력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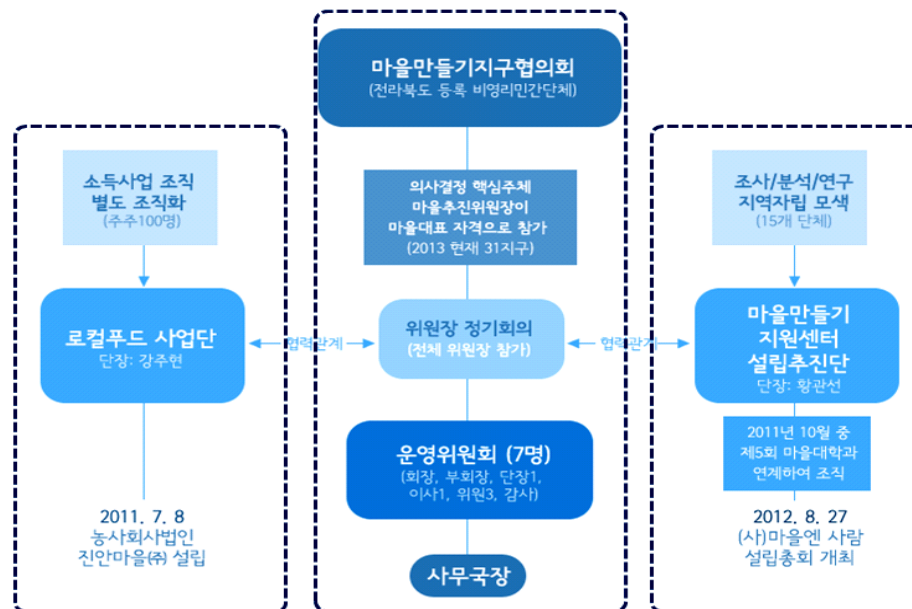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대학 운영 (매년) : 마을 리더 신규 발굴 및 재교육 기회 제공
- 마을만들기의 날(주간) 공동 운영(매년 11월중) : 연중 활동 보고 및 교류의 날
- 마을간사제도 운영 지원 : 위원장과 협력하여 시설 관리, 농산물 유통, 신문 발간 등

3)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회의 조직 형태와 정관(주요 쟁점)

□ 조직 형태와 체계 : 전라북도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 마을만들기 민간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각종 행정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라북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함
 - 등록일자 : 2009. 12. 3.(등록번호 : 제2009-1-전라북도-103호)
- 위원장 전체회의 : 주로 공동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것을 2011년 정관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위원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월 1회로 수정함
- 운영위원회 : 7인 임원회의 성격으로 매월 1회 개최함
- 사무국 : 상근 사무국장 1인 근무
 - 2006년 으뜸마을가꾸기추진위원장협의회로 전환 당시에는 사무국장을 마을 위원장 중에서 1인이 담당하였으나 비상근 상태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실효성이 낮았음
 - 2007년부터 진안군 독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간사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사무국 간사를 채용하고 상근 근무함
 - 2011년 1월 정기총회에서 ‘위원장이 아닌 사무국장’ 채용을 정식 결정하고 기존 간사가 사무국장을 맡게 됨



[그림 3-12]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조직도와 협력기관

□ 회원 자격 : ‘문턱이 있는 협의회’

- 진안군 협의회는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함
 - ① 마을의 주민주도성 강조 : 추진위원회 설립, 마을규약 제정, 주민 공동활동 추진
 - ② 위원장 대표성 중시 : “마을회의를 거쳐 위임을 받아 대표로 참가하여 의사결정권 행사”
 - ③ 으뜸마을사업(군 독자) 단계 이상의 마을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서 그린빌리지(1단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2단계) 사업을 이미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참고]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정관 (2012년)

제5조(회원의 자격)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로서 추진위원회 설립과 마을규약 제정, 주민 공동활동 추진 등 최소한의 활동 여건을 갖춘 지구로 하며, 마을 추진위원장 1인이 마을회의를 거쳐 위임을 받아 대표로 참가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정 사업이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지구의 마을위원장은 새롭게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1.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지구
2. 농림수산물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지구
3.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사업지구
4.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사업지구
5.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지구
6. 전라북도 맛체험마을,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지구
7. 기타 국도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로서 본 협의회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지구

• 이 점은 각각 다음과 같은 측면 때문에 명문화된 것임

- ① 마을에서 행정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주민 참여가 빈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마을규약도 제정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공동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
- ② 위원장 개인으로서의 회원 참가가 아니라 마을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것이기에 중요 사항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참가해야 하고, 회의 결과는 마을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강조. 회비 납부는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기금에서 계좌이체 해야 한다는 점과 연계된 규정
- ③ 진안군 마을 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서 3단계 이상의 마을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1,2단계를 준비단계로 이해한 것이고, 회원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조직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 진안군 협의회 회원 규정은 행정 사업의 칸막이를 극복하면서도 주민 주도성과 마을 대표성, 행정 사업 추진 경험 등을 중시하여 정해진 것임. 어느 마을이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두되(개방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문턱)을 강조한 것임

□ 회비와 납부방법

- 정기회비는 “매월 3만원, 연간 36만원”이고 마을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원칙임
- 대체로 회비 납부율은 95% 내외로, 계좌이체 원칙도 정착되어 있음

[참고]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정관 (2012년)

제23조(회비) 본 협의회는 회원의 입회비와 정기회비, 수익사업 수익금, 후원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는 가입시 10만원 1회로 하며 탈퇴 및 제명 시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시점까지 이루어진 적립금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2. 정기회비는 매월 3만원, 연간 36만원으로 하며, 마을회의의 결정을 거친 마을사업 통장에서 본 협의회 지정한 통장 계좌로 자동이체 해야 한다.

□ 권한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대표성은 2010년 5월에 발효된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음. 이런 권위에 근거하여 행정으로부터 대표성을 존중받음

[참고]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2010년 5월 발효)

제12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마을만들기 사업지구가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이하 ‘지구협의회’라 한다)의 대표성을 존중하고 사업지구 사이의 공동사업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지구협의회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실제로 진안군 협의회는 ① 마을간사 1명을 배치받아 상근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② 마을만들기대학 등 매년 공동사업비 지원이 있으며, ③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서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 사업 지원이 없도록 되어 있음

[참고]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정관 (2012년)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협의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제반 회의에 참여할 권리
3.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4. 본 협의회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의 권리
5. 진안군 행정과 협의를 통해 마을간사의 배치 및 본 협의회 공동사업비의 공동집행권한을 가지며,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임원 구성과 분과체계

- 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총8명이고, 감사를 제외한 7인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 초기의 분과체계는 2011년 정관 개정을 통해 해체하고, 별도로 설립된 사업단의 단장 2인이 운영위원으로 참가하여 상호협력 구조를 명확히 함
- 행정 마을만들기팀의 계약직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행정과의 소통을 담당함

[참고]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정관 (2012년)

제10조(임원 구성)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로컬푸드사업단장 1명
5.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지원단장 1명
6. 기타 운영위원 3명. 단, 제5조의 회원 자격과는 별개로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팀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 회의 체계

- 정기총회 : 연간 1회 (매년 2월중)
- 위원장 정기회의 : 격월 1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매월 1회 (마지막주 월요일)

4)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성과와 시사점

□ 다양한 경험의 축적 위에 단계적으로 변화, 발전

- 진안군 협의회는 2003년 조례 제정으로 2004년부터 만 7년간의 운영 경험을 거쳐 2010년부터 ‘새로운 10년’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크게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협의회 자체는 내부 역량강화와 마을축제 등의 비영리사업을 담당하고, 분과 체계가 없이 별도 사업단과의 협력관계 중심으로 운영함. 비상근 마을 위원장의 분과체계가 초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공동사업 추진에는 효과적이지 않았음
 - 다양한 토론과정과 경험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별도 사업단으로 분리 독립하는 방식을 택함. 30여개의 회원 마을 사이에는 공동 사업 관련 하여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공동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회원수가 많을수록 공동 사업(특히 경제사업)의 추진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결과라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로컬푸드사업단은 2008년부터 만 3년간 금요장터를 운영한 경험을 통해 마을 단위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경제사업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별도 법인을 구성하고 독립하게 됨

[참고]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조직 개편 (2011. 1. 29 정기총회 결과)

1) 논의 및 의견 수렴 경과

- 2010. 11.30.~12.1. 제4회 마을만들기대학_1박2일 집중강좌 개최
- 2010. 12.20. 제3회 마을만들기의날_ 지구협의회 임시총회
- 2011. 1.13.~14. 제4회 마을만들기대학_1박2일 선진지견학
- 기타 임원회의 등 수시 개최

2) 주요 결정사항

- 분과 해체 및 로컬푸드사업단, 지원센터설립지원단 신설
- 운영위원회 신설(7명), 위원장이 아닌 사무국장 채용
- 신규 임원 인선은 현재 임원진이 협의를 통해 상정안 마련

3) 조직개편의 결과

- (1) 조직의 내실화, 회의 체계의 효율화
 - ① 위원장 정기회의 횟수 축소(월1회 → 분기별 1회) : 부담 경감
 - ② 운영위원회 신설(월1회) : 임원회의의 내실화
- (2) 내실있는 산하조직 신설 - 분과체계 해체
 - ① 로컬푸드사업단 신설 : 경제역역 개척, 수익사업 활성화
 - ② 마을만들기지원센터설립지원단 신설 : 대외 홍보 강화, 거점공간 확보

□ 책임있는 역할 수행으로 지역내 마을만들기의 대표성 확보

- 마을과 마을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적 역할을 열심히 수행한 결과로 대표성 확보
- 마을 위원장 당사자들이 모여 끊임없이 학습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옴
- 그 결과는 2010년 5월에 발효된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에 대표성을 부여받게 됨

□ 민과 관, 민과 민의 협력관계 구축

- 개별 마을 단위 활동에서 출발하여 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책임과 권한의 조화’를 모색하며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봉사로 마을간 협력관계를 구축함
- 나아가 행정의 시스템 정비(전담팀 구성, 계약직 공무원 채용,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등)와 민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기본조례도 제정함
- 또 로컬푸드사업단은 2011년 7월에 농업회사법인 진안마을(주) 설립으로 발전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대학 과정을 거쳐 2012년 8월에 (사)마을엔사람 설립으로 이어짐
- 특히 2012년 12월에 개소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는 약14개의 관련 단체들이 입주함으로써 민과 민의 협력관계를 공간적으로 구축함

5) [참고] 충남도 시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설립 및 운영 현황

□ 2015년부터 ‘마을만들기 정책 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지속 추진

- 충남도는 2012년 희망마을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군 단위로 희망마을포럼 설립을 지원함. 하지만 홍성군과 논산시 이외에는 구성되지 않거나 활동이 미약함
- 2015년부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병행하여 당사자협의체의 조직화 활동을 적극 지원함. 전북 진안군의 경험을 집중 벤치마킹하면서 추진함

□ 2017년부터 충남 광역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추진중

- 2019년 10월 현재, 충남도는 7개 시군에서 마을만들기 대표 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음. 전체 회원 마을수는 총283개 마을임. 아산시와 공주시 등도 각 마을사업 영역을 포괄하여 대표 협의회를 설립 및 정비중에 있음([표 3-5] 참고)
- 또 2017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대화마당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광역 단위 네트워크 협의회 설립을 논의중이며, 2020년 7월에는 설립을 예상함

[표 3-5]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 협의회 설립 현황(설립일자순)

시·군	명칭	회장	창립일	회원수(개)*	비고
홍성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	조홍식	2013.03.11	45	
보령	보령시 마을만들기협의회	권영진	2014.07.01	31	
논산	논산시 농촌마을만들기협의회	김시환	2017.01.17	55	논산희망마을포 럼에서 전환
서천	서천군 마을만들기협의회	하창호	2017.04.11	16	
예산	예산군 행복마을만들기협의회	신웅균	2017.09.26	40	
천안	천안시 농촌마을만들기협의회	황완순	2018.04.13	50	
청양	청양군 마을만들기협의회	황준환	2018.09.17	46	
아산	아산시 마을만들기협의회(준)	유진돈	2019.12 (예정)	-	희망마을, 권역 등 통합 협의회
공주	공주시 마을만들기협의회(준)	미정	2019.12 (예정)	-	2018년부터 토론중

* 2019년 10월 현재 기준

* 타 시군에서도 계속 설립 협의 진행중

3.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당사자협의체 구축 방향

1) 3대 기본 방향⁹⁾

(1) 마을만들기의 전체 틀(숲)에 대한 이해 강화

-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둘러싼 전체 시스템을 볼 줄 알아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자”는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 슬로건을 상기해야 함
- 개별 마을 활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을위원장들이 공동학습과 토론을 반복하면서 한국 농업구조, 지방자치 역사,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의 흐름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2) 여러 마을의 힘을 모아 ‘작지만 튼튼한’ 협의체 구축

-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가칭) 설립 자체로는 작고 미약하지만 서로 힘을 합치면 큰 일도 할 수 있음. 전북 진안군과 충남 7개 시군의 경험을 빠른 시간 내에 벤치마킹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작지만 강한 협의체를 모색하며 단계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임
- 향후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가칭)가 주도하여 농촌관광과 6차산업, 귀농귀촌, 친환경 학교급식, 먹거리 네트워크(로컬푸드, 푸드플랜) 등의 영역과도 강하게 결합될 때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도 기대할 수 있음

(3) 행정 사업의 ‘칸막이’ 를 극복하고 타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

-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① 마을 스스로 할 일, ② 협의회를 설립하여 마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일, ③ 타 관련 조직의 협조를 통해 풀어야 할 일 등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함
- 특히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가칭) 내부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마을만들기와 직접 관련된 다양한 민간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작은 협의회가 직접 수행하기 힘든 영역의 활동을 보완 받으면서 협력해야 함

9) 이하 내용은 2015년부터 수행한 11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당진시는 마을만들기협의회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2020년에 집중 추진이 필요함

2) 마을 리더 당사자의 의견 수렴 : 제1회 당진시 마을대학 개최 제안

- 당진시 마을리더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스스로 협의회 설립을 주도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제1회 마을대학을 2020년 1-2월 농한기에 개최하여 집중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 논의 결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

□ 제1회 당진시 마을대학(제안)

- 주제 : “우리 스스로 수립하는 당진시 농촌마을정책”
- 기본목표
 - 당진시 마을만들기 정책 시스템에 대한 이해
 - 마을만들기의 민간 협의회 설립 선행사례 학습
 - 당진시 마을만들기 협의회 설립방향에 대한 합의
- 시기 : 2020년 1~2월 중 매주 1회 연속 5회(선진지 견학 포함)
- 대상 : 약40명 내외
 - 마을만들기 담당 공무원 5명 내외
 -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위원장 및 사무장 등 25명 내외
 - : 희망마을 선행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사업, 중심지활성화사업 등
 - 기타 마을 리더, 활동가 등 참가 희망자 10명 내외
- 교육 프로그램 기본 구상
 - 당진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공무원 및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집중
 - 원형 테이블로 마주 볼 수 있고 토론이 용이하도록 배치
 - 강의 자료집을 사전 제작하고 향후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 자료로 활용
 -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여 강의와 실습의 균형을 모색하고 재미있게 진행
 - 최종보고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이해하는 장으로 구성
- 추진방향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
 - 마을대학 개최 성과를 통해 참가자와 지원센터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위원회까지 발족 목표

- 세부 진행 프로그램 : 아래 [표 3-6] 참고
- 아래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세부내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
- 선진지 견학은 동절기와 설 명절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문지를 결정

[표 3-6] 제1회 당진시 마을대학 세부 프로그램(안)

회차	시간	내 용		
1회	14:00~ 14:30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30분)	<div> <div>▣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div> <div>· 환영사(당진시장), 과정 소개 등</div> <div>▣ 참가자 자기 소개</div> </div>	
	14:30~ 15:30	총론 (60분)	<div> <div>▣ 강의 : 마을만들기 정책 시스템과 당사자협의회</div> <div>·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div> </div>	
	15:30~ 17:30	분임토론 (120분)	<div> <div>▣ 분임 토론 : 농촌 마을만들기의 애로사항</div> <div>· 마을 활동 경험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토론</div> <div>▣ 팀별 발표 : 팀별 5분 내외× 5팀 = 약30분</div> </div>	퍼실리 테이터
2회	14:00~ 15:00	협의회 사례1 (강의 60분)	<div> <div>▣ 사례 :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의 역사와 현재</div> <div>· 심수진 사무국장(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div> </div>	질의응답 포함
	15:00~ 16:00	협의회 사례2 (강의 60분)	<div> <div>▣ 사례2 : 보령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사례와 충남 동향</div> <div>· 권영진 회장(보령시 마을만들기협의회)</div> </div>	
	16:00~ 17:30	분임토론 (90분)	<div> <div>▣ 분임 토론 :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60분)</div> <div>· 5개 그룹별 분임 토론</div> <div>· 쟁점은 사전 접수 및 배포</div> <div>▣ 팀별 발표 : 팀별 5분 내외× 5팀 = 약30분</div> </div>	퍼실리 테이터
3회	14:00~ 16:00	쟁점 토론1 (강의 30분) (토론 60분) (발표 30분)	<div> <div>▣ 강의 :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의 주요 쟁점1</div> <div>·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div> <div>▣ 분임 토론 : 5개 분임별 쟁점 토론(60분)</div> <div>▣ 팀별 발표 : 팀별 5분 내외× 5팀 = 약30분</div> </div>	
	16:00~ 18:00	쟁점토론2 (강의 30분) (토론 60분) (발표 30분)	<div> <div>▣ 강의 :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의 주요 쟁점1</div> <div>·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div> <div>▣ 분임 토론 : 5개 분임별 쟁점 토론(60분)</div> <div>▣ 팀별 발표 : 팀별 5분 내외× 5팀 = 약30분</div> </div>	
4회	09:30~ 17:30	선진지 견학 (2개 지역)	<div> <div>▣ 견학1 :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div> <div>(마을만들기협의회, 지원센터, 담당 행정 등)</div> <div>▣ 견학2 : 충남 보령시/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div> <div>(마을만들기협의회, 지원센터, 담당 행정 등)</div> </div>	
5회	14:00~ 16:00	종합토론회 (사전행사 20분) (강의 50분) (토론 등 100분)	<div> <div>▣ 쟁점 토론 :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의 주요 쟁점 정리</div> <div>· 진행 :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div> <div>· 주요 쟁점별 핵심 내용 정리 : 명칭, 목적, 회원자격, 조직도, 회비, 권한, 분과체계, 회의 등</div> <div>▣ 준비위원회 : 필요성과 권한 등 합의</div> </div>	퍼실리 테이터
	16:00~ 17:00	준비위원회 발족식	<div> <div>▣ 준비위원회 구성 :</div> <div>· 준비위원 선출</div> <div>· 역할과 권한 위임, 향후 일정 등</div> </div>	

3) 당진시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가칭) 설립 방향

(1) 당진시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가칭) 설립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 지속적인 공감대 확보 및 방향 토론 필요

- 행정직영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 겨울철 농한기에 제1회 마을대학을 개최하여 집중 심화학습 기회 제공
-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당진시지부의 참여를 바탕으로 협의회 설립을 주도하도록 요청하고, 설립 이후에는 귀농귀촌과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지속가능발전 등 관련 영역과의 협력관계 구축 : 차이를 존중하되 상호 협력하는 관계 설정

□ 협의회 설립 시 고려사항

- 향후 협의회를 조직할 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측면의 과제를 유념하여야 함

①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 자치단체 정책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면서 향후 방향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

② 정관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 합의 과정 추진

- 참여 마을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회원 마을의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
- 회원 마을의 특징과 희망 등을 고려하여 분과체계 구성

③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 농촌관광, 6차산업,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등의 관련 영역과 협력관계를 염두에 두고 일상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 모색

(2) 주요 쟁점별 검토 과제

□ 쟁점1 : 목적과 필요성

- “우리 마을이 왜 참가해야 하는가? 참가하면 무슨 도움이 되는가?” 마을의 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명확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이익, 명분, 재미의 3박자를 갖출 때 협의회 조직으로서 참가 필요성이 명확해지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음

① (이익) 마을별 ‘필요’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 필요

- 마을 사업의 경험 제공, 상담 : 궁금점, 애로사항 등 - 선배 마을의 경험 전수
- 새로운 사업 정보 : 농산물 판매, 농가공, 노인복지 등에 대한 행정 사업 정보 제공

② (명분) 지역사회 대표성과 공익성 확보

-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인지도 확산
- 설립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③ (재미) 마을 참가 방법론의 개선

- 의무감만이 아니라 참가하면 할수록 즐겁고 유익할 것
- 회의 운영방식이 민주적이고 재미가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유의
- 위와 같은 방향에서 “항상 참여하고 싶고, 참여를 권유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함

□ 쟁점2 : 책임에 따르는 권한 부여(확보)

- “협의회 회원으로서 참여하면 어떤 권한이 생기나? 더구나 회비까지 낸다면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회원의 책임감에 수반되는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음

① (책임) 개인이 아닌 마을 대표로서의 의무사항

- 마을 활동의 성실한 수행, 적극적인 회의 참여
- 회원 회비 납부(마을 기금), 협의회 공동 활동에 따른 분담금 제출 등

② (권한) 공공적 활동에 대한 행정 지원 성격

- 중규모 마을만들기 사업(1~5억원)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 상근 간사의 배치 권한 : 혹은 지원센터 상근자의 간사 역할 수행 명시
- 협의회 공동사업 지원 : 역량강화(해외연수 등), 농특산물 판매 등
- 회원 마을에서만 신청 가능한 사업 배치 : 현장포럼, 100만원 내외 소액사업 등
- 기타 협의회 내부 토론과 활동 경험을 통해 발굴
- 위 ②와 같이 ‘무보수 명예직’, ‘희생과 봉사’ 활동에 따른 구체적인 권한이 보장될 때 마을 대표로서의 권위가 생기고 지속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해짐. 대부분은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보장(지원)되어야 할 권한들임

□ 쟁점3 : 회원 자격 기준과 의무사항(벌칙)

- “회원의 자격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의무사항을 가져야 조직으로서 규율이 유지되나?” 협의회 회원이라는 점이 명예로워야 하고, 동시에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이 있어야 조직은 관리될 수 있을 것임

① (자격기준1) ‘마을’ 이름이냐?, ‘위원장’ 개인이냐?

- 초기단계 : 위원장 명의의 참여 중심으로 하되, 마을회의를 통한 참여 결정 요청
- 향후 : 위원장 개인이 아닌 ‘마을’ 이름으로 전환. 탈퇴시에는 마을총회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위원장 개인의 책임감 강조

② (자격기준2) 행정 사업과의 관계 - 역량단계별 참여 방식

- 기본원칙 : 충남도 희망마을 선행사업(1.5 단계) 이상의 사업을 추진중인 마을
- 향후 : 마을 수가 30개 이상이 넘어가면 2단계 이상 마을로 제한

③ (의무사항) 책임성 강조, 단계적 확대

- 회원 회비 납부 의무화 - 마을 기금에서 통장이체를 원칙
- 회비 6개월 연체 및 회의 연속 3회 불참 시 회원 제명 등
- 정치적 중립 : 개인 출마 혹은 선거운동 시에는 자진 탈퇴, 협의회 이름의 지지 금지
- 참여 자격은 가능하면 개방하되,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여 ‘문턱이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임

□ 쟁점4 : 조직형태와 체계([그림 3-13] 참고)

- “바쁜 사람 더 바쁘게 하는 것 아닌가? 옥상옥 조직이 되는 것 아닌가?”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참여 위원장이 덜 바쁘고 실용적일 수 있도록 조직 및 회의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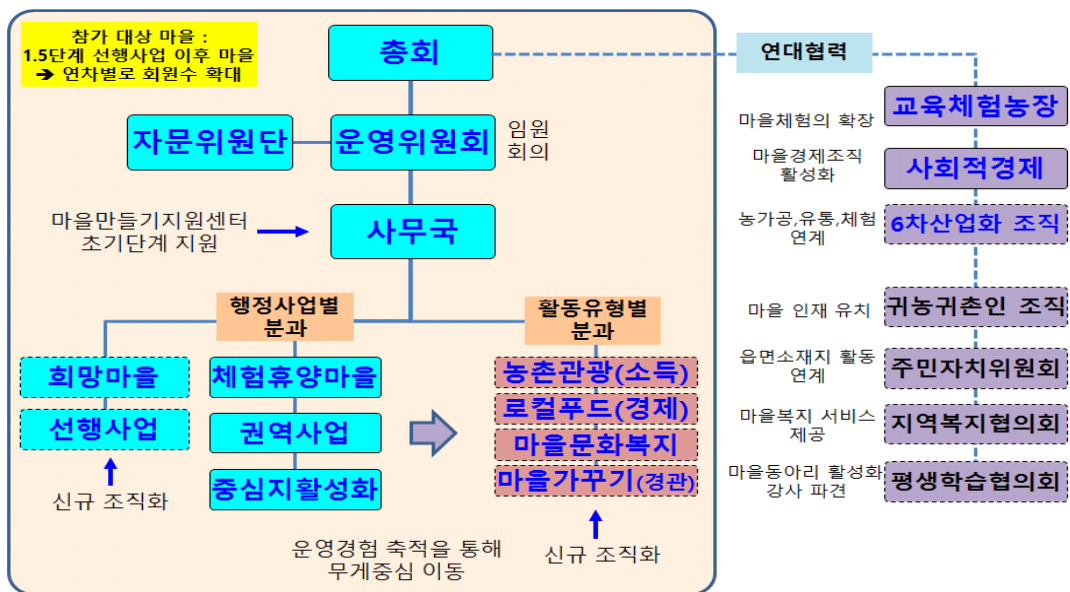
① (조직형태) 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 임의단체로 출발하되, 내부 합의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검토
- 법인화는 추후 조직역량이 충분히 강화되고 수익 영역이 명확해질 때 전환 검토

② (행정사업별 분과) 당분간 정체성이 유사한 마을끼리 연계

- ① 체험휴양마을분과 : 선배 마을 역할 - 대외적으로는 협의회 성격

- ⑥ 권역사업 + 중심지활성화사업분과 : 대규모 사업에 따른 집중
- ⑦ 희망마을분과 : 현장포럼, 선행사업 등 신규 진입 마을의 참여 경로
- ③ (활동유형별 분과) 꼭 필요한 활동 유형 정리 → 단계적으로 도입
- 마을 위원장의 관심 분야별로 접근 - 매년 재검토, 조정
 - ① 경제 사업, ② 복지 사업 영역을 우선 검토



[그림 3-13] 당진시 농촌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조직체계(제안)

- ④ (회의 체계) 전체회의 격월 1회, 임원회의 월 1회, 정기총회 연 1회 혹은 반기별 1회
- 당분간 전체회의 강화, 연 2회 이상 1박2일 워크숍 실시
 - 조직이 안정되면 전체 위원장은 격월 1회, 임원은 월 1회 방식으로 조정
- ⑤ (사무국) 초기단계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칭)가 일부 역할 분담
- 비상근 사무국장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되, 지속적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칭)의 협조를 통해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원 요청
 - 회원 연락, 회의록 작성, 회의장소 제공 등
 - 당장은 회원 마을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공공성 영역으로 지속적 확장 모색
 - 활동유형별 분과를 조직하여 마을 특색에 맞게 관심분야별로 분과체계를 유지하면서 운영 경험을 축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단 독립을 검토함(진안군 방식 참고)

□ 쟁점5 : 외부 협력단체 활성화 (앞의 [그림 3-13] 참고)

- 당진시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가칭)가 역량을 어디까지 발휘하고 어느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협의회 스스로 농촌관광이나 로컬푸드와 같은 소득(경제) 사업으로 확장해야 하고, 마을 단위의 문화 및 복지 영역도 지속적으로 개척해야 할 영역임
 - 농촌 마을만들기 활동의 특성상 협의회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관련된 외부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협의회 부담도 적을 것임
- ① 마을체험의 확장 : 농촌관광협회 회원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과 협력하여 추진
 - ② 마을 단위 경제공동체 조직화 지원 : 6차산업화, 사회적경제 영역과 협력하여 추진
 - ③ 마을인재 유치 지원 : 마을사무장, 귀농귀촌인, 청년창업 동아리 등과 협력하여 추진
 - ④ 기존 조직과의 연계협력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생학습협의회 등
- 현재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 논의 과정에서, 마을대학 방식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제3절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당면 과제

- (가칭)당진시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가 주도하여 농촌 마을만들기 영역 이외에 관련 영역과 협력하여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타 지자체의 경험임
-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2019년 7월중에 개최된 민-관 워크숍에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상반기에 다양한 학습과정을 전개하고 2차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임

1) 기본 방향 : 영역별 당사자 협의체의 구성과 역량 강화

□ 당사자 협의체 구성 방향

- 당진시는 당사자 협의체가 발전하지 못하여, 개별 마을이나 조직별로 문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충남 홍성군에 비해 당사자 협의체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미약하여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아래 [표 3-7] 참고)
- 개별 당사자 협의체가 발전해야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나 법인 설립도 원활할 수 있음. 이런 관점에서 개별 당사자 협의체 설립이 당진시의 가장 큰 핵심 당면과제라고 제안할 수 있음

□ 당사자 협의체 구성 영역

- 농촌 마을만들기 영역 : (가칭)당진시마을만들기(위원장)협회의 설립과 역량 강화
 - 2020년 1~2월 제1회 마을대학 개최를 통해 마을만들기 협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심화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정관 제정까지 완료
 - 직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의 사무국 역할 수행으로 조기 설립 모색
- 사회적경제 영역 : 연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 당진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의 조직 역량 강화 노력 : 2020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2회 마을대학과 연계하되,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사이의 공통분모와 차이에 대한 이해 필요
- 마을공동체 영역과 협력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에 대해 개별 조직 사이의 합의 도출
- 도시형 마을만들기 영역 : 신규 사업 도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조직화
 - 아파트공동체, 단독주택 단지 : 행안부 공동체 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충남도 주민 자치회 시범사업 등과 결합하여 조직화
 - 도시형 마을 조직과 농촌 마을 사이의 협력방안 모색(시범사업 전개)
- 주민자치 영역 : 읍면동 주민생활권 계획과 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 조직화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 예산제 등과 연계하여 농촌 마을만들기 활동 협력
 - 중심지활성화사업지역 : 읍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와 소재지 리더 등 당사자 중심으로 강력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조직화

□ 참고 : 홍성군과의 비교([표 3-7] 참고)

- 홍성군은 농촌 마을만들기 영역은 물론이고 농촌관광, 사회적경제, 귀농귀촌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민간조직이 활동중임. 또 홍성통이라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도 2013년 3월부터 조직되어 매월 1회 정기회의가 열리는 등 행정과 민간의 협력 활동도 매우 활발함
- 농촌 마을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은 2016년 9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11월에 민간 위탁이 결정되어,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됨.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2017년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자치단체 분야의 대통령상, 2019년 지방자치 거버넌스 대상 등을 수상함
- 당진시에서는 인근 홍성군의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일정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임. 특히 당사자 협의체 설립 및 역량강화,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및 법인 설립, 민관 거버넌스 홍성통 운영 등 전체를 보면서 당진시만의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임

[표 3-7] 당진시와 홍성군의 민간 조직 비교

구분	조직 정식 명칭	조례 명시 유무	조직 세부내용			비고
			설립(설치) 시기(년.월)	대표자 성명	사무실 주소	
당진시	1)민간 네트워크	○	2002.10	이○○	당진시 당진중앙로 59(구 군청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정 단체
		×	2015.11	송○○	당진시 무수동1길 11 새마을회관	
		×	2015.	조○○	-	
		×	2009.11	김○○	-	
		×	2018.12	김○○	-	충남도 법인의 당진시지부 성격
2)중간지원조직	청년센터나래	×	2017.11	지역경제과장	당진시 당진중앙로 59(구 군청사)	행정직영 센터
		×	2013.3	시장	당진시 구봉로 46 농업기술센터	행정직영 센터
		○	2011.3	시장	당진시 시곡로 264 농산물유통센터	행정직영 센터
		○	2015.4	안○○	당진시 읍내동 549-2(리모델링 중)	행정직영 센터
		×	2013.3	조○○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265-1	2018.7. 4대 회장 취임
홍성군	1)마을협의회	×	2013.3	조○○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265-1	2018.7. 4대 회장 취임
		×	2015.6	염○○	홍성군 장곡면 장곡길 628	희망마을, 사회경제, 권역, 농촌체험
		×	2012.5	정○○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68	희망마을, 사회경제조직, 귀농귀촌 등
		×	2011.5	전○○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30	체험휴양마을, 교육농장, 체험농가 포함
		×	2014	한○○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30	농촌체험, 귀농귀촌 분야
3)거버 넌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2011.8	부군수	홍성군청 경제과 고용정책	행정가사
		×	2013.10	부군수	홍성군청 건설교통과 농촌개발	권역 리더, 공무원, 전문가, 컨설팅기관 등
		×	2013.3	대표자 없음	홍성군청 농수산과	농촌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민간 주체
		○	2011.4	부군수	홍성군 장곡면 장곡길 628	당연직 공무원과 민간 리더, 전문가로 구성
		×	2011.1	주○○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68	홍동면 민선민영 중간지원조직
4)중간지원조직	마을활력소	×	2014.2	정○○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30	농촌체험관광협의회가 보조사업 운영
		○	2012.9	이○○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30	홍성군귀농인협의회가 보조사업 운영
		○	2016.11	염○○	홍성군 홍성읍 청운대학교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수탁
		○	2018.11	염○○	홍성군 홍성읍 청운대학교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수탁
		○	2018.11	염○○	홍성군 홍성읍 청운대학교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수탁

2) 민간 워크숍 개최 결과 :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

□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마을 리더와 민간 활동가를 대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필요성, 제도적 형태 등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향후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단초 마련
- 참가 대상 : 마을 리더 및 민간단체 활동가
- 일시/장소 : 2019년 7월 11일(목) 14:00~16:30 / 당진시청 중회의실
- 참석 인원 : 마을리더 및 활동가, 행정담당 공무원 등 25명
- 주요 프로그램

[표 3-8] 당진시 민간워크숍 진행 프로그램(2019. 7. 11.)

시간	내 용	비고
13:50~14:00	■ 참석자등록	
14:00~14:05	■ 인사말 : 지속가능발전담당관 ■ 참석자 전원 소개	
14:05~15:20	■ 강의 : 당진시 민관협치와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계 -정책동향에 기초한 당면과제와 향후 경로제안- ·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15:30~16:30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설치에 대한 토론	

□ 추진 내용 및 결과

- 주제 강의 “당진시 민관협치와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계-정책 동향에 기초한 당면과제와 향후 경로 제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충남도의 마을만들기 민관협치형 지원 시스템 구축 전략 및 당면과제 등에 대해 공동학습을 추진함.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과 역할 및 설치유형에 대해 학습하고 당진시의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들에 대해 살펴봄. 또 참가자 전원 소개를 통해 당진시에서 활동중인 다양한 풀뿌리 민간단체 상황도 확인함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경로로 1안) 통합형 재단법인 설립 방안, 2안) 민간 위탁 방안을 제안함. 또 2021년 1월을 설치 목표지점으로 정하고 역순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함. 단, 통합형 중간지원 조직 설치에 있어서 통합의 범위나 통합경로 등이 행정조직 개편 등과 연계되어 간단하지 않음을 확인함
- 향후 넓은 범위의 많은 민간단체와 행정이 함께 모여 지속적인 공동학습과 토론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함



[그림 3-14] 당진시 민간워크숍 진행 모습(2019. 7. 11.)

3)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방향 : 지속적인 토론과 합의 필요

- 아래 내용은 지속적으로 토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충남도의 정책 방향과 당진시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2020년 상반기 농한기부터 지속적으로 토론해야 할 내용으로, 토론의 학습자료로서 간단하게 제시함
- 본 내용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을 전제로 민간법인이 수탁법인이 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조직과 인력을 추정함
- 2020년의 주요 일정 제안에 대해서는 제5장 제1절을 참고바람

□ 형태와 명칭

- 기본형태 : 민간 네트워크와 수탁 법인의 '일치형' - 홍성군 사례 참고
- 명칭 : 마을만들기와 농촌관광,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청년 등의 영역을 포괄
 - 제안 : 당진시공동체경제네트워크(가칭)
 - 농촌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높은 가치로 두고 공동체경제를 지향점으로 제시한 명칭

□ 법인 구성방식과 형태

- 구성방식 : 관련 활동 영역의 구분과 대의원 방식 선출
 - 영역 : 농촌 마을만들기 + 사회적경제 + 농촌관광 + 귀농귀촌 + 도시재생 등
 - * 각 영역별 대의원 이외에 민간 전문가가 개인 자격이라도 참가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는 것이 향후 조직 운영에 매우 유리할 것임
 - 임원(=공동대표=수탁법인 이사) : 각 영역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동대표제 운영
- 법인형태 :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재단법인
 - 설립이 용이하고 조직 운영·관리가 편하다는 점에서 사단법인 권장([표 3-9] 참고)
 - 향후 발전 단계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검토

□ 법인의 주요 사업 : 정보 공유에서 출발하여 상근자 확보 이후에 단계적 발전

- 고유 사업
 - 핵심사업 : 단체 간 주요 정보 공유, 정책위원회(조례)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
 - 부대사업 : 연1회 공동체경제 한마당 행사, 연대협력 활동(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지역복지, 평생학습 등)
- 수익사업 : 계약에 의한 주민교육, 마을컨설팅, 조사 연구용역 등
- 보조사업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행정 지원사업
- 수탁사업 : 조례에 근거한 중간지원조직 수탁사업

[표 3-9]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절차 및 장단점 비교

구분	(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 관청) · 아산시 네트워크는 충남도 농촌마을지원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예)학술목적의 경우 교육부, 자선목적의 경우 보건복지부 등 ※지방행정관청으로 인가 신청 불가
담당 기관	· 각 주무관청이 정한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각 주무관청의 허가 요건이 상이한 점에 유의 (예)회원 수 100인 이상, 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 사업수행 실적 등 ※충남도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수탁법인에 대해 운영재산 5백만원 이상으로 완화	· 협동조합기본법이 정한 신청서류를 갖 추어 제출 ※모든 주무관청의 허가 요건 동일
필요 임원	· 발기인 2명 이상 · 일정 회원수 규모를 요구하는 경우 존재	· 발기인 5명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필수)
장점	· 상대적으로 빠른 허가 소요시간 (통상 1개월) · 비영리 목적에 따른 일부 세금공제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가능(사회적협동조 합도 동일 혜택)	· 공익을 추구한다는 대외적 당위성 갖춤 · 설립 기본 재산 부담이 없음 (예)1구좌 1만원씩 5만원도 가능 · 재정지원사업 수혜 가능성 존재(현재 직접지원제도는 없음) (예)서울시 경우는 지원제도 운영
단점	· 각 주무관청의 허가 요건에 따라 회원 수 나 운영재산을 맞추기 어려움 · 설립조건 충족이 어렵고, 회원규모 큰 경 우 정기총회 개최 등 운영 어려움 · 사회적기업 인증을 불허하는 추세	· 최종인가까지 시일 걸림(통상 3개월 이상) · 매년 경영공시 의무(회계년도 결산일부터 3개월 내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 홈페이지 공시. 위반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료 : 아산시 2차년도 연구용역보고서(2016.7), 59쪽

□ 운영예산 :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 출자금 및 회비 : 참가 조직의 매월 회비 → 법인 운영과 고유 활동 지원
 - 2019년은 법인 설립과 시범 운영 과정에 해당 : 비(반)상근 사무국장 시스템 유지
- 초기 1년간(2020년) : 도비 지원 수탁사업을 활용하여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성 강화

- 2년차(2021년) 이후
 - 위탁금 : ‘공공사무의 민간위탁’ 성격(공공성 사업)에 해당 - 약1억6천만원
 - ※ 향후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등 법 제도 정비에 따라 국비 지원 기대
 - 보조금 : 시·군역량강화사업(농식품부 3~5억원, 상근자 활동비 포함) 등
 - 수익사업 : 주민교육, 마을컨설팅 등 - 민간 계약을 통한 수익 확보

□ 상근 인력 규모 : 6~7명 추정 (사회적경제, 6차산업, 귀농귀촌 등은 별도)

- 지원센터 상근자 약4명(공공사업) + 법인 별도 채용 2~3명(보조사업, 수익사업 기반)
 - 지원센터 상근자 수는 행정 사업의 민간위탁 업무량에 비례
- 채용 원칙 : 지역 내 홍보 및 귀향자 우선하여 전문성 중심으로 공개 채용

제4장.

당진시 마을만들기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향 :

조례와 중간지원조직

제1절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현황과 향후 방향

- 당진시는 2019년 7월 15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부록1 참고),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공동학습을 위한 자료용으로 제공함
- 향후 민간리더와 관련 공무원, 활동가 등이 마을만들기 및 관련 조례에 대해 공동 학습을 통해 민관협치의 성격을 강화하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위해 본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함

1. 마을만들기 조례의 의미와 전국적 현황

1) 마을만들기 조례의 의미와 특성¹⁰⁾

□ 마을만들기 조례의 필요성

- 조례는 민관협력(거버넌스)을 통한 정책의 공동결정과 공동집행 과정을 규정하는 행정과 민간 사이의 약속으로서 각종 행정 사업 및 정책위원회 운영, 지원센터 설치 등의 근거가 되기도 함
 - 마을만들기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다양한 마을 사업이나 정책 결정과 추진, 지원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의 근거가 명확해짐
 - 조례는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이란 의미가 중요하며, ‘할 수 있다’는 유연한 표현보다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더욱 많아야 실효성이 큼
- 조례 제정은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는 과정을 밟아야 실효성이 있고, 지속될 수 있음
 - (1) 타 지역 사례에 대한 공동학습과 견학 실시
 - (2) 행정, 의원, 주민이 만나 공동학습과 합의의 과정 진행
 - (3) 지역 특성의 반영 :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 공유
- 타 선진지역의 사례를 참고할 때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함
 - (1) 행정 지원체계의 정비
 - 행정 총괄·조정 부서 설치(지정) 및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10) 이하 내용은 2015년부터 수행한 11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2019년 8월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 독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 근거
- 마을 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
- (2) 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3)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 - 민간위탁 및 운영비 지원

□ 관련 조례 유형 : 단독형과 복합형, 통합형과 분리형

-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는 조례의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특정 영역에 한정된 단독형(사업조례), 해당 영역과 관련성이 높은 복수 영역과의 관계성까지 반영하는 복합형(기본조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독형 사업조례** : 사업별 지원근거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제정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유사한 영역간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정책의 관점이나 방법론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복합형 기본조례** : 상당한 학습과정을 전제로 해야 제정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집행력과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학습과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합의수준도 낮고, 따라서 정치적 전환기에 쉽게 바뀔 수 있다는 단점도 나타남
- 조례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는 형태에 따라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 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조례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기본 규정만을 명시한 통합형에 해당함
 - **통합형 조례** : 이 경우에는 조례에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과 운영비, 그리고 공무원 파견 정도의 규정이 명시되는 정도에 그침. 설치 및 위탁에 대한 합의 정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정하기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임
 - **분리형 조례** : 통합형에서 발전된 형태로 기본조례와 별도로 분리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담아야 함.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이 큰 장점이지만 실제 마을 주민들까지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음
 - 분리형의 경우 도시재생 분야에 많고, 마을만들기는 전북 진안군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충남 서천군의 경우, 2014년 1월에 분리형의 조례(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못함

2) 전국의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현황

□ 조사방법

-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 2019년 8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분석함
- 키워드는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마을가꾸기, 지역공동체를 기본으로 함

□ 키워드별,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표 4-1] 참고)

- 현재 전국에 202개의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전체 자치단체의 2/3 이상이 제정되어 있는 셈임. 광역자치단체는 16개에 제정되어 있고, 도시 지역이 많고 농촌의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음
- 조례 명칭에 ‘마을만들기’는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많고, ‘마을공동체’는 도시 지역에 많이 나타남
- 도시지역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공동체 복원’ 등의 지원정책이 늘어 나면서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음

[표 4-1] 전국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현황 : 키워드별, 자치단체 유형별(2019.8. 기준)

구분	합계	자치단체 유형				비고
		광역	시	구	군	
합계	202	16	65	63	58	
마을만들기	74	4	31	15	24	광주, 충남, 전북, 제주
마을공동체	106	8	25	46	27	강원, 인천, 전남, 경북, 대구, 세종, 부산, 울산
마을가꾸기	2	0	2	0	0	
지역공동체	17	3	6	2	6	충남, 대전, 충북, 제주
기타	3	1	1	0	1	경기 ‘따복공동체’, 고양 ‘자치공동체’, 양평 ‘행복공동체’

□ 광역 지역별,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표 4-2] 참고)

- 서울시의 경우 모든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인천, 부산, 광주도 대부분 제정되어 있는 상태임
- 전북 진안군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와 더불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
- 충남의 경우, 2015년 3곳에서 2019년에는 총13개로 증가함

- 충남 광역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2012. 12. 31. 제정, 2015. 10. 30. 일부 개정(중간지원조직 조항 삽입)
- 충남 기초 : 태안군, 금산군, 계룡시 이외의 12개 시군에서 제정

[표 4-2] 전국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현황 : 광역 지역별, 자치단체 유형별(2019. 8. 기준)

구분	합계	자치단체 유형				비고
		광역	시	구	군	
합계	202	16	65	63	58	
서울	28	1	0	27	0	은평구, 성동구 각 2개
부산	12	1	0	10	1	
대구	8	1	0	6	1	북구 2개
인천	10	1	0	8	1	
광주	5	1	0	4	0	
울산	5	1	0	3	1	
세종	1	1	0	0	0	
경기	35	1	31	0	3	광주시, 여주시 각 2개
강원	13	1	5	0	7	
대전	6	1	0	5	0	
충북	10	1	3	0	6	
충남	13	1	7	0	5	
전북	16	1	7	0	8	진안군 2개
전남	23	1	5	0	17	광양시, 강진군, 영암군 각 2개
경북	4	1	1	0	2	
경남	12	0	6	0	6	
제주	1	1	0	0	0	

2.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 농촌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현황

□ 조례 개요

- 조례명 :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일 : 2019년 7월 15일(조례 제706호)

□ 당진시 조례의 주요 내용 : 표준조례안과의 비교

- 충남도는 2015년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남연구원의 연구 용역 자문과 각 시·군 마을대학 토론 등을 반영하여 ‘표준조례안’을 제안함. 표준조례안과 비교하여 장별로 당진시 조례와의 차이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표 4-3] 참고)
- 제1장 총칙
 - 목적과 정의에 마을만들기 주체와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나 표준안으로 제시했던 사회적경제, 연계가능한 타 분야의 영역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의가 반영되지 않음
 - 마을만들기 추진 시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일부만 반영되고 환경에 대한 배려와 상부상조 정신 계승,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등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음. 마을만들기 분야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조례 개정 시에 반영이 필요함
- 제2장 마을만들기 관련 계획과 행정의 지원체계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는 포함되어 있음
 - 하지만 ‘마을 역량단계별 지원체계’가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 향후 행정지원협의회(13조)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삽입하거나 규칙 혹은 지침을 통해 보완해야 함
 -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부서의 지정 및 운영 부분이 제외되어 있고, 이것은 조례에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활동의 성격상 매우 중요한 부분임. 향후 학습과정을 거쳐 충분히 검토해야 함
 - 행정지원협의회 설치 근거를 13조에 명시함.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핵심부서 중심으로 전담 ‘과’를 신설하고, 포함되지 못한 ‘팀’과의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2항에 규정된 것처럼 ‘규칙’을 제정해야 할 것임
- 제3장 마을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절차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단위 추진위원회 구성(9조) 규정만 있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민관협력이라는 마을만들기 기본 관점이 약화됨

- 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행정과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향후 공공성을 가진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함

[표 4-3]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기본 구성 : 표준조례안과의 비교

구분	표준조례안	표준조례안 반영여부*	비고
제1장 총칙	1조 ◦목적	○	
	2조 ◦정의	△	중간지원조직 미정의
	3조 ◦기본원칙	△	환경, 전통, 사회적경제, 소외계층에 관한 기본원칙 미반영
	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	
	5조 ◦시장의 책무	○	
제2장 마을만들기 관련 계획과 행정의 지원체계	6조 ◦기본계획	△	행정사업의 단계적 추진 미반영
	7조 ◦연도별 시행계획	△+α	중간지원조직 수위탁 및 예산 관련 사 항 미반영
	8조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 및 추진	X	당진시 고유사업 발굴 의무 제외
	9조 ◦행정 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	X	관련 사업 사이의 관계 설정 제외
	10조 ◦총괄·조정 부서의 구성과 운영	X	총괄조정부서 지정 의무 제외
	11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	
제3장 마을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절차	12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	
	13조 ◦마을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사업 신청	○	
	14조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X	마을 이외에 민간단체 지원 미반영
	15조 ◦지원신청 등	○	
	16조 ◦평가와 포상	○	
	17조 ◦사업비의 환수	○	
	18조 ◦형성재산의 사용	X	
제4장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	19조 ◦설치 및 기능	X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 설치 의 무를 명시하지 않음
	20조 ◦구성	X	
	21조 ◦임기	X	
	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X	
	23조 ◦위원의 해촉	X	
	24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X	
	25조 ◦회의 등	X	
	26조 ◦회의록	X	
	27조 ◦관계 부서의 협조	X	
	28조 ◦수당	X	
제5장 중간지원조 직의 설치 및 운영 등	29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	관련 영역과의 협력관계 내용 미반영
	30조 ◦지원센터의 업무	△	관련 영역과의 협력관계 유지 제외
	31조 ◦민간 위탁 및 운영	○	
	32조 ◦지도·감독	○	
	33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X	
제6장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3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35조 ◦준용	○	
	36조 ◦시행규칙	○	

주 : ○ : 전부반영 / △ : 일부반영 / X : 미반영 / +α : 내용 추가 필요

- 제4장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
 - 정책위원회는 마을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민관협치 차원에서 ‘정책의 공동생산’을 위한 핵심 기구에 해당함. 그러나 조례에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전부 반영되지 않음
 - 향후 시의회, 전문가, 마을위원장, 활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정책결정조직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 제5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 관련하여 14조~16조에 명시함.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음. 특히 위탁기간을 ‘5년 이내’(16조2항)로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 파견’(16조5항)을 포함한 것은 선진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유사 중간지원조직 정책 영역과의 협력 관계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2)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현황과 상호비교

□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일 : 2014년 12월 29일(조례 제408호), 도시재생과 소관
- 목 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당진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마을만들기 관련 내용 : 구체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주민협의체 구성, 전담조직의 구성·운영과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을 명시함

□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제정일 : 2012년 12월 31일(조례 제308호), 친환경농업과 소관
- 목 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당진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마을만들기 관련 내용 : 구체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일 : 2018년 11월 15일(조례 제661호), 기업지원과 소관
- 목 적 : 당진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복지·환경·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제1조)
- 마을만들기 관련 내용 : 사업조례 성격이 강하고 구체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사회적경제 전반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사업에 대한 육성 조례 성격이고, 중간지원조직 설치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들의 상호 비교

- 농촌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상호협력해야 할 정책 영역의 조례를 상호비교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표 4-4] 참고)

[표 4-4] 당진시 마을만들기 및 관련 정책 영역 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관리 부서	관련계획 수립 여부	행정협의회, 위원회 구성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	공무원 파견
1. 마을만들기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7.15. 제정)	건설과 (기반조성팀)	○ (6~7조)	○ (13조)	○ (14~16조)	○ (16조5항)
2.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12. 제정)	소통협력새마을과 (주민자치팀)	×	×	△ (7조2,4항)	△ (7조2항)
3. 도시재생 활성화및지원에 관한 조례 (2014.12.29. 제정)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 (5조)	○ (6~7조)	○ (6조3항)
4.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15. 제정)	기업지원과 (사회적공동체팀)	○ (5조)	○ (6조)	△ (19조)	×
5. 귀농귀촌인지원 조례 (2012.12.31. 제정)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팀)	×	○ (2장)	×	×
6.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2015.2.13. 제정)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	○ (3장)	△ (14조)	×
7.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016.4.29. 제정)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지원팀)	○ (4조)	×	△ (10조)	×
8. 청년기본조례 (2017.5.30. 제정)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 (2장)	○ (3장)	△ (17조)	×

- 관련 행정 업무 사이의 연계협력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조례에 일부 명시되어 있음
- 기본계획 수립여부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청년 등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도시재생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활성화 계획 평가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음
- 당사자 협의체 구성은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조례에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예 없거나 단일 사무 위탁 정도의 규정만 있음
-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는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영역에서 민관협치의 관점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 제정된 사회적경제 조례도 일부 반영되어 있음

3. 마을만들기의 통합형 조례 제정 필요성과 향후 방향(중장기 과제)

1) 통합형 조례의 필요성

□ 당진시의 도농통합시 특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방향 수립

-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도시재생 등 관련 영역간의 강력한 연대 및 협력 방안이 필요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조례가 필요함
- 특히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진시 공동체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여기에 대해 당진시의 중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합형 조례와 사업조례 협력 및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방향 수립

- 관련 정책 영역별로 행정 사업의 근거가 되는 ‘사업조례’를 제정하여 각각에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또 행정의 조직 개편으로 총괄·조정부서 조정 및 중앙부처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
- 당진시의 개별 사업조례에 근거하여 중간지원조직을 각각 설치하는 비효율적인 방법보다 중장기적으로 통합형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임

2) 통합형 지원센터 조례 제정의 기본 방향

□ 지역사회 공감대 확보

- 통합형 지원센터에 대한 지역공감대 형성과 당위성 확보
 - 통합형 지원센터 수립의 지역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 향상 등을 설명하여 지역공감대 형성
 - 통합형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검토, 강력한 연계 방안 명시
- 통합형 지원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협의 추진

- 통합형 지원센터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치와 학습 기회를 통한 지속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성이 필수적임

□ 특히 주민자치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통합형 조례 제정

-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지역공동체 사업 확대 및 주민자치 회로의 전환,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대표조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위탁사무처리(수익사업 수입 등 자체 재원 및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통합형 지원센터 조례 제정 시 고려사항

□ 관련 계획과 행정 지원체계의 구체화

- 관련 행정조직의 강력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형 총괄·조정 부서 지정
- 행정 사업 체계화와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명시
-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 사업 체계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내용 명시
- 통합형 융복합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절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등 명시

□ 관련 영역 종합검토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명시

- 각 정책 영역의 당사자협의체 사이에 일상적인 정보 공유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향을 제안
- 특히 행안부의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전환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 영역들이 융복합할 수 있도록 민-관, 관-관, 민-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방안 명시

□ 중앙정부의 '생활SOC'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간 플랫폼 확보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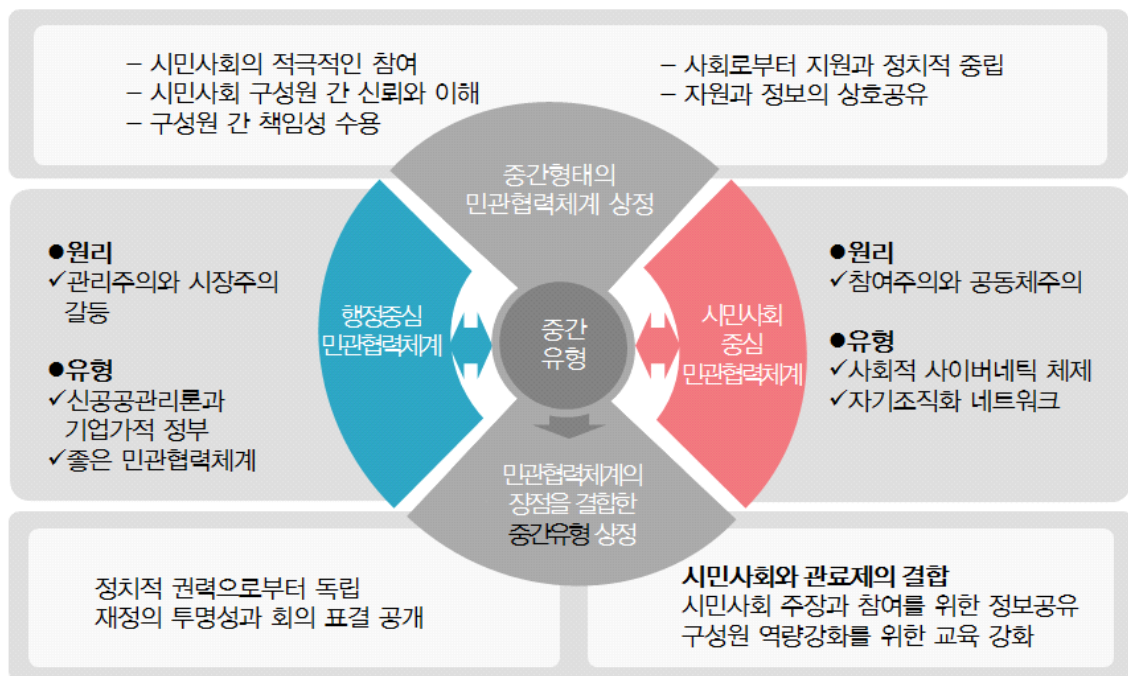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상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혁신 플랫폼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임. 또 공간 플랫폼 확보와 관련하여 생활SOC 리모델링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동향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 영역이 한 공간에서 정보공유와 학습의 장소가 되는 혁신플랫폼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제2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설치·운영 방향

1. 중간지원조직의 의미와 기본 모델¹¹⁾

1) 중간지원조직의 대두 배경

- 중간지원조직은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21세기에 들어와 강조됨. 행정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장점을 정책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임([그림 4-1] 참고)
- 운영모델은 매우 다양하며 민관협력(거버넌스)이 발달된 지역정치 상황에서 발전될 수 있음. 행정과 민간이 정책의 공동생산과 공동집행이라는 거버넌스 관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됨.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장이 전제되어야 함



자료 : 지역재단, 2019.5.1., 청양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최종보고 발표 ppt), 슬라이드 33쪽

[그림 4-1] 중간지원조직의 대두 배경과 성격

11) 이하 내용은 2015년부터 수행한 11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2)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장점)과 성격

□ **(밀착형 마을 지원)**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을 잘 알고 가까이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 행정 공무원은 순환보직제로 자주 바뀌고 마을을 수시로 방문하기 힘들기 때문에 복잡한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마을을 자주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갈 수 있는 민간 전문조직이 별도로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행정은 정책의 기획과 예산 확보, 집행 모니터링 등 고유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됨

□ **(문제의 근본적 해결)** 마을 문제를 종합 진단하고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밀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함

- 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경제, 6차산업,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예산 효율성도 증가함
- 마을과 행정, 민간단체를 연계하고 매개하면서 다양한 정보의 소통을 촉진하며 상호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음

□ **(지역인재의 유치)** 젊은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거나 귀향하여 고향 발전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점조직이 필요함

- 지원센터는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촌창업 등의 형태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할 수 있음
- 농촌사회에 부족한 전문적인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민과 전문가 사이의 상생 발전이 가능해짐

□ **지원센터의 3대 성격** :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1) 행정 사업이자 (2) 전문가 조직이며 (3) 사무실이 있는 공간에 해당함

-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고 조례에 규정된 업무의 전문적 집행 조직
- 마을만들기 정책의 민간 전문 연구소
- 농촌 지역사회개발의 거점 공간이자 민간 전담 창구

3) 지원센터의 기본 역할(조례 명시 사항)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기본 역할은 조례에 규정된 내용으로 공공성이 있는 행정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형식이 됨
- 조례 제정 및 수위탁 과정에서 다양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성격과 역할은 이런 과정의 오해를 극복하는 가운데 명확해질 것임

□ 기본적인 역할 : 농촌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 일상적인 마을 상담과 컨설팅
- 찾아가는 마을주민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상담과 프로그램 지원
- 마을 조사 및 분석과 정보 수집 및 정리
- 소식지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등

[참고]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3. 마을만들기 사업 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과 정리·배포
4.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지원
6.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마을만들기 조사 및 연구·분석사업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운영비(인건비)와 사업비 규모에 따라 할 수 있는 역할 상이

- 기본적으로 지원센터는 상근 인력과 사업비 규모에 따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큰 차이가 존재함. 이와 더불어 조례에 명시된 역할 범위에 따라 활동 영역에 제약이 존재함
- 향후 확장 방향으로 관련 정책 영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함
 - 1안(농촌정책 영역으로 확장) : 농촌관광(도농교류), 6차산업, 귀농귀촌 등
 - 2안(공동체 영역으로 확장) :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교육공동체 등

2.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유형과 장단점 비교¹²⁾

1)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관점

□ 중간지원조직 설치 유형

- 중간지원조직은 설치 주체 및 운영기관 형태에 따라 관설관영(행정직영), 관설민영(민간위탁), 민설민영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장단점에 차이가 있음([표 4-5] 참고). 하지만 지방자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민간의 자치력이 취약한 지역 현실에서 민설민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기본적으로 한국 지방자치 현실에서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은 **조례에 근거를 둔 관설민영의 유형이 가장 보편**타당함. 초기 설치모델로 관설관영(행정직영)에서 출발할 수 있음.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1) 행정 ‘사업’ 이자 (2) 전문가 ‘조직’이며 (3) 사무실이 있는 ‘공간’에 해당함

[표 4-5]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형태 비교

구분	관설관영(행정직영)	관설민영(민간위탁)	민설민영
설치주체	행정	행정	민간
운영주체	행정	민간(공개경쟁 선정)	민간
직원	공무원(임기제, 기간제)	민간 직원(전임)	민간 직원(자원봉사)
사업자금	행정예산	행정예산(위탁금) (수탁기관이 자체 수익금으로 독자사업 추진)	자체 자원 (일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
자유도	각종 법·제도의 규제를 받지만 안정적 운영 가능	수탁기관의 능력(전문성과 교섭력, 경제력)이 좌우	자유롭지만 재정적 불안정
장점	예산의 안정성과 연속성	관설민영과 민설민영 쌍방의 장점 가능	민간의 주체성 발휘
문제점	◦행정주도형으로 자율성과 창의성 부족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행정 지원 역할이 강조	◦위탁절차에 따른 정치적 문 제발생 가능성 ◦수탁기관의 재정적 불안정 존재	안정된 운영을 위해 높은 경영 감각 요구
한국 사례	광주 남구, 서울 금천구/도봉구/은평구, 아산시, 논산시 등	서울시(광역시), 서울시 성북구, 전북 완주군 등 대부분의 사례	전북 진안군, 홍성군 홍동면 마을활력소, 광주시 북구 시화문화마을지원센터, 서울시 자치구의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사업단

자료: 지역재단(2014)을 참고하여 수정·보완

12) 이하 내용은 2018년도에 수행한 3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 행정의 ‘정책적 인큐베이팅 관점’ 중시

- 중간지원조직의 수위탁은 제도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민간 법인이 지역사회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래서 행정이 정책적 관점에서 다양한 역량강화사업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수탁법인 설립 과정을 인큐베이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대두됨
 - 지역사회 내에서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공익활동, 사회적경제 등 전문 분야의 **민간 네트워크 법인**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 경험 축적 및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유도
- 또 행정직영으로 설치된 중간지원조직도 일정 기간 성장하는 과정을 적극 배려해야 함. 특히 지역 내에 마을만들기 활동가 인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내부 **상근자의 역량 강화와 성장과정**도 적극 배려해야 함
 - 광역 및 타 시·군 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상근자 간 경험 공유 및 시행착오 감소, 상호학습 등의 협력관계 구축
 - 상근자의 조직적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현장에 밀착된 전문가 조직의 양성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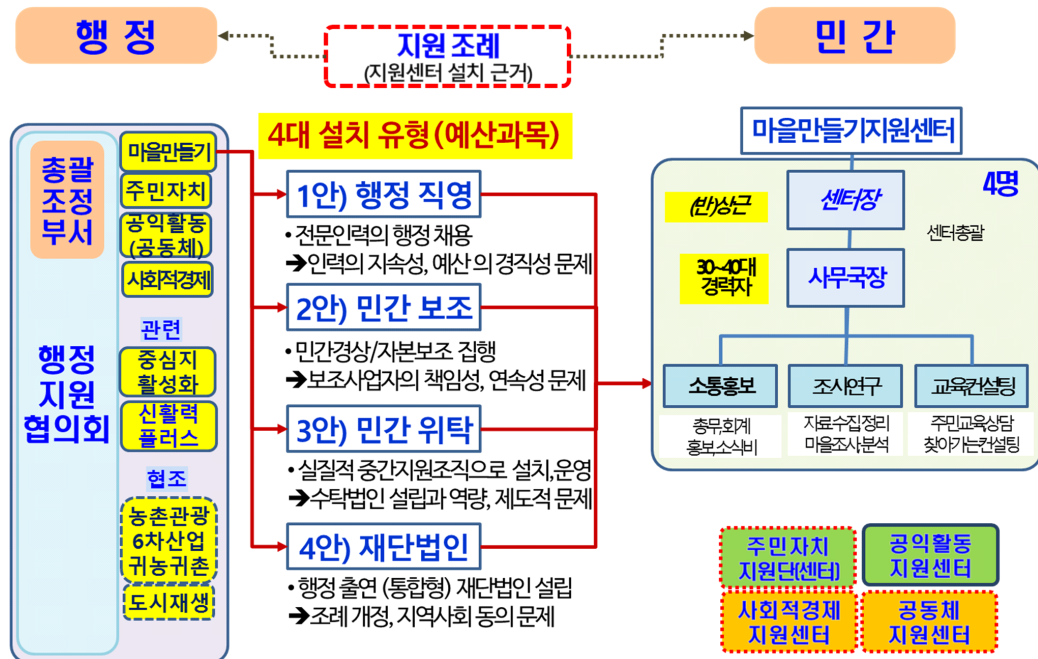
2) 당진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유형과 장단점 비교

□ 단일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4대 유형 : 제도적 형태와 쟁점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4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그림 4-2] 참고)
 - **유형1) 행정직영** : 전문인력을 행정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초기 정착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기간제 신분이므로 2년 후 공무원 전환 등의 문제와 예산 활용의 경직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음
 - **유형2) 민간보조** : 보조사업자 선정 타당성 및 책임성의 문제가 생기며,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함
 - **유형3) 민간위탁** : 행정조직개편을 전제로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수탁법인 설립도 비교적 용이함. 관련 영역간의 연계에 따라 소규모와

중규모로 설치가 가능함. 다만 수탁법인의 경영적 불안정성과,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될 경우 컨설팅업체와의 차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유형4) 재단법인** : 행정에서 출연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대규모 통합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영역의 융복합 및 조직의 안정성이 증대됨. 다만 행정조직개편과 업무협조체계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



[그림 4-2]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4대 유형과 장단점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의미와 유형

- 통합의 다양한 개념 구분
 - 공간적 통합 : 동일 건물내에 입주하여 협력 형태로 통합
 - 물리적 통합 : 같은 조직 내에 관련 사업 영역을 배치하여 협력관계 유지
 - 화학적 통합 : 하나의 조직 내에서 배치하되 업무 유형별로 통합하여 운영
- 통합형 설치의 전제사항과 방향
 - 행정조직 개편 : 하나의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통합형 설치가 가능
 - 통합형 조례 제정 : 통합 영역을 총괄하는 조직 설치 조례를 별도 제정
 - 물리적 통합 우선 추진 : 예산 출처가 상이하기에 정산이나 상근자 역량 측면에서 화학적 통합은 당분간 무리

- 중장기적으로 화학적 통합 모색 : 물리적 통합 운영 경험을 축적하면서 상근자 역량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화학적 통합 모색(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참고)
-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영역(범위)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행정직영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영역으로 계속 확대. 1차 채용된 상근자 1인의 역량을 통해 타 영역과 연계, 협력 강화
 - 공익활동지원센터 :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당진시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 신청하고, 시민사회 지원과 공동체 동아리 육성을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 최대한 빨리 행정직 영으로 우선 설치하여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2020년의 통합형 설치 논의에 따라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공동의 경로를 확정
 - 공동체지원센터 :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별도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능에 해당. 주로 도시형 마을 공동체 영역으로 특화된 업무 담당 검토
 - 주민자치지원단(센터) :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밀착하여 지원하고, 읍면동 단위의 관련 정책 융복합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 성격. 별도 공모사업은 현재 없지만 향후 행안부 및 충남도 정책과 연계하여 강력하게 대두될 것임. 당진시의 기존 활동 성과를 반영하여 별도 설치를 적극 검토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향후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것임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 1 : 재단법인과 민간위탁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2대 유형

- 재단법인형 : 100% 행정출연형, 민관 공동출연형 등 2개 유형이 있음
- 민간위탁형 : 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2개 조직형태를 가짐
- 장단점 분석과 단점 보완방안([표 4-6] 참고)
 - 2개 유형 모두 장단점이 있음. 당진시 실정을 반영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우선순위에 대해 2020년에 본 용역의 2차년도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재단법인의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별도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함

· 기본 방향 : 2020년 상반기에 공동학습 성과를 반영하여 우선순위 선택

- 지역사회 공동학습을 전제로 어느 유형이나 장단점이 있기에 민관의 합의 수준과 지역 역량에 따라 결정됨
- 민간위탁은 법인의 높은 전문성과 지역사회 대표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
- 재단법인은 시의회 동의를 기본으로 지역사회의 높은 합의 수준이 필요함
- 2020년 4~5월까지 민관의 공동학습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법인 유형 선택

[표 4-6]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¹ : 재단법인과 민간위탁

	재단법인형 (100% 행정출연형, 민관 공동출연형)	민간위탁형 (비영리 사단법인 · 사회적 협동조합)	비고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유리 •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조직 안정 • 전문직 상근자 채용 유리 • 다양한 정책사업의 안정적 출연 운영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자율성 확보와 역량 강화 용이 •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 용이 • 상근자의 유연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 • 수탁법인이 관련 영역에서 수익사업 및 보조사업으로 사업확대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의 역량이 운영성과 좌우 • 관계 행정부서와의 이해 상충 우려 • 조직 관료화 우려 • 정치적 오해와 ‘낙하산’ 인사 우려 • 다양한 사업 위탁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단계 수탁법인 이사회의 전문성 부족에 따라 행정 및 상근자와 갈등 상존 •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에서 수탁법인의 지속성 · 안정성 확보 곤란 • 민-민 갈등 시에 행정의 중재 곤란 • 상근자 고용의 불안정성 상존 	
단점 보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출연을 유도하여 민간 통제 강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의 적절한 조화 모색 (장래 수익 영역은 비정규직 운영) • 현재 공무원 근로자의 고용 전환 유도하여 행정의 비대화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인큐베이팅’ 관점에서 수탁법인의 성장과정 지원 • 민간위탁 제도 개선 : 위탁수수료 인정, 위탁기간 5년 보장 등 • 상근자 채용 가능한 인력의 집중 양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커뮤니티비즈니스재단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충남도 청양군, 부여군에서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전주도시혁신센터 • 도시지역 대다수 중간지원조직 	

자료 : 지역재단(2019.5.1.), 슬라이드 35쪽을 바탕으로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 2 : 공공사무의 수행방식 측면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공공사무’에 해당함. 공공사무 수행방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행정의 직접 운영과 간접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재단법인과 민간위탁은 간접 운영에 해당함
- 직접 운영도 행정의 일반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 중간지원조직을 행정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운영방식의 차이는 표면적으로 실질적 운영책임자에서 차이가 나타남. 직접운영 방식은 행정기관의 담당 팀장인데 반해, 간접운영 방식은 위탁조직의 대표로서 현장에 업무를 책임지는 자임([표 4-7] 참고)

[표 4-7]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 2 : 공공사무의 수행방식 측면

구분	직접운영 방식(직영)	간접운영 방식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 직영센터)	재단법인 설립	지방공사/공단 위탁	민간단체 위탁
의미	• 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여 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	•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자율 운영	• 각종 공공시설 통합 관장	• 정부가 민간에게 비용 지불
재원	• 지자체 예산 • 수입은 지자체 귀속	• 지자체 지원금 + 자체수입 • 수입은 자체예산 편성	• 지자체 지원금 + 자체수입 • 수입은 자치단체 귀속(공단)	• 지자체의 지원금 + 자체수입 • 수입은 자체예산 편성
서비스	• 공공	• 공공	• 공공	• 민간
인력	• 자치단체/공무원	• 재단이사/법인직원 (전문인력 채용)	• 공단이사/기관직원 (공무원에 준함)	• 민간단체 소속직원
책임	• 지방의회	• (직원)이사회 • (기관)자치단체/지방의회	• (직원)이사회 • (기관)자치단체/지방의회	• (기관)자치단체
업무 범위	• 공적 사업 수행 • 시설 운영	• 공공적 사업 수행 • 공공시설 운영	• 지자체 소유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 공공시설 운영
정부 통제	• 정부의 직접통제	• 정부의 간접 통제 • 운영 자율성 높음	• 정부의 간접 통제 • 운영자율성 미흡	• 정부의 간접 통제 • 운영 자율성 높음
근거	• 조례	• 조례/재단규정	• 조례/위탁규정	• 조례/위탁규정
실질적 운영책임자	• 담당계장(본청)	• 이사장(현장)	• 사장·이사장(현장)	• 이사장(현장)
업무담당자	• 현장관리인(현장)	• 담당직원(현장)	• 담당직원(현장)	• 담당직원(현장)

이미애 · 김재근(2015). 지방자치단체 문화서비스 운영방식의 성과 평가: 문화예술회관의 상대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4): 271-298. 청양군, 2019.10.14.,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 123쪽에서 재인용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 3 :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

- 지역주민 관점에서 보더라도 설치형태별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찾아 선택해야 할 것임([표 4-8] 참고)
- 마을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주민 주도, 상향식’을 강조하고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현장밀착형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여러 설치 형태 중에서 상호배제적인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관협치 역량이 발전하고 민간의 자치역량이 성숙되는 속도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설계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운영은 현실적으로 **민간위탁 혹은 재단법인**, 둘 중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임
 - 핵심은 행정의 의지와 지역사회 동의, 민간 역량 등의 조합을 통해 판단해야 함

[표 4-8]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 3 :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

구분		장점	단점
행정직영	자치단체 과·팀 / 일반직 공무원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복리증진 우선으로 공익성 확보 • 공무원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책임성 확보 • 사업중단이나 시설폐쇄 등의 가능성 낮음 • 재정 확충 용이(신규사업 및 시설 확충시 자원조달 용이) • 사업추진시 타 부서의 정책을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용자부담 서비스에 대한 저요금정책 유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축적 한계 • 새로운 사업 개발보다 기존 사업 유지 경향 • 합법성 우위의 행정기관 특성상 사업수행의 자율성과 탄력적 예산 활용 저하 • 공무원제도상 비탄력적인 인력운용 및 인적 구성의 경직성 • 환경변화에 비탄력적 대응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 사업성과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 사업수행 및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 • 사용자부담 서비스에 대한 저요금정책 유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한 사업 안정성 저하 •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에 접근하기 어려움 • 능력있는 전문가 채용 어려움 • 기간제 근로자 활용 시 행정기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 • 행정기관의 특성상 사업수행의 자율성과 탄력적 예산 활용 저하

구분	장점	단점
재단법인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및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전문인력 고용, 전문성 축적 여건) • 공공성 확보 및 사업수행의 합리성, 자율성, 탄력성 제고 • 사업수행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 • 지자체의 정책 구현에 유리 • 지역대표 허브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정부, 민간,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 가능 • 외부 인력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 지역활성화정책에 대한 장기적 접근 가능 • 시설, 사업의 통합 운영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한 독립성 유지 한계 • 상위기관 중심적 조직 운영 • 효율적 사업수행보다 안정성 동기 확대 • 조직의 관료화 경향 • 지자체 정책방향과 연계되지 못할 경우 정책 혼선 • 인력의 정규직화로 인한 비용부담 발생 • 조직·예산의 지속적 확대 요구 발생시 재정 부담 증가(추가 중간지원조직 재단 편입)
민간단체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전문성 보유 •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수혜자의 수요에 적합한 사업을 탄력적 운영 가능 •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여 성과향상 유리 •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함 • 관련 단체, 당사자 간 연계강화 및 적극적 참여 유도 • 공공부문 확대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성화정책에 단기적 관점 우선, 현재 필요한 사업에 초점 • 위탁단체가 정책전반을 담당할 경우 정책 이슈가 경도될 우려 • 위탁자 변경시 사업 내용 및 질의 안정성 저하(운영방식에 대한 관리부담 발생) •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전문성 훼손 가능 •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 발생 • 공공성 훼손 가능성 • 수탁주체에 대한 지자체 관리 어려움 • 시설물 관리의 부실
공사/공단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관리에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 용이(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 • 비용 효율성 우수 • 행정직영보다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 안정적 재정확충에 따른 사업수행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 • 공익성과 수익성 균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및 공동체 분야 사업개발 및 수행에 대한 전문성 낮음 • 계약에 의한 사업수행 및 시설운영으로 인해 책임한계 불명확 • 사업수행 및 시설운영에서 지자체로부터의 독립성 제약 • 관료적 비능률성 재현 가능 • 시설운영의 지방공기업 위탁방식 관행화, 서비스 질 제고 유도 어려움

자료 : 청양군, 2019.10.14.,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 134~135쪽 수정 보완함

제3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단계적 발전 전략

1) 당진시 농촌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3단계 발전 전략(제안)

-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4대 유형(앞의 [그림 4-2] 참고)과 향후 방향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당진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함

□ 1단계(행정직영) : 행정직영의 센터 조속 설치, 운영

- 행정직영 상태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특히 행정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등이 반드시 필요함
- 설치 초기부터 마을대학 등의 공동학습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후 경로를 결정함
- 통합형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에는 민간위탁 혹은 재단법인 설립의 두 가지 방향이 있음
- 정책 영역 통합의 범위는 행정조직 개편과 핵심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행정직영으로 운영되는 기간은 만 2년을 넘지 않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해야 함

□ 2단계(민간운영) : 재단법인 설립 혹은 민간위탁

- 1안(재단법인) :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행정과 의회, 지역사회 등의 충분한 합의가 핵심적인 판단사항
- 2안(민간위탁) : 전문적인 수탁법인의 존재가 핵심적인 판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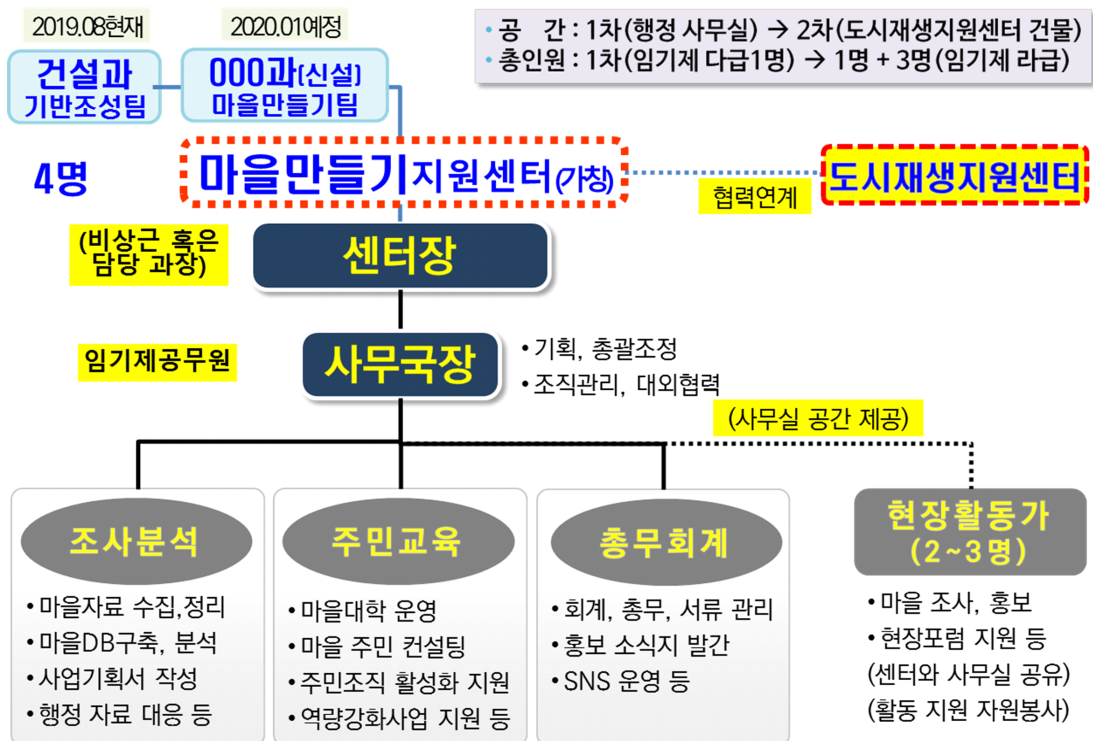
□ 3단계(안정화, 확장) :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

- 관련 영역의 유사 기능을 흡수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운영

2) 1단계(1~2년차)_행정직영 : 농촌마을정책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설치

- 2019년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행정직영 센터로 출발하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경험 축적 및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유도
 - 상근 인력은 행정의 임기제 공무원 1인 채용을 기본으로 출발하여 2020년에 추가로

- 2~3인 채용을 적극 요청함.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반상근 활동가 2~3명이 사무실에 상주하며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5장 참고)
- 2020년 본예산은 2018~19년, 2년간 이월된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2020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100백만원이 추가됨(도비:시비=3:7). 이 예산으로 최대한 센터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확보하고, 사업비는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예산을 활용(이월예산 포함)
 - 2020년 상반기에 총4명 근무 시스템 구축
 -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여 담당 공무원의 기안 및 정산 관련 실무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행정 내부와 민간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 담당
 - 사무실 공간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동일 공간을 공유하며 협력관계 유지
 - 행정직영 상태는 지역사회 합의와 상근자 역량, 행정조직 개편 등의 상황을 종합 판단하되, 2020년 12월을 목표로 역순으로 향후 일정을 합의하여 운영
 - 행정직영 상태에서는 인력의 연속성 문제와 예산집행의 경직성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함. 회계기간 도중의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그림 4-3] 당진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1단계 : 행정직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3) 2단계(3년차)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 1안 : 행정출연의 통합형 재단법인 설립 운영

- 행정이 출연하는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가칭)**을 설립하면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공익활동(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관련 영역의 융복합이 용이하고 ‘규모의 경제’와 예산 효율성이 증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정책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재단 설립에 필요한 행재정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재단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수행,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재단 설립 조례 제정, 시의회 동의 등
 - 재단의 정관과 업무 영역은 신설되는 전담 ‘과’ 영역을 기본으로 향후 미래 수요가 있는 관련 정책의 중간지원조직 영역을 미리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 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등은 지역의 공감대 형성 및 수요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지속성을 위해 효율적임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래 [그림 4-4]와 같이 5대 정책 영역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4-4] 당진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2단계 1안 :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가칭)

- 동시에 모든 센터가 설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총인원은 약35명으로 예상함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관련 업무가 신설되는 전담 ‘과’로 이관되지 않으면 업무 영역과 성과 관리, 지휘통제 등의 측면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음
- 중대규모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으로 상근직원들의 유동성이 낮아져 조직의 안정성이 증대되고, 각종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시행 가능
 - 향후 농촌 마을만들기 영역에서는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과 읍면 공간계획(중심지 활성화), 농촌복지, 한계마을 등에 관한 업무가 추가될 경우 인력충원 및 사무 공간 확보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음
 - 또 타 부서 업무로 어촌마을(체험, 사무장)과 푸드플랜, 청년정책, 도농교류(농어촌 관광), 귀농(어)귀촌 등의 업무가 출연금으로 지원되면 더 조직이 커져야 할 것임
- 여기에는 통합형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당한 수준의 민-관 및 관-관 합의가 요구되며,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됨
- 또 행정 내부의 업무협조체계가 잘되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되고 재단법인 내부의 업무도 충돌할 가능성이 클 것임. 여기에 내부 직원의 관료화 문제 및 비전문직 이사진과 상근직원 사이의 갈등 소지 발생 등이 초기단계에 우려됨
-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초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당진시 관내에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성을 갖춘 지역정책의 전문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당장은 신설되는 전담 ‘과’ 소관의 핵심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출발하고, 관련 영역의 협력관계 속에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음. 또 향후 중대형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프로젝트 집단으로서 각종 추진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2안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위탁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충남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음. 주로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주민자치 등의 정책 영역에서 2~3개 정도를 묶어 소규모로 위탁하는 사례가 있음
- 2020년 상반기에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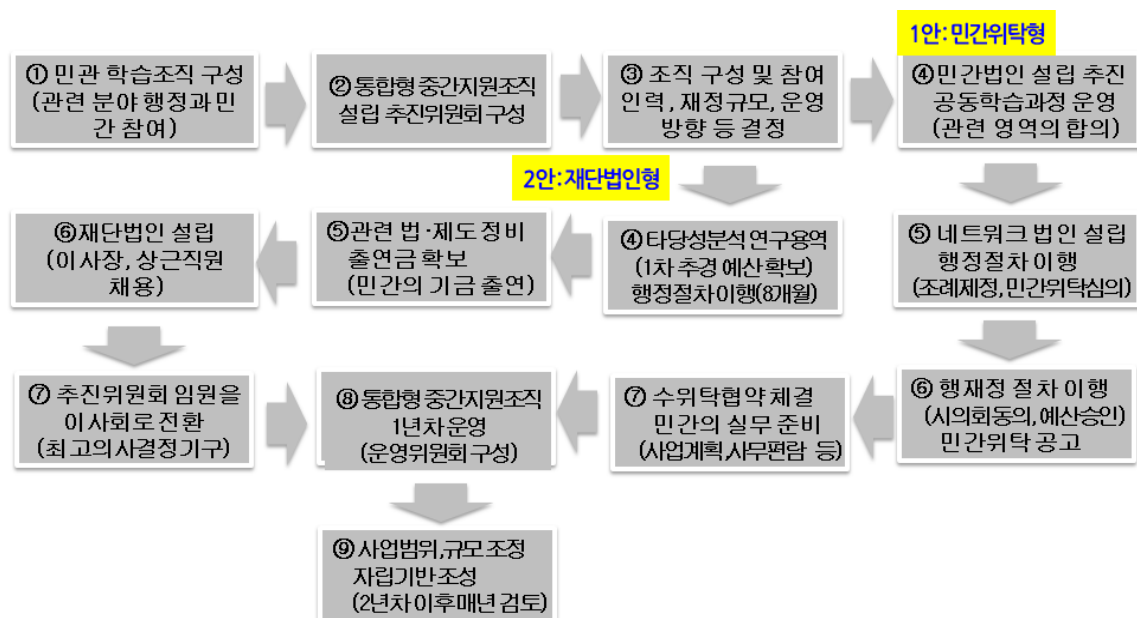
4)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1, 2안 비교와 설치 일정 검토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방안의 1, 2안 비교

- 1안 : 민간위탁형 - 충남에서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사례는 없음
 - 홍성군은 동일 법인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수탁 운영중
- 2안 : 재단법인형 - 청양군, 부여군이 설립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진행중
 - 청양군은 2019년 10월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조례 공포와 군의회 동의 및 예산 승인, 12월에 설립 실무절차 이행, 2020년 2월중 설립공고 일정으로 추진중임
 - 청양군은 푸드플랜과 마을공동체를 두 축으로 54명 규모의 재단법인 설립 예정임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향후 일정

- 당진시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1차적으로 2021년 1월을 목표 시점으로 하여 역순으로 일정관리를 할 것을 제안함
 - 2020년 상반기에 집중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반영하여 4~5월경에는 이후 경로에 대한 합의를 빨리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오히려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우려되기 때문임
- 아래 [그림 4-5]는 두 가지 안의 경로를 간략하게 개념도로 제시한 것임



[그림 4-5] 당진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절차 : 1안과 2안의 비교

5) 당면 제언 : 행정직영 센터의 조기 설치 및 운영

- 당진시는 행정직영 형식으로 지원센터의 조기 설치를 통해 운영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는 과정을 중시해야 함

□ 조직 형태

- 명칭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소속 : 건설과 기반조성팀. 향후 조직 개편 이후에는 이관
- 인력 구성 : 총4인(센터장 혹은 사무국장 1명, 팀원 3명) - 임기제 공무원 신분

□ 운영 예산 : 충남도 공모사업 예산 활용

- 충남도 공모사업 예산 : 총320백만원(2017년도 160백만원, 2018년도 160백만원)
 - 3년차 이후에도 행정직영의 경우는 도비 30백만원, 민간위탁인 경우는 도비 60백만원 지속 지원 예정(3:7 매칭 원칙)
 - 당진시는 3년차 이후에 해당하는 2020년 예산으로 시비를 100백만원 이상 매칭하여 상근인력을 확장할 것을 제안함(보령, 홍성, 예산, 천안 등 사례 참고)
- 인건비 : 사무국장 및 팀원 등 4인 확보
 - 충남도청 인건비 지출 가이드라인(개정 예정)에 준용하여 활동가로서 채용
- 사무실 확보 및 리모델링 : 2018~19년 도비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추진
 - 구 당진군청 앞에 있는 구 농협 건물(읍내동 549-2)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 입주하여 협력관계 확보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층 사용.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4층에 입주. 3층 강당은 공동 사용.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 발주하여 12~3월 공사 완료, 4월에 입주 예정
- 사업비 : 기본사업에 충실
 - 도비 지원 예산에서 부족한 사업비는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 사업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집행
 - 컨설팅 기관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경험을 전수받으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주요 역할과 성격 : 센터의 기본 사업

- 농촌 마을만들기의 정책 집단 : 다양한 정보 조사와 프로그램 지원, 마을 조사 및 분석과 정보 수집 및 정리

- 일상적인 주민교육과 컨설팅이 가능한 **현장 전문조직** : 일상적인 마을 상담과 컨설팅, 마을 맞춤형 교육 실시 등 현장에 밀착된 지역 상주 전문가
-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매개자** : 소식지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등을 통한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 및 교류 활성화 지원

□ 중간지원조직의 상근자 채용 일정 제안

- 2019년 9~10월 :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1인 우선 채용, 경험 축적
 - 사무국장 혹은 팀장 형식으로 우선 채용하고, 그 이후에 팀원을 채용하는 2단계 방식을 제안함
 - 11월에 채용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근무 시작
 - 행정직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1인 운영 시작. 채용된 1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2단계 채용 방향 수립
 - 2020년 1월중에 추가 채용 공고, 3월중에 근무 시작
- 2020년 4월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식
 - 2020년 1~2월중에 마을대학 운영을 통해 사전에 공동학습 진행
 - 2020년 3월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시청에서 사무실 이전
 - 센터 개소 이전에 마을대학 창안학교 방식으로 특색있는 내부 인테리어 추진
- 2020년 중반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업무 분장
 - 사무국장(1명) : 센터 총괄, 행정 협의, 조직관리, 대외협력,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조사분석(1명) : 마을조사,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마을 사업 자문 및 상담 등
 - 주민교육(1명) : 리더 육성 및 활동가 발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총무회계(1명) : 회계 및 행정, 홈페이지 및 SNS홍보, 소식지 발행 등
 - 기타 : 사무실 내에 공유공간을 제공하여 현장활동가 2~3명이 상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제5장.

종합평가와 2020년 사업 제안

제1절 종합평가와 향후 방향

1.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1)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공감대 구축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해도 향상 :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의 과정 지속

- 한국 지방자치 현실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현실적 성격과 위상은 매우 모호하고 불안정함.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조직 개편과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함
-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의 정책 시스템을 둘러싼 전반적인 제도와 현실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함. 특히, 행정뿐만 아니라 시의회, 민간 영역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 당진시는 민관협치의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임. 설치의 필요성과 성격, 의미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율적인 설치 방식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전제될 때 중간지원조직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강화 : 공동비전 모색

- 당진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조속 설치하고, 운영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해야 함. 중간지원조직 설치만으로 지역사회 발전이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님. 결국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공동목표를 명확히 할 때 향후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민간 네트워크 강화, 통합형 조례 제정 및 중간지원조직 향후 경로 설계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당진시는 주민자치 정책의 선진적인 경험을 통해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이런 경험을 계속 발전시키고 민간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농촌 마을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의 중요성 인식

□ 농촌마을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

-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농촌 마을의 문제는 대개 동일함. 하지만 그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에서는 인식 차이가 매우 큼.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전달하는 정도로는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해야 함
- 농촌 마을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의 과정이 매우 중요함. 임기응변적인 미봉책으로는 당면한 현장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차원에서 업무 조정이나 조직 개편,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이 우선되어야 함
- 당진시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농통합시임. 농촌 마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형 마을만들기와 연계하고 다양한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융복합해야 함. 농촌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외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이유임

□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기 : 포기할 수 없는 공동과제

- 농촌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행정의 고유한 역할이고, 행정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이유이기도 함.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면서 행정과 민간단체가 외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가시적 성과 도출 차원에서 행정 지원체계 정비, 민간 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등이 요구됨. 또 행정과 민간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이 강하게 결합되어야 함
- 당진시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고 도시형 마을만들기를 활성화시키면서 농촌 마을(행정리)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함.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라는 관점에서 농촌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충남도에는 농촌마을정책의 선진적인 경험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음. 타 시군의 경험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함

3)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조기 설치와 운영 경험 축적

□ 지원센터의 조기 설치와 운영 모니터링 : 가시적 성과 조기 도출

- 2019년 11월경에 행정직영의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1인이 채용될 예정임. 1인으로 작게 출발하지만 운영 경험을 축적하면서 2020년 1월중에 추가 채용 공고를 적극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함
- 2020년 1월부터 제1회 마을대학을 개최하고, 4월의 개소식을 준비하는 등 지원센터 운영의 가시적 성과를 단계적으로 도출해야 함. 다양한 마을리더와 활동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을 홍보하고 위상을 높여야 할 것임
- 이런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의 성과와 과제를 의회와 협력하여 공동 모니터링을 한다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고 ‘정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지원센터 운영 경험의 확산 : 재단법인 설립 혹은 민간위탁 절차로 이행

-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기반이 형성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음. 지역사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때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의미 등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임
- 타 영역의 민간단체나 중간지원조직 등과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또 관련 기관·단체가 한 공간에 입주하여 상호협력하는 공간적인 통합을 중간단계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임
- 향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통합범위 및 경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 상반기의 운영 실적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작용해갈 것임
- 이 때문에 지원센터 1인 체계로는 가시적 성과 도출도 운영경험 축적도 도저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에서는 4인 체계로 조기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2. 당면 과제 및 주요 일정

1) 기본 일정 : 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 행정직영 센터의 조기 설치와 운영 경험 축적

-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1인의 행정직영 센터로 우선 출발하되, 2020년 1월중 추가 채용공고 및 3월중 근무 시작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2020년 4월에 행정직영 센터로 정식 개소하여 운영하되, 향후 경로에 대해서는 1~3월중에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지역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제1회 마을대학을 1~2월중에 개최하고, 우선적으로 마을리더 및 활동가의 발굴과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설립에 집중
 - 마을대학과 별개로 2~3월중에 정책워크숍, 창안대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사무실 환경 정비와 개소식을 준비
- 2020년 상반기의 지속적인 토론과 지역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 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방향에 대한 합의도 쉬울 수 있을 것임(본 영역의 2020년 2차년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건을 제안하고 토론하고자 함)

□ 중간지원조직 통합 범위 및 경로 결정을 위한 지역 공론화 : 민-관 합의 중시

- 농촌마을에 국한된 중간지원조직으로 3인 내외 상근 시스템으로는 성과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또 행정직영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또 당진시 지역 현실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수탁·운영을 위한 민간법인 설립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20년 상반기에 농촌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에 중점을 두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당사자 협의체를 조직함
- 2021년 1월에 재단법인 설립 혹은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목표 시점을 정하고 역순으로 추진함. 2020년 5월까지 지역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의 범위와 중간지원조직 경로(재단법인 설립과 민간위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함
- 공동학습과 토론을 통해 도출되는 민관의 합의 결과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그림 5-1])과 민간위탁([그림 5-2])으로 경로가 나뉘게 됨

2) 행정 지원체계 정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 기본방향

- 2020년 1~2월 집중 관리 : 전담 ‘팀’ 신설과 인사이동 등으로 매우 혼란스런 시기에 해당함.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고 타 지역의 경험을 빨리 흡수해야 함
- 농촌 마을만들기 전담 팀의 기능 강화 : 농촌 마을공동체 정책의 업무 조정을 통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인력 보강,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추가 채용 등
- 신설 ‘과’의 업무연찬 강화 : 그 동안 칸막이 속에서 업무가 집행되어 이질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초기 단계에 업무연찬을 수시로 시행. 먼저 도입한 청양군, 서산시, 공주시, 논산시 등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흡수
- 행정 업무협조체계 구축 :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업무협조체계 강화. 특히 전담 ‘과’ 설치 후에 2020년 행정 사업의 주요 내용과 협력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워크숍 개최
-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2차년도 연구용역 활용 :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향, 향후 경로 등에 대해 집중 컨설팅

□ 주요 일정

- 2020년 1~2월 : 마을만들기 전담 팀의 2020년 사업내용에 대한 업무 숙지 강화. 제1회 마을대학 개최, 마을리더 및 활동가 발굴 등 집중 추진
- 2020년 2월 : 행정지원협의회 1차 회의 개최 - 2020년 정책방향 및 기본 사업 공유, 농촌정책 관련 업무 조정 협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2020년 4월 : 행정직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정식 개소식 개최
- 2020년 5월 : 지역공론화의 결과를 토대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범위 및 운영 방향 결정(재단법인 설립과 통합형 민간위탁 등)
- 2020년 하반기 : 위 결정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필요에 따라 행정조직 소폭 개편. 특히 재단법인 설립의 경로가 결정되면 전임자 업무량을 조절하고, 집중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2020년 9월 : 행정지원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2020년 추진성과 공유, 2021년 사업방향 및 예산 사업 협의

3)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본 방향

- (농촌)마을만들기 협의회 설립 : 농촌 마을만들기의 당사자 협의체로서 제1회 마을대학 개최와 역량강화사업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협의회 설립을 적극 지원
-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민간단체 사이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행정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민간의 대표조직 설립 지원
 - 참여영역 : 농촌마을,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교육공동체, 지속가능발전 등
 -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행정에서 ‘정책적 인큐베이팅’ 관점에서 접근. 통합형 재단법인이 설립될 경우 이사회에 민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임될 수 있는 조직에 해당
- 행정은 민간의 자치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민관협력의 공공성 측면에서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접근. 민간은 지역리더로서의 안목을 키우고, ‘차이의 극복’을 통해 지역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관점이 필요. 행정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

□ 주요 일정

- 2020년 1~2월 : 제1회 마을대학에 적극 참여,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논의
 - 마을만들기의 애로사항 공유, 공동해결을 위해 당사자협의체 설립 필요성을 공유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
 - 마을대학 수료식에서 협의회 설립 준비위원회가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2020년 3~4월 : (가칭)당진시마을만들기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2020년 6~7월 : 제2기 마을대학 개최, 민간 네트워크 구축 관련 공동학습 진행
- 2020년 하반기 : 5월까지 지역공론화의 결과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경로가 결정 되면 이에 따라 민간의 역할이 달라지고 향후 일정의 완급 조절이 필요함. 특히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결정되면 법인 설립과 사업계획서 및 사무편람 준비 등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해짐

4) 당진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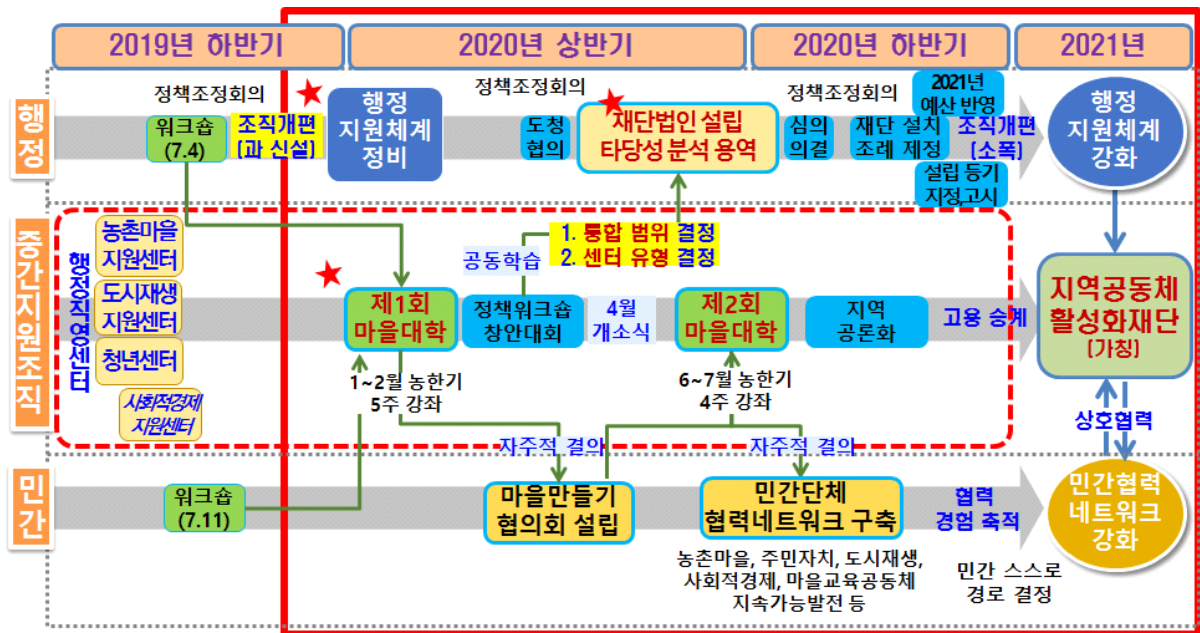
□ 기본 방향

- 민관합의 도출 : 2020년 5월까지 민관 공동의 정책워크숍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경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공동학습과 합의의 수준에 따라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성과도 결정될 것임
- 행정의 주도적 역할 중시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운영, 행재정 절차 이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특히 신설될 예정인 전담 ‘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업무 숙지와 협조체계 구축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중간지원조직의 활동도 원활해질 것임
- 중간지원조직 상근자의 역할 강화 : 행정직영 센터를 우선 개소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경로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숙지하면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2021년 1월의 민간 독립을 위해서는 역순의 일정으로 빠르게 결정해야 할 것임. 2021년 1월에 재단법인 설립 혹은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목표 시점을 정하고 역순으로 추진함. 2020년 5월까지 지역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의 범위와 중간지원조직 경로(재단법인 설립과 민간위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함
 - 목표 시점을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1월로 정하면 추진일정의 완급 조절이 더욱 편함. 하지만 늦어질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점을 잘 고려해야 함
- 앞의 일정 제안을 모두 종합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도를 제안함([그림 5-1], [그림 5-2] 참고)

□ 1안 : 통합형 재단법인 설립의 경로([그림 5-1] 참고)

- 통합형 재단법인 설립으로 결정되면 행정의 역할이 매우 많아짐. 추경 절차를 거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해야 하고, 행정의 전담자 지정과 도청 협의, 시의회 동의, 조례 제정 등의 행재정 이행사항이 아주 많기 때문임
- 여기에 대해서는 청양군과 부여군에서 2019년에 시행한 연구용역 경험을 전수 받고, 또 인근 서산시의 현안과제(충남연구원) 성과를 공유하기 바람

- 민간에서는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과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예정된 경로로 일정을 추진하면 되고, 비교적 시간 여유를 두고 추진할 수 있음. 다만 재단법인 설립 논의에 참여하면서 이사진 구성, 기본재산 출연, 사업내용 협의 등을 추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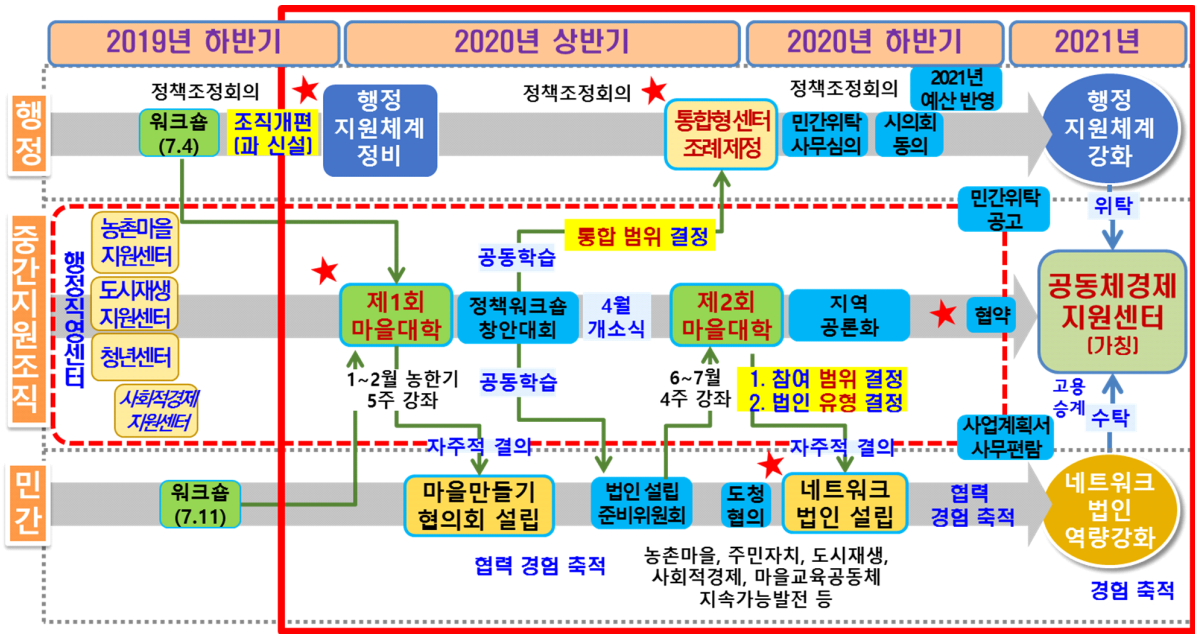


[그림 5-1] 당진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일정 1 : 통합형 재단법인 설립 경로

□ 2안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경로([그림 5-2] 참고)

- 재단법인 설립과 반대로 민간위탁의 경로로 결정되면 민간의 역할이 매우 많아 짐.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범위에 포함된 영역의 당사자협의체와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네트워크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임
- 충남의 시군 중에서는 천안시,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그리고 서천군에서 네트워크 법인이 설립된 경험이 있음. 각각의 민간법인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설립되었기에 설립의 절차나 구성, 운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당진시의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제1회 마을대학을 마치고 3월중에 조기 설립하고, 지역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 논의를 5~8월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9월중에는 설립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해야 함
- 민간 네트워크 법인은 회원과 이사회, 행정 및 시의회 등과의 협력경험을 축적하면서 12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사무편람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

- 행정은 9월까지 조례 제정, 민간위탁사무 심의, 시의회 동의, 2021년 예산반영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그림 5-2] 당진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일정 2 : 민간위탁 경로

제2절 마을만들기 2020년 사업 제안

- 2019년 농식품부 마을만들기 사무의 지방이양(1단계)에 따라 2020년은 이를 반영하여 당진시의 독자적인 농촌마을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도기에 해당함
- 당장 시급한 2020년도 마을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함

1.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의 기본방향

□ 신규사업 발굴 자제, 기존 사업 리모델링 중시

- 행정의 업무량이 많고 중간지원조직 설치 1차년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사업의 신규 발굴은 기본적으로 자제하고, 기존 사업의 리모델링을 우선하여 추진함. 그래야 행정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협업도 활성화할 수 있음
- 제한된 지방재정 여건에서 기존 업무의 일몰과 병행하여 신활력플러스 등 신규 국도비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정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함

□ 민관의 공동학습 강화, 행정과 민간의 역할 분담 추진

- 민관의 공동학습을 통해 기존의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일몰사업 및 신규사업을 단계적으로 계속 발굴함
- 행정이 지원해야 할 일, 민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추진함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유지, 소액사업 중시

- 행정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행정사업의 체계화를 통해 마을이 역량단계별로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함
- 단발성 대형 프로젝트보다 인재육성, 콘텐츠 발굴, 공동체 육성 등 파급효과가 높고 주민주도성이 강화될 수 있는 소액 프로그램 사업을 중시함

□ 지역 인재 육성과 외부 유치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 행정사업(특히 대규모 국도비)을 활용하여 민간 인재와 조직이 육성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하면 공공일자리 사업을 적극 결합함
- 지역 내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조기에 역량강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함

2. 2020년 주요 신규 사업 제안

1) 농식품부 역량강화사업과 공모사업을 연계한 체계 구축¹³⁾

□ 기본방향 :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공모사업 연계

- 마을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개념과 연계하여 각종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공모사업을 연계하는 당진형 표준모델 개발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충남도 희망마을 선행사업, 중대규모 하드웨어 구축 지원사업 등의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연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 각종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모든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이 전제 된다”는 관점을 정립해야 함. 또 집합식 교육에서 최대한 벗어나 ‘실천학습(액션러닝)’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 마을이 소액 실행사업을 통해 훈련과정을 반복하여 중·대규모 하드웨어 사업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설계 필요
- 다양한 주민교육사업과 공모사업을 연차별(로)·역량단계별(로) 적절하게 연계한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현장포럼, 희망마을선행사업, 중규모 마을만들기, 대규모 마을만들기 등)
- 마을만들기 활동은 마을 리더 및 공동체 발굴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결합하고, 소규모 사업을 거쳐 하드웨어 기반 구축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치면 대략 5~6년의 시간이 소요됨
 - 5~6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이런 과정을 거쳐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선진지 사례의 경험이기도 함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기반한 모델 개발(앞의 [그림 2-16] 표준모델 참고)

- 1년차 : 읍면 순회설명회, 마을대학(기초과정)을 통한 마을 리더 및 활동가 발굴, 일상적인 상담과 컨설팅 등 추진

13) 이하 내용은 2017년에 수행한 5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로 당진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청양군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교육 방법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함

- 2년차 : 현장포럼 추진 - 단, 기존의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조직도 정비, 마을규약 정비, 공동재산 관리, 회계 관리, 회의 진행 등 기본에 충실한 내용으로 재정비
- 3년차 : 창안학교를 통한 소액사업 선정 및 평가, 추진
 - 1~2월 농한기에 마을단계별 교육 및 공개발표 후 심사를 통해 소액사업 선정 단계로 진행
 - 현장포럼, 희망마을 1단계 수료 마을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 및 컨설팅 진행
 - 마을발전계획 교육 및 계획서 수립 : 기초교육(2회), 계획서 작성법(1회) 교육 이수 후에 주민 스스로 계획서 수립하여 제출
 - 사업계획 공개발표 : 전문가, 참여자의 교차심사를 통해 선행사업 대상 마을 선정
 - 창안학교 결과를 통해 행정리 마을 대상의 생활공동체사업(10개 이내), 소득사업 동아리 대상 경제공동체사업(5개), 문화복지 동아리 대상 취미동아리(5개) 등 선정
 - 소규모 선행사업 :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활용하여 5백만원 이하의 소액사업 추진
 - 연말에 ‘공동체 한마당(가칭)’의 형태로 공개적인 성과발표회 개최. 차기년도 사업 (충남도 희망마을선행사업, 충남광역마을동아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 평가에서 탈락한 마을이라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교육컨설팅을 계속 지원하여 다음 연도에 창안학교 재도전하도록 유도
- 4년차 : 희망마을선행사업 마을 선정 및 사업 진행
 - 전년도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마을이나 공동체에 대해 충남도 희망마을 선행사업(최대 30백만원 이내) 추진 기회 부여
 - 컨설팅기관이나 중간지원조직 수탁법인 등이 밀착지원하여 마을의 비전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험 축적
- 5년차 이후 : 국도비 지원의 중·대규모 마을만들기 사업에 도전
 - 마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쉬었다가 도전할 수도 있도록’ 전체 마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 반드시 하드웨어 구축이 필요한 마을에 한정될 필요가 있고, 그 동안의 실패사례에 대한 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
 - 하드웨어 시설 관리 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법인화까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도전 기회 부여

□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공모사업 연계를 위한 영역별 참여 및 역할 점검

-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공모사업 연계 전제조건으로 행정, 지원센터, 민간(법인, 협의회 등)의 참여 및 역할 점검이 중요함
 - 행정은 총괄·조정 부서 역할을 하고, 행정지원협의회 활동으로 업무 간 협조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의 추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창안학교 운영에 집중하여 다음 단계로의 추진을 적절히 유도해주는 방향 제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당진시의 2020년 행정 사업 구상 : 재정분권에 따른 계획안

- 시비 자체 소액사업 : 자체 계획 없음 - 마을가꾸기 등 별도 검토 계속
- 현장포럼 : 2020년 신규 마을 10백만원*3개소=30백만원(100% 시비)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 예정
 - 마을당 예산규모나 사업내용 등에 대해 별도 검토 필요
- 농식품부 역량강화사업을 활용한 소액사업2 : 별도 예정 없음
 - 마을 단위 소액사업, 동아리 육성사업 등은 농식품부가 장려하는 사업에 해당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상근인력 총원 및 역량 강화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 검토
- 충남도 희망마을선행사업 : 도청에 6개소 신청 상태
- 농식품부 역량강화사업 : 2020년 70백만원 신청, 20백만원 결정
 - 2020년에는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추진 예정
- 중규모 마을만들기 사업 : 100백만원*2개소 신청중(100% 시비)
 - 2020년 농식품부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평가 순위가 낮아 100백만원만 지원 예정
- 대규모 마을만들기 사업 : 자체 지원계획 없음
 - 충남도의 2020년 예산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

□ 충남도 타 시군과의 비교

- 충남도 시군 대상으로 2020년 사업구상을 조사한 결과, [표 5-1]과 같이 나타남

- 당진시는 마을만들기 소액사업이 없고,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도 상대적으로 취약함
- 이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행정의 담당 부서(기반조성팀)가 이미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으며, 또 이월예산이 많다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향후 2020년 사업추진과 2021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충분히 반영해야 함

[표 5-1] 재정분권에 따른 충남도 시군의 2020년 마을만들기 사업구상 현황(2019.09. 기준)

시군	소액사업	1단계 현장포럼	1.5단계 선행사업	2단계 중규모 마을사업	3단계 대규모 마을사업	비 고
천안시	○	○	○	○	—	
아산시	○	○ (사후포함)	○	○	—	
논산시	○	○	○ (자체사업 포함)	○	—	
홍성군	○	○	○	○	—	
예산군	○	○	○	○	—	
보령시	○	○	○	○	○	
서천군	○	○	○	○	○	
청양군	○	○	○	○	—	
태안군	—	○	○	—	—	해수부관할
금산군	○	○ (사후포함)	○	○	—	
당진시	—	○	○	○	—	
부여군	○	○	○	○	○	
공주시	○	○	○	○	—	
서산시	—	○	○	○	○	
계룡시	—	—	○	○	—	

2)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 - 신규사업

□ 사업 취지

- 마을 및 읍면을 순회하면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안내 및 참여, 조직체 구성, 학습회, 동아리 조성, 리더 발굴 및 육성 등 마을만들기의 지역 기반 조성
- 마을과 마을 주변의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업체 연계를 통해 사업진행에 대한 연대 의식 함양, 상호 이해와 발전방안 모색 등을 통해 조직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읍면 단위로 마을만들기의 기본적인 이해를 강화 하고, 관련 기관·단체 사이의 협력 시스템 구축

□ 사업 개요

- 일시/장소 : 농한기에 수시 개최/마을회관 혹은 주민자치센터
- 소요 시간 : 2~3시간
- 참가 대상 : 마을 리더 및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 성격 : 마을만들기 리더 및 활동가의 발굴과 기초과정 교육
- 주관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활동가 지원)
- 협조 : 읍면 단위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 주요 내용

-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 사업 및 우수사례 소개
- 마을 컨설팅 :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경험과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의견 수렴
- 마을만들기 맞춤형 교육 : 해당 마을 및 읍면의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진행

□ 2020년 예산 : 약1천만원(10개 마을, 읍면)

- 2020년 1년차 : 농식품부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추진
 -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2020년 추경 확보 혹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표 5-2]와 [사업2]-(2) 참고하여 예산 확보
- 소요 내역 : 개소당 1백만원 - 강사비, 보조인력(활동가) 수당, 다과비 등

3) “우리 마을 가꾸기” 소액 경관사업 : 고유 독자사업 신규 도입

□ 사업 취지

- 마을가꾸기는 마을을 주민 스스로 깨끗하게 가꾸어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 공동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단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마을만들기의 출발점에 해당함
- 주민 스스로 마을가꾸기 관련 계획 및 실천, 유지 방안 등을 수립하는 과정 및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 경관 정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
- 농민수당 논의와 연계하여 농촌 마을을 지키는 활동 자체의 공공성을 존중하여 마을수당 개념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원하는 마을에는 모두 지원 검토

□ 사업 내용

- 마을경관가꾸기 : 우리 동네 청소의 날, 꽃길 조성 및 가꾸기, 마을게시판 설치, 벽화 작업, 설치미술 등
- 마을 공동시설 정비 및 관리 : 마을회관,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 농업생산기반시설 가꾸기 : 소류지, 용배수로 등에 대한 풀베기 작업, 유지관리
- 우리 마을 가꾸기 관련 주민 역량 교육

□ 추진 방향

- 주민들이 기획하고, 합의 및 결정 과정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정산
-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행정통·리 단위로 추진
- 14개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장밀착형 지원 시스템 구축
- 행정 및 센터 역할
 - 마을 전담 팀 : 행정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관련 사업과 연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신청 접수 및 관리, 우수사례 발굴 등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마을가꾸기 매뉴얼 제공, 자문 및 컨설팅 등 실무 역할 수행

□ 사업 예산

- 2020년 1차년도 시범사업 실시 후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방안 모색
- 사업 예산 : 총100백만원
 - 배분사업 : 14개 읍면동 * 5개소 * 마을당 1백만원 = 70백만원
 - 기타 예산 :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전문가 자문 등 1식 30백만원

4) '공동체 한마당(가칭)' 행사 – 신규사업

□ 사업 취지

-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귀농귀촌, 지속가능발전 등의 정책 영역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공동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네트워크 강화 기반 마련
- 각 단체별 유사 행사의 결합으로 예산 절감 및 인력 동원의 부담감을 낮추며 민-관, 민-민, 관-관 상호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 사업 개요

- 일시 : 11월 농한기 개최
- 사업 기간 : 농업인의 날과 연계, 2~3일에 걸쳐 유사 행사를 연속적으로 배치
- 주최 : 당진시
- 주관 :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가칭) 등 관련 기관단체가 조직위원회 별도 구성
 -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보조사업으로 개최
- 참가 대상 : 약4백명(주민과 활동가, 공무원 등)
 -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 마을
 -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공동체 사업 참여자, 교육체험농장 등
 - 충남 및 타 시군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및 관계자

□ 주요 내용

- 개막식 및 기조강연
- 연간 활동성과 보고회 및 우수 마을 심사
 - 농촌현장포럼 진행 마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동체 관련 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등
 - 공동체 우수 사례 선정을 통해 표창 및 차기년도 사업 지원 검토
- 각종 교육 및 토론회, 심포지엄, 마을 및 공동체 전시회
- 문화 공연 및 공동체영화 상영, 농민장터/체험 등 이벤트
- 마을 순회 방문 : 벽화, 박물관, 공공미술, 적정기술, 농가공 등 주제별 순회 방문

□ 사업 예산

- 기본 예산 : 약2천만원(공동행사를 위한 인건비와 무대설치, 공연, 기자재 임대 등)
- 주민교육, 행사 및 이벤트 등 관련 사업 예산과 연계하여 추진

3. 2020년 이월사업 활용방안 제안

1) 2019년 이월 예정사업 현황

□ 2019년 예산사업 현황

- 당진시의 2019년 예산사업 중에서 특히 중간지원조직 및 농식품부 역량강화사업 관련하여 집행중인 예산 현황은 [표 5-2]와 같음

[표 5-2] 2019년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예산 현황과 집행 상황 분석

정책	사업목	세부사업명	예산액 (천원)	비고	정리추경 반영 방향	비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019년 본예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인건비)	100,000	전액 잔액	[사업1]	임기제 1명 채용 현재 인건비 지출과목 확인 필요
	연구용역비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60,000	전액 잔액	[사업2]	
시군역량 강화 (2019년 본예산)	연구용역비	지역인적자원 육성 용역	110,000	전액 잔액	[사업3]	순수 연구 + 현장 활동가 확보
		프로그램 개발운영용역	60,000	전액 잔액		활동가 발굴 + 기초조사 + 향후 정책 방향 정리
		네트워크구축 용역	10,000	전액 잔액		민간조직화
		홍보마케팅 용역	30,000	사업 완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019년 명시이월)	사무관리비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30,000	전액 잔액	[사업4]	
	공공운영비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5,000	전액 잔액		
	행사운영비	중간조직지원 공동사업비 (마을대학, 창안대회, 공동체교류, 워크숍)	33,000	전액 잔액	[사업5]	
	연구용역비	통합형중간지원조직 구성 용역(과목경정)	20,000	전액 잔액	[사업6]	2차년도 연구용역 수행
	시설비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리모델링(과목경정)	50,000	집행중	[사업7]	

주1) 2019년 정리추경 반영 방향의 세부 내용은 본문 참고

주2) 2020년 시군역량강화사업(농식품부)은 20백만원으로 확정

- 각각의 행정 사업은 2019년 정리추경에서 변경하여 2020년 사업으로 이월이 필요한 상황임. 본 연구에서는 정리추경에서 반영해야 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과 변경 사업을 제안함

□ 2019년 정리추경 반영의 기본방향

- 이월된 예산사업의 체계적 활용
 - 약478백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예산을 충실히 활용하여 2020년에 마을 만들기의 정책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반)상근활동가 인력 다수 확보
 - 당진시의 행정직영 중간지원조직은 상근자가 1인 체계에서 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2차 채용공고를 통해 근무 시점도 빨라야 2020년 4월로 예정함
 - 이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실에 같이 상주하면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활동가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임
- 개소식과 연계한 프로그램 사업 충실 수행
 - 2020년 4월로 예정된 개소식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개소식 자체가 매우 성대하게 개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이월사업을 활용한 2020년 행정 사업 제안

[사업1]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인건비)

- 100백만원 전액 명시이월
- 2020년 주요 사업 예시(인건비가 불필요한 경우)
 - (1) 시설비 : 20백만원 (시설 리모델링 후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구입)
 - (2) 민간경상보조 : 20백만원(창안학교 우수사례 지원. 평균 5백만원*4건)
 - (3) 민간자본보조 : 20백만원(창안학교 우수사례 지원. 평균 5백만원*4건)
 - (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40백만원(1~2명 채용 예상 예비비 성격)

[사업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연구용역비)

- 60백만원 [연구용역비]로 전액 명시이월. 3회 분할, 수의계약 집행
 - (1) 마을대학 2회 운영 : 1~2월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6~7월 네트워크 법인 설립
 - 제1회 마을대학 프로그램은 3장 2절 참고
 - (2)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 : 2~3월, 읍면 순회 마을만들기 교육

[사업3]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2019년 본예산 사업)

- 180백만원 잔액은 연구용역비로 전액 명시이월
- 지원센터의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한 (반)상근 활동가 확보에 집중
- (1) 110백만원 : 마을자원 조사 - 컨설팅사 계약, 현장연구원 2명 채용
 - 읍면 순회 마을만들기 자원(명인, 명소, 명물) 발굴 조사 사업
 - 충남연구원 조영재 박사 연구와 결합하여 마을 모니터링 성격으로 추진
- (2) 20백만원 : 마을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도시민 대상 모집, 마을해설사 교육, 스토리텔러 활동 지원
 - 마을활동가 발굴 성격. 스마트폰 활용 밴드 글쓰기 강조(홍보 강화)
- (3) 20백만원 :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DB 구축 및 배포자료 제작(1월중)
 - 당진시 농촌마을 대상의 다양한 행정 사업을 발굴 정리하여 배포
 - 충남 센터 발간 『길라잡이』 자료집 참고
- (4) 20백만원 : 농촌 마을만들기 읍면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2~3월중)
 - 읍면 단위 국도비 공모사업 실적 및 예상 리스트 발굴, 지도화 작업
 -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에 대비한 예비작업 성격
- (5) 10백만원 : 마을 네트워크 구축 숙박 워크숍(2박3일)
 - 마을리더, 활동가 대상의 읍면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11~12월)
 - 2회 마을대학 이후에 핵심리더 대상의 집중 워크숍 성격

[사업4]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35백만원 잔액은 현재 예산과목 그대로 전액 사고이월(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업무용 차량 렌트, 사무실 컴퓨터/비품 구입 등에 활용
- 타 시군의 행정직영 센터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활용

[사업5] 중간지원조직 공동사업비(행사운영비)

- 33백만원 잔액 전액은 2개로 분할하여 2019년 11월까지 계약하고 사고이월 집행
- (1) 1~4월 개소 준비 창안학교 : 22백만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2) 4월 개소식 기념 행사 : 11백만원, 정책 워크숍 + 개소식 행사

[사업6]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구성 용역(연구용역비)

- 20백만원 전액을 2019년 11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집행 추진
- 충남연구원(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2차년도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
- 연구기간은 2019.12.~2020.07.로 추진

[사업7]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리모델링(시설비)

- 50백만원 전액을 2019년 11월 계약을 통해 집행하고 사고이월로 2020년 3월까지 집행 완료 예정
- 부족한 리모델링 예산은 [사업1]에서 20백만원 정도 추가 확보 필요

[사업8] 2020년 충남도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업

- 2020년 중간지원조직 지원 도비 사업은 총100백만원으로 예정(도비 30, 시비 70 백만원)
- 아래와 같이 집행할 것을 제안함
 - (1) 최대한 인건비(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하여 집행 : 2인, 80백만원
 - (2) 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

제3절 2020년 2차년도 연구과제 제안

1) 주요 내용 : 1차년도 연구성과 모니터링 및 자문, 신규 과제 제안

(1) 행정 지원체계 강화 방향 제안

- 전담 ‘과’ 및 ‘팀’ 신설에 따른 업무 협의 및 향후 방향 제안
- 조례에 따른 행정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향 제안
-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방향 제안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향 제안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민관 설명회 개최 지원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상담, 방향 제안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 역량강화 방안 제안

(3)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과 운영

- 당사자협의체로서 마을만들기협의회의 설립과정 자문 및 모니터링
- 제1회 마을대학 개최와 연계하여 주요 쟁점 소개 및 합의과정 도출
- 마을만들기협의회 역할과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제안

(4) 통합형 지원센터의 설치 및 민간 독립 경로 제안

- 신설 전담 ‘과’의 역할과 연계하여 통합형 지원센터의 필요성, 설치방향 등 제안
- 통합형 지원센터 설치의 2대 경로(재단법인,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 제안
- 통합형 지원센터의 설치 사례 분석과 당진시의 향후 경로 제안

(5) 재정분권에 따른 당진형 마을만들기 독자 사업 제안

- 마을만들기 사무 이양,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 등 농식품부 정책 동향 분석
- 타 시군의 특색있는 농촌마을정책 사례 분석
- 당진시의 향후 독자적인 농촌마을정책 방향 제안

2) 추진방향

(1) 수의계약 추진 :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연구 경험 활용

- 충남도 13개 시군에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사례와 비교하여 당진시 방향 제안
-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축적된 연구 경험 활용
- 전국적으로 재단법인 설립 및 민간위탁, 행정직영 등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한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당진시의 향후 경로에 대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성 제안

(2) 연구기간 : 2019. 12. ~ 2020. 7.

-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전담 ‘과’ 및 ‘팀’의 연착륙 과정을 집중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진행
- 1~2월 제1회 마을대학 개최와 연계하여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과정을 집중 지원
- 6~7월 제2회 마을대학 개최와 연계하여 민간 네트워크 구축 혹은 법인 설립의 방향까지 제안
-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자문 등 진행

(3) 연구 추진체계 : 당진시 내부의 역량강화에 적극 기여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와 공동학습 과정을 병행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노하우 전수
- 당진시의 1~2회 마을대학 진행과 각종 연구용역 등과 연계하여 마을 활동가 및 리더 발굴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타 시군의 경험을 적극 소개
-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관련 정책 영역과 연계하여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컨설팅 진행

참고 문헌

1. 일반 논문 및 도서, 보고서

- 구자인, 2013.3., “마을만들기 ‘새로운 10년’의 핵심공간,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전국적 현황과 전망』,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시리즈40
- 구자인, 2014.6., “마을만들기의 네트워크, 그 특성과 방향”,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한국마을만들기지원센터협의회,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 사이 넘어, 결핍은 네트워크로 메운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시리즈56
- 구자인, 유정규, 곽동원, 최태영, 2011.12., 『마을만들기, 진안군의 10년 경험과 시스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시리즈20,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편집
- 당진시, 2017.9.,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경영(조직)진단 용역』 (충남연구원 수행)
- 청양군, 2019.10.,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충남연구원 수행)
- 청양군, 2019.5., 『청양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지역재단 수행)
- 충남발전연구원, 2014, 『충남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점검과 개선방안 연구』 (2014년도 전략과제, 지역재단 수행)
-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7.12, 지도로 보는 충남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 충청남도, 2015, 『충남도 및 각 시·군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시스템』 (사단법인 마을엔사람 수행)
- 충청남도, 2018.2.,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행정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마을사업 한번에 파악하기 길라잡이 2019』

2. 충남연구원(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수행 유사 연구용역 보고서

- 공주시, 2018.12., 『2018년 공주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금산군, 2017.12., 『2017년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금산군)』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금산군, 2018.10.,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논산시, 2015.12., 『논산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설립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논산시, 2016.12., 『논산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연구용역』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보령시, 2016.8., 『보령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보령시, 2017.9.,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부여군, 2018.12., 『2018년 부여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방안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서천군, 2016.11., 『서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서천군, 2017.9., 『서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아산시, 2015.12., 『아산시 마을만들기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1차)』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아산시, 2016.7., 『아산시 마을만들기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2차)』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예산군, 2015.12., 『예산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설립』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예산군, 2017.3., 『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방안(2차년도) 연구용역』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천안시, 2015.12., 『천안시 마을만들기 지원협력시스템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연구』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천안시, 2016.12., 『천안시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2차년도)』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청양군, 2016.9.,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1차년도)』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청양군, 2017.12.,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2차년도)』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태안군, 2016.12., 『태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과 중간지원조직설립 및 운영방안 (1차년도)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태안군, 2017.12., 『태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2차년도)』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홍성군, 2015.12., 『홍성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홍성군, 2016.9.,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정비 학술용역』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3. 각종 행정문서 자료

- 당진시청, 2018.8., 『준공지구 역량강화(제1기 마을대학) - 거버넌스 구성 운영』
- 당진시청, 2018.9., “2018년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및 인력채용계획(방침)”
- 행정안전부, 2016.12.28., “2017년 지자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자치제도과-4908)
- 행정안전부, 2018.5.10.,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3호)”
- 기타 3농혁신대학 마을만들기과정, 마을만들기충남대회, 시·군 중간지원조직 워크숍,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등 발표 자료
- 기타 충남도청 및 지역혁신추진단 등 각종 회의 자료, 시·군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출자료

4. 기타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 자료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agriculture>)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 공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보령시청 홈페이지(<http://www.brcn.go.kr>)
-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dangjincity4430>)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http://www.dangjin21.org/>)
- 당진시청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및 각종 회의록, 자료집, 내부자료

- 당진청년센터 나래 홈페이지(<https://www.dangjin.go.kr/narae.do>)
- 미디어 당진(<http://media.dangjin.go.kr:8080/web/>)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inanmaeul.com>)
- 청양군청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홈페이지(<http://www.충남6차산업.com>)
- 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홈페이지(<http://uccpr.kr/2019/fervs/>)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sechungnam.org>)
- 홍성군청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kor.do>)

부 록

부록

부록1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록2 충청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부록 1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7.15 조례 제7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마을만들기의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
3. 마을만들기의 특색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방향

4.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5.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마을만들기 사업 범위 및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주민 및 공무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진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거나 시범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선정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와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쓸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3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의 각종 행정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3. 마을만들기 사업 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과 정리·배포
4.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지원
6.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마을만들기 조사 및 연구·분석사업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민간 위탁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9.7.15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충청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사군	총괄·조정부서	중간지원조직	행정과 민간의 추진상황
천안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공동체팀 (사회적경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2016. 8.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센터장 + 상근 인력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과 마을만들기TF팀 설치(2016.1.)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제정(2016.5.) 마을만들기팀 승격(20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팀장1, 팀원1), 팀원1(임기제 채용검토) 업무 병합 노사공동체팀 신설(2017.4.)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공동체팀으로 담당부서 전환(2018.7.) 민간 네트워크(사단법인) 설립(20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연구소 상근 1명) 천안시 농촌 마을만들기협의회 발족(2018.4.) 제6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 연기(2020.6.-7.)
아산	사회적경제과 마을만들기팀 (사회적경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지원센터 (행정직영) 2015. 7.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제 팀장 2, 공무원 팀원 2 아산어울림경제센터 (2층)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과 마을만들기팀 신설(2015.1.)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2016.9.)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예정(2019.하반기) 제3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2016.11.) 공동체경제네트워크 창립총회(20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관련 계속 토론중 제1회 마을만들기 아산대회 개최(201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네트워크 법인 설립 필요성 토론 아산시 마을만들기협의회 발족 준비중(2019.9.)
논산	마을자치분권과 마을자치팀 (주민자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마을지원센터 추진단 (행정직영) 2015. 10.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팀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감사실 공동체경제추진단 신설(20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2명(기간제), 8월 2명(임기제) 채용 사회적경제과 지역공동체팀으로 전환(20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등 희망마을건설과 마을공동체팀으로 복귀(2018.1.) 마을자치분권과 마을자치팀으로 이관, 명칭 변경(2019.1.)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및운영 조례 제정(2018.3.)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9.7.)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예정(2019.하반기) 2015년, 논산희망마을포럼 조직개편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마을만들기협의회로 전환(2017.1.)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등 교육 및 조직화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별개 창립(2017.2.)
홍성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2016. 12.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근 센터장 + 상근 인력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정기획단, 농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신설(2017.7.) 민관협력 거버넌스 '홍성통' 운영중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2018.3.) 희망마을협의회 창립(2013.3.) 및 조직 재정비(2017.2.)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설립(20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지원센터(3명) 별도 수탁(2019.3.) 청년마을조사단 운영중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운영중

사군	총괄·조정부서	중간지원조직	행정과 민간의 추진상황
예산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 2015. 11. 개소 - 반상근 센터장 + 상근 인력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2015.11.) ▶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016.7.) ▶ 마을위원장 협의회 구성(2016.6.) ▶ 민간 네트워크 법인 등록(2017.11.) ▶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2018.1.) ▶ 제5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2018.11.) ▶ 신활력플러스사업단 구성(상근2명, 2019.6.)
보령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 2016. 3. 개소(직영) 2017. 3월 위탁 전환 - 비상근 센터장 + 상근 인력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과 마을만들기팀 신설(2016.7., 3명) ▶ 별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직영) 개소(2016.12.) ▶ 도시재생과로 업무이관 및 명칭 변경(2018.10.) - 공동체업무 담당 1명 추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2019.3.) ▶ 희망마을협의회 창립(2014.7.) ▶ 마을만들기협의회로 전환(2015.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창립(2016.12.) -체험관광 유통네트워크 사업단 별도 설치(상근 3명) ▶ 제4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2017.11.) ▶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2019.3.)
서천	건설과 희망마을팀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행정직영) ▶ 2017. 1. 개소 - 상근 인력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2018.7.) ▶ 성장촉진팀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이관(2018.1.) ▶ 건설과 희망마을팀으로 명칭 변경(2019.1.) ▶ 마을만들기협의회 창립(2017.4.) ▶ 공동체 네트워크 추진(2017.8.) ▶ (사)서천마을누리네트워크 창립(2019.4.) ▶ 2020. 1. 민간위탁 전환 예정
청양	농촌공동체과 공동체기획팀 (주민자치, 일반농산어촌사업, 푸드플랜, 공공급식, 농촌관광, 6차산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행정직영) ▶ 2017. 4. 개소 - 임기제 센터장 + 상근 인력 4명 ▶ 재단법인 설립절차 이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2017.7.), 개정(2018.9.) ▶ 농촌공동체과 신설(5개팀, 19명)로 업무 전체 이관(2019.1.) ▶ 센터장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2019.5.) ▶ 2019년 농촌신활력플러스 신규사업 선정 ▶ 통합형 재단법인 설립 연구용역 진행중(2019.12. 예정) ▶ 혁신플랫폼 공간 설계중(행안부 지역활성화기반조성사업) ▶ 청양군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2018.7.) ▶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장 1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활동가 1명, 센터 사무실 공유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1차완료 2019.4., 2차 수행중) ▶ 재단법인 타당성 연구용역 수립중(2019.7.~)
태안	해양산업과 지역공동체마을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마을지원센터 (행정직영) ▶ 2017. 11. 개소 - 상근 인력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수부 이관(2016.9.) ▶ 조직 개편, 지역공동체마을팀 신설(2018.1.) ▶ “해양산업과” 신설 및 업무이관(2019.1.) ▶ 조례 제정 준비중(2019 하반기 예정) ▶ 마을만들기 통합 협의회 설립 논의(2016~2017년) - 태안반도희망포럼,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 2020. 1월부터 민간위탁 전환 목표

사군	총괄·조정부서	중간지원조직	행정과 민간의 추진상황
금산	건설교통과 마을가꾸기팀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행정직영) 2018. 8. 개소 - 상근 인력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개편, 행복마을팀 신설(2017.7.) 센터 : 금산다락원 청소년의집 2층 개소(2018.8.) 조례 제정 준비중(2019. 하반기 예정) 마을가꾸기팀으로 명칭 변경(2019.7.) 민간협업체 간담회 2회 개최 완료(2017.11월, 12월) 민간 네트워크 준비모임 진행중(2019. 상반기~) 1기 마을대학 개최완료(2019.6.)
서산	시민공동체과 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행정직영) 2019. 6. 개소 - 상근 인력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2018.4.) 시민공동체과 신설 및 업무 이관(2019.1.) 1기 마을대학 개최(2019.8-9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예정(2019.하반기) 2020. 하반기 민간위탁 전환 목표
공주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종합지원센터 (행정직영) 2019. 7. 개소 -임기제 2명+ 기간제 2명 흥미진진나드리센터 (농촌관광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18.12.) 조직 개편, 농촌혁신공동체팀 신설(2018.2.) 주민공동체과 신설 및 업무이관(2019.1.) (농촌혁신공동체팀→마을만들기팀, 사회적공동체팀으로 분리) 1기(2018.8-9월), 2기(2018.11.) 마을대학 개최 3기(2019.8.) 마을대학 개최 4기(2019.11.) 마을대학 개최 마을만들기협의회,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구성중(2019.9.)
부여	건설과 마을공동체팀 (일반농산어촌사업, 사회적경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행정직영) 2019. 10. 개소 - 상근 인력 2명 재단법인 설립절차 이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2018.2.) 건설과 마을공동체팀으로 명칭 변경(2019.1.) 공동체업무 1명 증원(2019.3.) 1기 마을대학 개최 완료(2018.8-9월) 재단법인 타당성 연구용역 수립중 (2019.8월~)
당진	건설과 기반조성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행정직영, 2019.12. 1인 채용, 2020.4. 정식 개소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9.7.) 주민자치 영역과 결합하여 조직개편 준비중(2019.12.) 센터 임기제 1명 채용 공고중(2019.10월 예정) 12월중 근무 시작 예정 2020.4월중 센터 개소 추진중.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입주
계룡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 연구책임

구 자 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 내부연구진

정 석 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초빙책임연구원
이 윤 정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연구원
황 유 리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연구원
이 혜 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행정원

■ 행정 협조

염 태 상 당진시청 건설과 과장
김 해 규 건설과 기반조성팀 팀장
박 성 환 건설과 기반조성팀 주무관
박 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